YOUNG ARTISTS PROJECT 2017

arevolutionfrommybed

YOUNG ARTISTS PROJECT 2017

arevolutionfrommybed

주최 | Colorful DAEGU 주관 | 대구아트스퀘어 DAEGU ART SQUARE 대구미술협회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arevolutionfrommybed

YOUNG
ARTISTS
PROJECT
2017

contents

greetings	006	류형우 2017대구아트스퀘어조직위원장	Ryu, Hyung-Woo Executive Director of the Organizing Committee of 2017 Daegu Art Square
	008	박병구 대구미술협회장	Park Byungkoo Daegu Fine Arts Association President
foreword	010	2017청년미술프로젝트 내 침대로부터의 혁명 김이삭 2017청년미술프로젝트 감독	Young Artists Project 2017 a revolution from my bed Issack Kim Young Artists Project 2017 Exhibition Director
exhibition	015 121	본전시 특별전	Main Exhibition Special Exhibition
artists' cv	129		
credit	148		

초대글

류 형 우
2017대구아트스퀘어
조직위원장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2017 청년미술프로젝트(YAP)를 개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젊은 작가들의 실험적이고 진지한 작품세계를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청년미술프로젝트'는 '대구아트페어'와 함께 '대구아트스퀘어'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문화 행사이며 최고 수준의 미술 축제라고 자부합니다.
특히 '청년미술프로젝트'는 국내·외 청년 작가들의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작품들을 선보이는 장으로 신진 작가 발굴에 크게 기여해 온 대규모 국제 전시입니다.

이번 전시에는 대구지역을 비롯한 국내 작가뿐만 아니라 러시아, 프랑스, 타이완, 멕시코, 인도, 독일, 미국 등 8개국 청년작가들이 참여해 회화 및 설치, 영상, 사진 등 다양한 미술 작품을 선보입니다. 작품의 수준 향상을 위해 우수한 작가들을 선정하고자 노력한 만큼 새롭고 창의적인 작품들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에도 많은 관람객들이 참여하여 젊은 작가들의 독창적이고 강렬한 예술작품을 통한 메시지를 느끼고 공유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행사에 참여하고 귀한 작품을 출품해 주신 작가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특별한 전시를 위해 애쓰신 대구아트페어 안혜령 운영위원장과 청년미술프로젝트 박병구 운영위원장, 그리고 운영위원 여러분들, 사무국 직원들의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본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후원을 아끼지 않으신 문화체육관광부와 대구광역시 관계자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행사가 더욱 빛이 나도록 묵묵히 도움을 주신 후원사 및 지역 기업, 언론사 관계자분들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2017청년미술프로젝트를 통해 예술의 사회적 역할과 가치에 대해 다함께 고민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Invitation

Ryu, Hyung-Woo
Executive Director of
the Organizing Committee
of 2017 Daegu Art Square

It is a great pleasure to hold 2017 Young Artists Project (YAP) celebrating its 10th anniversary this year.

I am confident enough to mention 'YAP' which provides a chance to appreciate experimental and serious works of young artists at one exhibition is the only cultural event and the top-class art festival in Korea which can be identified exclusively in 'Daegu Art Square,' along with 'Daegu Art Fair.' Particularly, 'YAP' is a grand-scale global exhibition greatly contributing to discovering rising artists through displaying their original and experimental works of both internal and external young artists.

This time, we have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young artists in this event from 8 countries including Korea, France, Germany, India, Mexico, Russia, Taiwan, and the USA to show their art works carried out in multiple different types such as painting, installation, image and photographs. As we have made a great effort to invite artists with excellent performance to improve levels of works, there is a big chance to find new and creative works.

Hopefully, a large audience can join the event, and feel and share the messages of the artists through appreciating original and powerful works of the artists.

Thanks to this opportunity, I would like to express my gratitude to all the artists joining the exhibition with their great works. In addition, I sincerely thank Ahn, Hye-Ryung, Executive Director of Daegu Art Fair, Park, Byeong-Gu, Executive Director of YAP Steering Committee, members of the steering committee as well as secretariat staff, making all their effort to prepare for this event.

Moreover, I also extend my thanks to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nd the persons concerned in Daegu City giving full support to make this event successful. I would like to offer my heartfelt thanks to sponsors, local companies and the press continuously contributing to making this event even bigger as well.

Lastly, I hope 2017 YAP can be a platform to re-consider social roles and values of art all together.

사회를 바라보는 예술가의 시선

박 병 구
2017청년미술프로젝트 운영위원장
대구미술협회 회장

청년미술프로젝트는 젊은 작가의 시각으로 예술이 우리 삶에 어떤 가치와 영향을 줄 수 있는지와 인간의 본질적인 삶에 대해 예술가의 남다른 시선으로 펼쳐내는 전시입니다.

이번 2017청년미술프로젝트의 주제인 "내 침대로 부터의 혁명(a revolution from my bed)"은 사회적 관계를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가 느끼는 문제를 예술가의 시각으로 풀어낸 전시로 기존 사회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재미있게 표현한 작품들로 구성될 것입니다.

현대미술에 와서는 미술가의 시각은 선과 형태, 빛, 색채, 공간 등을 보는 능력만 아니라 사회와 호흡하며 그 이야기를 창의적으로 풀어내는 능력까지 지니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인 젊은 작가들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파생되는 새로운 표현의 영역을 확대하여 각기 매체는 다르지만 이 시대의 자기발전과 인간적인 성찰,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고 다양하게 담아내는 훌륭한 전시를 만들어 내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전시는 국내 청년작가와 해외작가가 함께 전시를 할 수 있어서 더욱 뜻 깊은 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작가는 해외작가와 함께 대중들에게 작품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세계적 흐름을 파악하고 해외작가도 대구의 미술애호가에게 소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청년미술프로젝트가 더욱더 발전하여 자신이 좋아하는 일, 믿고 있는 일에 매달리는 작가에게 진정한 희망과 명예를 주는 행사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행사를 위해 지원해 주신 대구광역시 권영진 시장님,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류형우 조직위원장님외 운영위원님들, 불철주야 전시를 기획하느라 애쓰신 김이삭 감독님을 비롯한 전시관계자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참여한 모든 작가들에게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Artists' perspectives on society

PARK Byung Koo
Executive Director of
YAP Steering Committee
President of
Daegu Fine Arts Association

Young Artists Project (YAP) is an exhibition to display, from the perspectives of young artists, what values and impacts art can bring to us, and how differently artists consider essential life of human.

The 2017 exhibition, from the views of artists, deals with issues everyone has in their life by making social relationships with others, under the theme of "a revolution from my bed," and in particular shows the works expressing new thoughts on our society in their own distinct and interesting ways.

When it comes to contemporary art, artists should have abilities not only to understand lines and shapes, light, colors, and space but rephrase their stories creatively through keeping in tune with society. Accordingly, I believe that young artists participating in this exhibition will make the event successful by expanding new methods of expression derived from the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ies, and containing self-development and humane introspection towards this era, and their emotions freely in many different media.

In addition, this exhibition can be more meaningful in consideration of being wi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artists at one event. Particularly, it can also be great opportunities for all artists from both Korea and overseas countries to understand global trends through displaying works to the public with international artists and introduce works to art enthusiasts in Daegu respectively.

Hopefully, YAP can be greatly developed and eventually become an event able to help artists devoting themselves to what they love and believe in, have true hope and honor.

Lastly, I would like to express my gratitude to Kwon, Young-Jin, the Mayer of Daegu, greatly supporting the event, Ryu, Hyung-Woo, Executive Director of the Organizing Committee of Daegu Art Square, and members of the Steering Committee, giving their full support for the event, Kim, Issack, the director, making a great effort to plan the event, and other all people concerned, and wish all the participants tremendous success.

내
침대로부터의
혁명

김 이 삭
2017청년미술프로젝트 감독

2009년부터 시작되어 9회째를 맞는 「청년미술프로젝트YAP' 17」은 만40세 이하의 젊은 작가들이 참여하는 '국제미술전시'이다. 아트페어(Art Fair)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 함께 개최되는 본 전시는 현대미술의 최신동향을 제시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춘 청년미술의 허브의 역할을 담당하며, 국내외 젊은 예술가들의 재능을 세계무대에 알리는 거점으로서 아시아의 대표적인 예술행사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

2017년 청년미술프로젝트에 초대된 세계의 젊은 작가들은 그들의 예술적 재능을 통한 '종합예술의 완성'을 꿈꾸며, 키네틱아트, 페인팅, 드로잉, 멀티미디어, 사진, 설치, 조각 등 다양한 예술의 장르를 통하여 새롭고 창의적인 작품을 창조하겠다는 이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작품 속에는 우리가 사는 인생을 반영하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을 지닌 숭고하고 창의적인 아우라가 내재되어 있다. 우리는 기존의 예술의 신화를 해체하고 세계를 보다 직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들의 시선에 주목해 보려고 한다. 그들은 인류가 오랜 시간 동안 무엇이 될지도 모르고 공들여 쌓아 올린 '탐욕의 신전'에 바쳐진 수많은 물신숭배의 흔적과 첨예하게 날 선 이데올로기와 복잡하고 미스터리한 사회현상들을 자신들의 '일상'에서 건져 올려 자유로운 표현이 허용되는 '예술의 특권'을 사용하여 그 실상을 드러낸다.

애당초 그들의 작품들이 모두 보다 나은 세계를 위한 공익을 목적으로 창작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작가들은 현재 세계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차별과 소외, 두려움과 공포, 탐욕과 이기심, 범죄와 유혹, 전쟁과 파괴, 거짓과 죽음을 정면으로 직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을 때로는 해학적으로, 때로는 날 선 비판을 담은 예리한 시선으로 새롭게 해석된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청년작가들의 작품을 '사회적 예술(Social artistry)'의 범주로 가져와 이를 통하여 세계가 당면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에서 나타나는 물적(Physical), 심리적(Psychological)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조명해 보고 '삶을 위한 예술(Art for life's sake)'의 사회적 역할과 가치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플라톤은 영혼을 지배하는 예술의 힘이 너무나 커서 도시의 토대를 흔들 수 있다고 생각했다. 현대사회에서 문화예술은 그 어떤 사회운동보다도 변혁의 강력한 원동력이 될 수 있으며 세계를 빠르게 변화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음에 틀림이

없다. 엘시스테마(El Sistema)의 기적에서 검증된 바와 같이 예술은 보다 나은 세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가장 강력한 소통의 수단이기 때문이다.

전시 타이틀 'a revolution from my bed(내 침대로부터의 혁명)'는 '영국 맨체스터 폭탄테러' 추모식에서 추모객들이 제창(齊唱)하여 화제가 되었던 그룹 오아시스(Oasis)의 'Don't look back in anger(분노로 뒤돌아보지 말아요)'에 삽입되어 있는 노래 가사이다. 그러나 이 문구의 원래 출처는 존 레논(John Lennon)과 요코 오노(Yoko Ono)의 반전_평화 운동인 베드인(Bed-In) 퍼포먼스에서 존 레논이 한 말을 인용한 것이다. 그들의 예술은 혼돈과 분열로 점철된 현실 안으로 더욱 깊게 파고들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를 떠들썩하게 할 만큼 독창적인 방법으로 가부장제도와 성차별, 세계평화 등의 글로벌 이슈(Global Issue)를 외쳤다.
우리는 그들이 '예술(Art)'이라는 지울 수 없는 펜으로 써 내려간 '사랑과 평화'의 메시지를 오늘에 적용하여, 전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자연환경을 관통하고 있는 불평등과 부조리, 소외와 무관심, 집착과 탐욕에 관해 이야기하려고 한다. 우리는 역사를 기억하는 것과 예술과 현실 사이에 장벽을 허물고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적 예술(Social artistry)을 통해 살고 싶고 또한 살 수 있는 미래로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한다.

화가이자 큐레이터였던 아놀드 보데(Arnold Bode)가 제2차 세계대전으로 파괴된 도시를 재건하고 나치에 의해 자행된 예술말살 행위를 다시 예술로 치유하기 위해 기획한 세계적인 미술행사가 바로 독일의 카셀 도큐멘타(Documenta)이다. 우리는 도큐멘타와 같이 예술이 이미 발생한 불행에 대처하는 '치유의 도구'일 뿐만 아니라 예방을 위한 '백신'의 역할까지도 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백신이 굳이 당신에게 필요하지 않은 불편한 진실을 확인시킴으로써 원치 않는 현실을 보게 한다면 실험집단 '해프닝(Happening)'의 핵심멤버였던 앨런 캐프로(Allan Kaprow)가 리히텐슈타인(Roy Lichtenstein)에게 했던 충고의 말에 다시 한 번 귀 기울여 보자. "예술이 꼭 예술다운 예술로 보여야 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

a revolution from my bed

Issack Kim
Exhibition Director of
2017 Young Artists Project

‘2017 Young Artists Project (YAP)’ celebrating the 9th anniversary this year starting in 2009 is an ‘international art exhibition’ whose participants are under the age of 40. This exhibition organized in strategic cooperation with Art Fair proposes the latest trend of contemporary arts, plays a role as a hub for young-artists art with global competition, and has become a representative art event in Asia as a key foothold to spread talent of internal and external young artists to the world.

Young artists invited both from domestic and foreign countries to 2017 YAP dream of ‘completing composite arts’ through their artistic talent, and have ideals of creating new and original works through various genres of arts including kinetic art, painting, drawing, multi-media, photograph, installation and sculpture. In addition, there is noble and creative aura in their works, with power able to reflect our life and change society. We are intended to dismantle the existing myth of art and focus on viewpoints of young artists looking into the world more intuitively. They try to drag millions of traces of fetishism dedicated to ‘temples of greed’ accumulated with great effort by human without knowing what it would create, ideologies edged sharply and mysterious social phenomena, into their ‘everyday life’, and disclose its truth through ‘privilege of art’, a means to enjoy freedom prohibited in the structure of modern socie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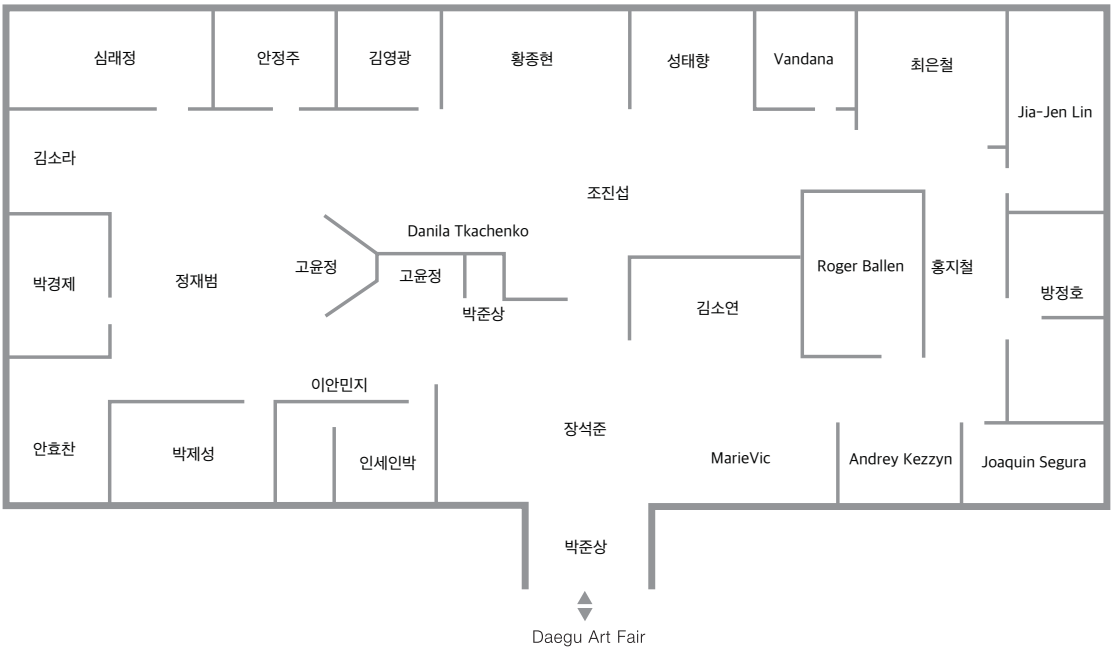
Even though their works have not been created for the purpose of public interest for the better world at the very first time, the artists have faced discrimination and isolation, fear and dread, greed and selfishness, crime and temptation, war and destruction, and untruth and death currently happening all over the world, and made works through re-translating the reality humorously or in a keen eye with sharp criticism.
We try to concentrate on physical and psychological issues appearing in politics, economy, society, culture, and environment the world faces through bringing works of the young artists into the category of ‘social artistry’, and have an opportunity to come up with ideas of social roles and values of ‘art for life’s sake’.

Plato, a Greek philosopher, believed art was able to modify the foundation of cities since the power of art dominating our

spirit was too powerful. It is certain that culture and art can be strong impetus for reformation incomparable with politics, economy and any social movements in modern society, and have a positive energy to change the world rapidly. Art, as proved by a miracle of El Sistema, is the most tremendous means of communication to make the better world.

The title of the exhibition, ‘a revolution from my bed’, is a part of lyrics inserted in ‘Don’t look back in anger’ of Oasis, an English rock band, making a big issue through being sung by mourners at the memorial ceremony of ‘Manchester Arena terror attack’ in the UK. However, it is originally from what John Lennon mentioned in Bed-In performance, an anti-war °§ peace campaign carried out with Yoko Ono. Their art not only deeply penetrated into the reality scattered with chaos and disunity but made global issues including patriarchal system, gender discrimination, and world peace in an original and strong way enough to make the world earthshaking.
We try to bring about inequality, irrationality, alienation, indifference, obsession and greed being penetrated into politics, society, culture and natural environment in the world through applying messages of ‘love and peace’ to today’s, which is written in the pen of ‘art’ never being removed. This means we are concerned in remembering our history, breaking down barriers between art and reality, and connecting the past, present, and future, and hope that we can live a life through social artistry at present as well as going a step further in the future.

Arnold Bode, a painter and curator, planned Kassel Documenta in Germany, a global art event for reconstructing demolished cities after World War II and recovering art destroyed by Nazis. We hope art can play a role both in ‘healing’ pains already suffered and in ‘preventing’ suffering we might be able to have in the future.
If you are afraid of realizing inconvenient truth we do not want to discover, a word of advice of Allan Kaprow, a key member of ‘Happening,’ an experiment group, to Roy Lichtenstein can give you attention.
“Art does not have to look like art-like art!”


심래정
안정주
김영광
황종현
성태향
Vandana
최은철
Jia-Jen Lin
김소라
조진섭
Danila Tkachenko
고윤정
고윤정
박준상
박경제
정재범
Roger Ballen
홍지철
방정호
김소연
이안민지
안효찬
박제성
인세인박
장석준
MarieVic
Andrey Kezzyn
Joaquin Segura
박준상
Daegu Art Fair

YOUNG
ARTISTS
PROJECT
2017

Index of Artists

고윤정 YunJeong Ko
김소라 Sora Kim
김소연 Soyeon Kim
김영광 Youngkwang Kim
다닐라 첸코 Danila Tkachenko
마리빅 MarieVic
박경제 KyungJe Park
박제성 JE BAAK
박준상 Joonsang Park
반다나 Vandana
방정호 Jungho Bang
성태향 Taehyang Seong
심래정 Raejung Sim
안정주 Jungju An
안효찬 Hyochan Ahn
안드레이 케친 Andrey Kezzyn
이안민지 Minji Leeahn
인세인박 Insane Park
장석준 Suk-Joon Jang
정재범 Jaebeom Jeong
조진섭 Jinsub Cho
지아젠 린 Jia-Jen Lin
최은철 Euncheol Choi
호아킨 세구라 Joaquin Segura
홍지철 Jicheol Hong
황종현 Jonghyun Hwang

Special Exhibition
로저 발렌 Roger Ballen

고윤정

YunJeong Ko

다중(多重),(多衆)의 정체성

나는 자연과 인간 등, 대상세계들 간의 관계의 방식에 집중하고 있다. 수많은 대상들과의 관계에는 그만큼 다양한 관계의 형식적 복잡성이 따른다. 관계를 통해 파생되는 현상은 여러 관점에서 그 대상을 찾을 수 있다. 호흡이나 영양섭취를 통해 나의 신체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산소, 물, 곡식 등은 그것들을 생성시키는 자연과 내가 맺는 관계의 매개체로 생존에 기여하는 자연적 관계의 방식이다.
이러한 자연적 관계는 사회적 동물로 진화한 인간의 사회적 관계로 확장된다. 타인에 대한 공감, 경쟁, 불신 등은 타인과 나에 대해 이해하게 되는 관계의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타인과의 정서적 교감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거나 사회적 유대를 통해 나의 존엄성을 인식하기도 하며 생각의 차이로 인한 갈등, 회피, 불안 등을 겪기도 한다. 이처럼 관계의 그물망 속에서 내 안에는 여러 모습이 혼재하고 있다.

인간은 '다른 경험' 으로부터 형성된 '다른 가치관' 들 중 보다 많은 '주류' 를 형성하고 있는 가치관의 지배를 받는다. 우리는 자신의 외적 세계(자연과 인간, 유기물, 무기물 등)와 따로 떨어져 있는 별개의 독립적 존재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보이지 않는 영향을 주고 받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외부세계와 만나는 이러한 방식에 관심을 가지고 그 관계 속에서 움직이는 모호하고 불투명한 흐름을 3차원의 공간 속에 조각하여 현대인들의 혼란스러운 다중(多重, 多衆)의 정체성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Identities of all sorts of objects

I concentrate on the relations between targeted worlds including nature and people. The relations among numerous objects mean formal complexity of multiple kinds of relationships to be followed. Phenomena derived from the relations can discover its objects in various perspectives. Oxygen, water and grains nourishing my body through breathing or intake of nutrient are the way of the natural relation contributing to survival as a medium of the relation between me and the nature generating them.
These natural relationships spread to social relations of humans evolving as social animals. Sympathy, competition and distrust to others are the means of relations helping understanding me and others. In this process, I can come to gain stability through emotional communication with others and recognize my dignity through social tie. However, conflicts, avoidance, and anxiety due to difference in thinking are also experienced. With that said, many different features are mixed inside me in the networks of relations.

Humans are controlled by values creating more 'mainstream' among 'different values' generated by 'other experiences.' This is because we are not independent existences separating from our own external world (nature, human, in- and organic-substances, etc.) but having an influence each other as invisibly connected. I am trying to present identities of all sorts of objects, confusion of people in modern times through showing interest in the way we meet the external world, and carving vague and uncertain flow moving around in the relations in the three-dimensional space.

Sensation
Resin, Marbling paper, 452×100×205cm이내 가변설치(입체 55×38×180cm), 2012

Being...
Resin, Marbling paper, Mixed materials, 43×90×39cm(5EA), 2012

‘세계’라는 거대한 덩어리에서 단 하나의 개체로 떨어져 나온다는 것은 엄청나게 두렵고 고독한 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분리 없이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없으며, 더불어 자신을 세계에 드러내 보일 수도 없다. 조각가 고윤정의 일련의 작업들에서는 이러한 분리와 이탈 그리고 자기회귀의 과정이 펼쳐지고 있다. 작가의 초기 작업은 ‘세계 속에 거주하는 나’와 ‘세계’가 만나는 다양한 방식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었다. 그 ‘만남’이라는 것은 얼핏 물 위에 어떠한 의도 없이 떠도는 기름띠가 속절없이 만들어내는 문양(마블링)처럼 신비롭고 경이로운 듯 보이지만, 사실 매우 오랜 시간 전부터 치밀하게 계산되어온 필연적 인연에 의해 생성된 것이다.
사람들은 군중 속에 자신을 숨겨두고 싶어 하며, 배경 속에 한 없이 침잠되고 싶어 한다. 그리고 이때 자주 사용하게 되는 것 중 하나가 보호색(camouflage)이다. 이는 외부의 위협적인 요소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도도 지니지만, 또한 외부의 세계에서 분리되고 싶지 않은 의지를 발현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만큼 분리된다는 것은 아프고 외로운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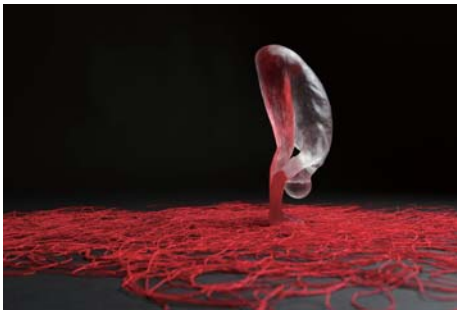
〈김지혜 평론글 중〉

That we fall from the ‘world,’ the huge mass, as one object is extremely fearful and lone. However, we cannot discover ourselves in the true sense nor disclose ourselves to the world without the separation. The works of Yun-Jeong Go, a sculptor, show the process of separation, deviation and self-regression. The initial works of the sculptor contain concerns on the various ways ‘I living in the world’ and ‘world’ meet each other. The ‘encounter’ looks mysterious and extraordinary just like oil belt floating aimlessly in the water producing patterns (marbling) with no good purpose, but it is generated based on inevitable connections calculated thoroughly for a long time.
People want to hide themselves in the crowd and endlessly withdraw into their background. In addition, one of things being often used at this moment is camouflage. It has an intention to protect itself from threatening factors of the outside as well as reveal a will of not being separated from the outside world. This tells that being divided can be painful and lonely.

인체풍경 Landscape of the human body
한지에 수묵, 평면캐스팅, 가변설치 India ink Korea, Flat casting

흐름 Flow
Marbling paper on pillar, Field installation

Stimulation 자극
Resin, 15.5×10.5×41cm, 2016



Exhalation 날숨
Resin, 9×10×15.5cm, 2016

김소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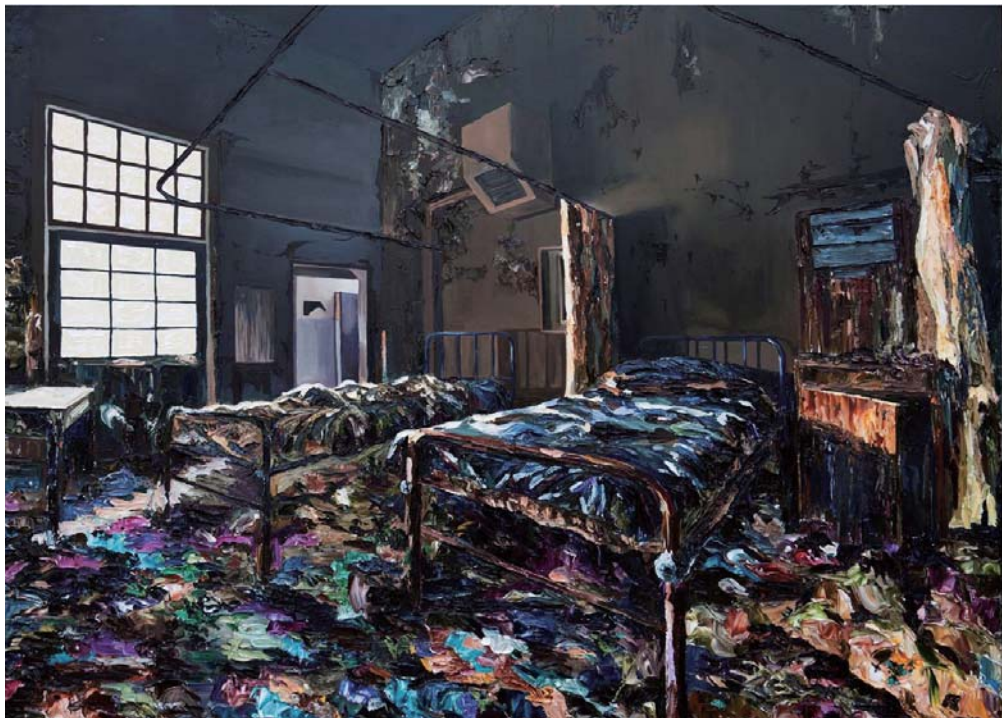
Sora Kim

'잊혀진 풍경' 시리즈

나는 버려지고 잊혀진 채 존재하는 장소에서 불안하고 소외된 현대인의 모습을 떠올린다. 장소란 단지 지리적인 지시대상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구체화된 공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인간화된 공간은 그 장소에 살던, 혹은 그 장소를 기억하는 사람의 삶과 기억이라는 심리현상이 내재되어 있다.
나의 관심은 사적인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던 장소들에서 점차 사회적, 역사적 기억을 가진 장소들로 확장되고 있다. 인간의 욕심 혹은 잔혹성이 불러온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를 주제로 한 〈가려진 시간〉, 일제강점기의 역사적 장소를 보여주는 〈잊혀진 풍경〉 시리즈가 그것이다. 체르노빌은 이제 버려진 도시가 되었고, 공포와 잔혹의 식민정치로 신음하던 장소가 이제는 관광객이 들르는 장소가 되어 기억 저 편에서 희미해져 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나는 이러한 장소를 그림으로 불러들여 사람들 앞에 정면으로 마주하게 한다. 그것이 아픈 기억이든, 잔혹한 기억이든, 혹은 그럼으로써 소중한 기억이든, 버려진 장소를 나의 그림 안에서 생생하게 다시 살아나게 만드는 것이다. 물감이 채 마르지 않은 화면 위에 다시 물감을 두껍게 올려 쌓아 올리는 행위는 그 장소가 가진 시간의 퇴적인 동시에, 그 시간이 가졌던 기억들을 환기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또한 대조적으로 매끈하게 표현된 공간들을 병치함으로써 과거와 현재,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기억과 정서, 공간에 거울처럼 비춰지는 우리의 모습을 표현하고, 이러한 반복적 행위에서 무언가를 얻고자 애쓴다. 그 긴장과 모호함 속에서 내가 느끼는 것들이 보는 이에게도 전달되기를 희망한다. 그 안에서 우리의 모습이 보이기를 희망한다.

Forgotten Landscape

I recall unstable and isolated men in the modern world in places existing abandoned and forgotten. That is because a place means 'humanly concretized space' not just a geographical object. Humanized space has psychological phenomenon in it, lives and memories of people who used to live or remember there.
My interest spreads from places stored in my personal memories to places with social and historic memories. <Hidden Time> performed under the theme of Chernobyl disaster caused by greed or ruthlessness of humans, and <Forgotten Landscape> presenting historic places of Japanese Colonial Era are my representative works. As Chernobyl has become the city abandoned, it is hard to deny that the place, once groaned by fearful and brutal colonial politics, is getting forgotten as some tourists just visit. I tried to bring those kinds of places into drawing and make people face them. Whether those are bitter or brutal memories, or precious memories as drawing, I try to make those matters lively re-revive in my drawing.
That painting over the screen is still fresh is translated as accumulation of times the places have as well as action for recalling the memories of the times. In addition, I express our features reflected to the past and present, visible and invisible things, memories and emotion, and space, just to a mirror, and try to obtain something from the repeated acts. I hope the things I feel in this tension and vagueness can be delivered to my audience. Then, hopefully they can find our figur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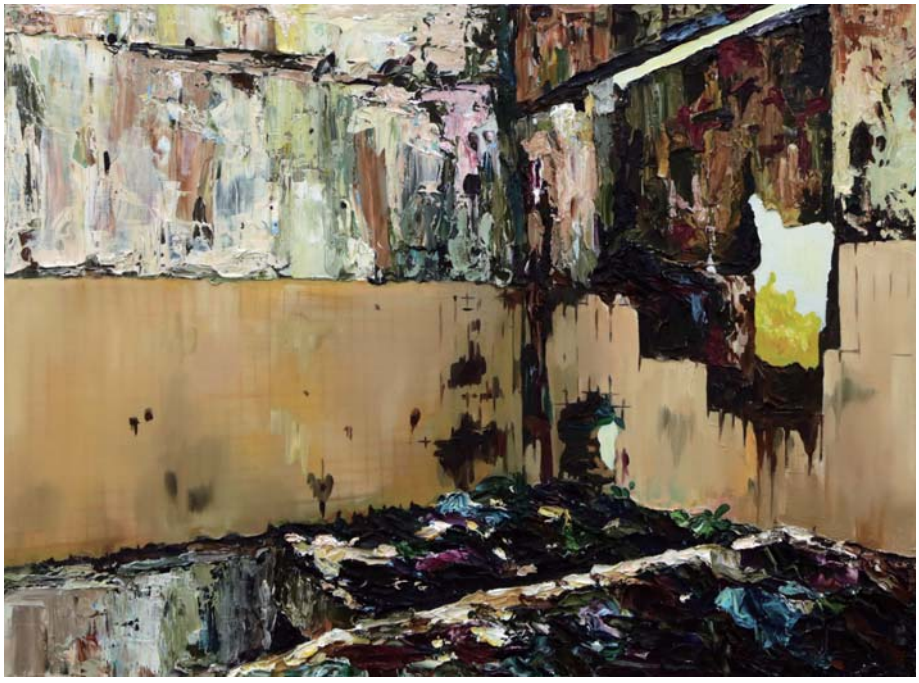


가려진 시간2
Oil on canvas, 130.3×162.2cm, 2016

잊혀진 풍경 (서대문형무소)
Oil on canvas, 130.3×162.2cm, 2016

잊혀진 풍경3 (사형장)
Oil on Canvas, 91×116.8cm, 2016

잊혀진 풍경4 (군산세관)
Oil on Canvas, 91×116.8cm, 2016



욕실
Oil on canvas, 53×65.1cm, 2016

붉은단풍으로물든 수영장
Oil on Canvas, 130.3×162.2cm, 2016

김소연

Soyeon Kim

네가 있어 슬프다.

미술은 현실과는 동떨어진 환상인 듯하면서도, 어느 순간 우리의 삶 속에 가장 밀접하게 다가오기도 한다. 미술은 감상하거나 창작하는 행위를 통하여 내면의 감정을 표출시킴으로써 이완 효과를 얻고, 그에 따라 상처받은 감정의 치유에 이르게 되는데 효과적이다. 이러한 치유적 기능으로써의 미술을 통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인간은 주체적이지 못한 불안정한 자기 자신을 바로 세우기 위해 무엇인가를 소유함으로써 만족감을 느끼려고 한다. 이는 자신의 결핍을 메우고 부재를 대체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소유를 통한 만족감은 사물을 정복할 때보다 생명체(타자)를 정복할 때 더 크게 느끼게 된다.

소유는 소외를 부르는 환상이다.

"타자를 소유하려는 나'와 '자신을 지키려는 타자', 타자를 소유하기 위해 나만의 틀에 가두고, 자신에 기준에 맞추려 한다. 그 안에서 죽어가는 타자. 벗어나기 위해서 아무리 발버둥을 쳐 보아도 소용이 없기에 체념한다. 이 목숨을 건 투쟁에서 나는 왠지 모를 소외감을 느낀다. 소유함으로써 타자의 존재가 없어졌기 때문에, 주변에는 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무언가가 하나둘씩 없어지는 것이다. 이 투쟁 속에서 승리자인 나는 항상 '소외감'이라는 공포 속에 있게 되며, 소유는 결국 암흑의 세계와 다르지 않다.

화려하지 않은 고백

요즘 우리 주변의 아동들은 겉으로 보기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일지라도 그 내면엔 말할 수 없는 외로움을 감추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 아이들은 타인과 소통이 되지 않는다. 타인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알지 못하여 자기만의 세계에서 나오지 못하고 주변을 경계하며 특정 사물이나 색에 집착하거나, 방어기제를 통해 자신의 불안한 마음을 표현한다.
아이들은 타인의 관심을 받기 위해 여러 가지 치장을 해보지만, 오히려 우리에게 안타까움만을 자극한다. 화려한 것 같지만 화려하지 않은 이 고백은 마음속의 자리 하나를 내어주고자 하는 아이들의 소리 없는 외침이다.

You make me sorrowful

Art seems to be a fantasy that is miles away from reality, but, at one point, art sometimes comes close to our lives. By appreciating and creating art, people can express their emotions deep insidetheir hearts. In this sense, this can enjoy a relaxation effect, and it is therefore good to cure scars of wounded hearts. Through this art work with curing functions, I am going to attempt to bring about several stories happening around me.
By owning something, humans are intended to have satisfaction, which helps overcome their own unstability and lack of dependency. This is to fill the deficit and absence of their own identity as well. The satisfaction through the ownership can be enjoyed greater than dominating living things or others than some objects.

Possession is an alienating illusion

'I intended to possess others' and 'others trying to defense themselves from the desire.' After that, I throw the others into a groove to meet my criteria and the others resign themselves and are dying even though they struggle to escape the frame. Sadly, after the triumph of this battle, the destruction of the others' presence by possession, I feel somehow left out at this life-and-death struggle which brings about disappearance of people one by one who concede me.
After all, I, the winner, exist in a sense of alienation with fear. As the final outcome, the possession is the same as darkness.

Not a showy confession

Recently, children around us seem to have no problems outwardly. Inside, however, many of them hide emotions of loneliness deep in their hearts. These children cannot communicate with others. These children do not know trust and love for others, and they cannot break the shell of their inner world. They are always afraid of others and their neighboring environment. They are often obsessed with particular objects or colors, and they get to express their anxiety through their defense mechanism.
Even through children try to elaborate themselves to draw people's interests, it rather seems miserable. Their confession seems splendid somehow, but not that showy, which is actually an acoustic louder of children who want to share some part of their minds with others.

김소연-하늘을알지못하는물고기 ▶
Mixed media, 가변설치, 2010

방어기제는 심리적인 과정이다. 우리가 외부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스트레스의 영향을 최소한 줄이려고 하는 것이 방어기제이다. 작품 속 아이는 이러한 방어기제 중 '퇴행'이라는 방어기제를 사용하고 있다. 퇴행(regression)은 도피형의 기제로 위협적인 사태로부터 자신을 도피시킴으로써 심리적 안정을 찾는 적응 기술 중 하나이다. 생의 초기 단계에서 만족스러웠던 생각이나 행동 양식에 다시 의지함으로써 현재 상황의 위협이나 불안을 해소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유아기 때의 손가락 빨던 행위를 하며 불안한 자신의 감정을 해소하고자 하는 눈빛으로 관객을 바라본다. 그리고 이 손가락 빠는 행위는 부모의 사랑이 부족했던 구강기를 보낸 아동의 고착증상으로도 나타난다.
이러한 퇴행은 종종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한다. 그래서 이러한 불행에서 맞설 수 있는 '강박적 행동'을 통해 상황 대처를 한다. 강박적 행동은 사소한 것에 과도하게 집중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것은 적개심으로부터 생겨난 죄책감에 의해 일어난 불안의 결과로 보인다.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특징은 화려한 듯 하지만 화려하지 않은 치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이들은 꽃으로, 아니면 광대 복장으로, 아니면 각자만의 다른 방법으로 자신을 치장하고 감춘다. 내가 마음을 열어도 그 누구도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에 아이들은 관심을 끌기 위해 꾸미고 노력해보지만, 그 모습은 화려하지가 않다. 오히려 그 치장이 더 다가가기 힘들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
아이들은 이렇게 부모에게, 가족에게, 친구에게, 관객에게 고백한다. 자기를 봐달라고, 마음속의 작은 자리 하나를 내어주겠다고 조심스럽게 고백한다. 이렇게 화려한 듯하지만, 화려하지 않은 아이들의 고백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지 자문해 본다.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Mixed media, 35×27×100cm, 2010

보랏빛슬픔
Mixed media_70×40×35cm, 2011

여기 어딘가에
Mixed media, 가변설치, 2010

사진출처 : Clayarch Gimhae Museum
촬영 : 이동문, 정정호

Defense mechanism is a psychological process, which means, when we get stress, it tries to minimize its impacts. Children in the work use 'regression,' one of defense mechanisms. Regression, escape-type mechanism, is one of adaptation skills to seek for psychological stability by escaping oneself from threatening conditions. By depending on thoughts or behavior patterns satisfied at the early part of their life, they try to remove threats or anxiety in the present environment. That is why the children stare at the audience in eyes of resolving their unstable emotions by sucking their fingers being used to do during their infancy. Moreover, the sucking habits appear as an obsession symptom for children getting through oral period lacking love by their parents as well. In addition, the regression often causes guilt or shame. Therefore, they deal with situations through 'compulsive acts' standing against this unhappiness. When it comes to compulsive acts, it has features of over-centralization on trivial matters. It is considered as a result of uneasiness caused by guilt generated by hostility.

The second feature the children show is that they are adorned as if they look showily but it is not. They are decorated in different ways such as in flowers or clown costume, and conceal themselves. The children try to make them fancy to obtain others' attention because of anxiety generated from that no one would come closer to them even though they open their mind, but they do not look showy. Their dandification even becomes the matter making others feel uncomfortable to approach them.
In this sense, the children have a confession to their parents, family, friends and the audience. They confess cautiously about being concerned about them, and making a small room for them in their heart. We ask ourselves about how we accept their confessions which look showy but it is not.

백색의 어린광대
Mixed media, 65×50×120cm, 2007

나무 왕관을 쓴 아이, 2007

난찌르찌르의 파랑새를 알아요, 2008

김영광

Youngkwang Kim

Dreampark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고통을 받는다. 초조함, 불안함, 무기력함.
왜 이러한 고통에 시달려야 하는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언제부턴가 잉여인간이라는 말이 들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것은 사회가 규정하는 특정 사람들을 빗대어 표현하는 단어로
자리잡았다. 사회가 요구하는 것들, 미디어가 무의식 중에 주입시키는
조건을 따르지 못한 자들. 사회에서 요구하는 쓸모 있는 인간이 되지
못하고 스스로를 돌보지 못한 자들. 승리자가 되지 못하고 패배자가
되어버린 자들. 이러한 압박감은 피해망상을 만들어내고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고 현실에서 눈을 돌리게 만든다. 그리고는 허상을 바라보게 된다.
허상은 언제나 아름답고 멋지고 과장된다. 하지만 허상은 어디까지나
허상일 뿐이다. 그렇다면 실체는 무엇인가? 내가 속한 이 현실은
무엇인가? 허상이 실체가 되면 고통스럽다.
결국 현실은 아름답지도, 멋지지도 않으며 전혀 과장되지도 않는다.
다시 초조하고, 불안하고, 무기력함이 되돌아올 뿐이다.

Dreampark

We are suffering as making a life day by day. Anxiety, uneasiness and lethargy. Why do we have to suffer from those pains? Where did it go wrong? At some point, the word, surplus person, has been heard. It has become the word to refer to certain people regulated by society. People un-conforming with requirements demanded by society and injected by media. People unable to take care of themselves as incapable persons against the ideals required by society. People not enough to be winner but just losers. This pressure makes paranoid, and eventually has us give up and turn our back on them. Then, we are looking at illusion. Illusion is always attractive and exaggerated. However, illusion is only illusion. Then, what is the truth? What is this reality I belong to? When illusion turns out to be truth, it is painful. In the end, reality is not beautiful, nice nor exaggerated. It is just back with anxiety, uneasiness and lethargy.

Dreampark, Multi-channel Video installation, 6', 2017

다닐라 첸코

Danila Tkachenko | Russia

탈출

사회생활에서 탈출하기로 결심하고 마을이나 도시,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야생에서 혼자 살고 있는 사람을 찾아 여행하고 있었다. 여행의 주요한 부분은 러시아에서 이루어졌다.

나는 대도시의 중심지에서 성장했지만, 항상 야생에 마음이 끌렸다. 나에게 그것은 사회 상황에서 벗어나 숨어서 진정한 나, 나의 진짜 자아를 느낄 수 있는 곳이다.

현대 사회에서 내적 자유란 이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 당신이 항상 사회라는 틀에 둘러싸여 있을 때 그것은 얼마나 가능할 것인가? 학교, 직장, 가족. 일단 이 사이클 속에 있게 되면, 당신은 자신의 위치에 속한 포로가 되고 하기로 되어 있는 일을 해야만 한다. 당신은 실용적이고 강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낙오자가 되거나 미치광이가 된다.

내 프로젝트의 주요 등장인물들은 각기 다른 이유로 사회적 기준을 위반한다. 사회로부터 완전히 물러나 그들은 야생으로 가서 혼자 살고, 점차 그곳에 녹아들고 사회적 정체성을 잃게 된다. 그들의 경험을 탐구하는 동안, 누군가가 사회적 의존에서 완전히 도망가서 대중에서 벗어나 주체적인 존재로 도달하여, 자아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지 내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ESCAPE

I was traveling in search for people who have decided to escape from social life and lived all alone in the wild nature, far away from any villages, towns or other people. The major part of my trips were done in Russia.

I grew up in the heart of the big city, but I've always been drawn to wildlife - for me it's a place where I can hide and feel the real me, my true self, out of social context.

I am concerned about the issue of internal freedom in the modern society: how feasible it is, when you're surrounded by a social framework all the time? School, work, family - once in this cycle, you are a prisoner of your own position, and have to do what you're supposed to. You should be pragmatic and strong, or become an outcast or a lunatic.

The main characters of my project violate social standards for different reasons. By a complete withdrawal from society they go live alone in the wild nature, gradually dissolving in it and losing their social identity. While exploring their experience, it is important for me to understand if one is able to break free from social dependence and get away from the public to the subjective - and thus, to make a step towards oneself.

Escape Series#2, Dibond, 2013

Escape Series#18, Dibond, 2013

≪이해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사회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사회도 저에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 세계 속에서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으며, 이곳에서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심지어 가족에게 어떤 것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도 없고 제가 친구를 가질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것을 가져가지 마십시오! 저는 모든 것을 이미 빼앗겼습니다. 저곳, 철조망 뒤, 모든 것이 저의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바로 여기입니다! 숲에서 말입니다! 저의 행복, 자유, 위엄, 모든 것이 여기 있습니다! 다른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연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완전히 자연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제가 떠났을 때야 저는 이것을 이해했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제가 여기에서 잘 지내는 이유겠지요.≫

«Don't you understand? I don't suit this society, and it doesn't suit me. I haven't done anything in this world, and I can't do anything here... I couldn't even give anything to my family! I don't have friends, and there's no way I can have them. But don't you take what's mine! I've already been stripped of everything. There, behind the wire, all that is mine. You see? Right here! In the woods! My happiness, my freedom, my dignity - it's all here! And I don't want anything else. Man cannot defeat nature. The only thing he can do is submit to it completely. I only understood this when I left. Maybe that's why I feel so good here.»

Escape Series#9, Dibond, 2013

Escape Series#13, Dibond, 2013

≪왜 함께 어울린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기 시작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오직 자신만 사랑하기 때문이겠지요. 관계 당국은 도둑이며 노상강도입니다. 그들은 자신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소위 발전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의 목표에만 기여를 합니다. 그 목표한 것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폭력이라는 모든 종류의 시설과 장치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힘, 거짓말, 중독 위에 세워진 문명이었습니다. 자신의 몸은 보호했지만, 인간은 자신의 영혼을 보호하는 것은 생각을 못 했습니다…. 결국 영혼과 물질 사이의 거대한 불균형이 커졌습니다. 인류는 영혼 결핍이라는 끔찍한 질병의 불치병에 걸려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혼자서 탈출함으로써 가능합니다. 일반적 노력은 소용이 없습니다. 너무 늦은 건 있죠.≫

«I do not understand why people who come together begin to hate and oppress each other. It's because everybody loves only himself. The authorities are thieves and bandits, who care only about their own skin. And the whole so-called progress served only one goal - the creation of all kinds of facilities and instruments of violence to retain power. The result was a civilization built on force, lies and addiction. Having protected his body, man did not think about protectimg his soul ... In the end a huge imbalance between the spiritual and the material has develpoed. Mankind is fatally ill with the terrible disease named lack of soul. Salvation is possible only through escaping alone. Common efforts are fruitless. It's too late.»

Escape Series#26, Dibond, 2013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저는 제 어린 시절에 대해 자주 생각합니다. 제 삶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오래된 노래도 생각합니다. 심지어 그 노래들을 부르기도 합니다. 때로는 마음 속으로 가사를 만들기도 합니다. 한 가지 더 있어요. 저는 자주 다른 삶을 살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술도 마시지 않고, 좋은 가족들과, 직업을 가지고 말입니다. 이 〈한탄〉은 항상 똑같이 끝을 맺습니다. 저 자신에게 말을 하지요. ≪〈Anatoly Ivanovich(아나톨리 이바노비치), 게으름 그만 피우고 가서 땔감이나 잘라라!〉≫ 한밤중에 도끼를 잡고 나무를 베기 시작하지요. 일은 죽은 남자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It may seem strange, but I often think of my child- hood. It must have been the happiest time in my life. Then the old songs. I even sing them. Sometimes I make verses in my mind. One more thing: I often think I should have lived a different life: no drinking, with a good family, and a job. This «moaning» always ends up the same way. I say to myself: «Anatoly Ivanovich, stop being a slacker, go chop some firewood!» I grab an axe and start cutting trees in the middle of the night. Work can raise a dead man.»

마리빅
MarieVic | France

Masculine-Feminine

Masculine-Feminine은 2개의 비디오와 2개의 조각으로 구성된 혼합 미디어 설치물이다.
비디오 딥틱에서, 댄서의 상징적이고 조각적인 신체는 중산층 문화의 성의 상징들과 함께 우아하게 혼합되어 있다. 한 비디오에는 쇼핑 카트가, 다른 비디오에는 씨 뿌리는 사람이 있다. 이러한 것들은 비디오 옆에 전시되어 있는 것과 동일한 아이템들이다.
댄서의 움직임은 고요하고 그는 두 상황 모두에서 편안한 것처럼 보이고, 일상적인 사물을 인상적인 장면으로 바꾸고 있다.
다소 클래식한 구성을 통해, Masculine-Feminine은 현대 세계에서 역할의 상호교환 가능성과 정체성의 다양한 차원을 탐구하고자 한다.

Masculine-Feminine

Masculine-Feminine is a mixed media installation composed of two videos and two sculptures.
In the video diptych, a dancer's iconic and sculptural body gracefully mingles with symbols of gender in the middle-class culture: a shopping cart in one video, and a seeder in the other. These are the same items that are presented next to the video. The dancer's movement is serene and he seems as ease in both contexts, turning ordinary objects into a spectacle.
Through rather classical compositions, Masculine-Feminine seeks to explore the interchangeability of roles and the multiple dimensions of identity in the contemporary world.

Masculine-Feminine_Video_Cart 1 ▶
Masculine-Feminine_Video_Cyclone 6 ▶

유니클론

몽고산 염소와 저가 유니클로 스웨터 사이의 캐시미어 리에종인 Uniclones(유니클론)는 대량생산된 의류가 그것의 브랜드화된 통념에서 탈맥락화되어 뒤틀린 불협화음 효과를 위해 다시 만들어지는 것이 담긴 비디오 작품이다. Uniclones(유니클론)는 다수 부조리한 병렬을 통해 몽골산 캐시미어 염소와 유니클로 캐시미어 스웨터 사이의 관계에 대해 더 폭넓게는 유목민 삶과 빠른 유행 제품 사이의 관계에 대해 언급한다.

시장에서 유니클로 같은 기업은 소비자를 상품으로 몰고 간다. 유니클로는 한 때 소수에게만 허용되었던 사치품을 대중이 구입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그 제품들은 매력적이고 마음대로 쓸 수 있고 심지어 윤리적이기까지 하다. 그 소매상은 소비자라는 사회에 개성을 부여하는 제품을 제공한다. 그것은 품질 의식적인 소비자들의 쾌락적 욕구를 만족시키면서도 그 자체의 생산 매커니즘에 의해 야기된 불안을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통해) 중립화시킨다. 이는 그 무리 내의 일종의 윤리적 딜레마를 달래주는 것이다. 이 역동성에서, 그 기업은 목동이 되었고 소비자는 무리가 되었다. Uniclones(유니클론)는 그 메시지에서 다소 파괴적이지만 그 톤에서는 유쾌하다. 이것들이 이 직물이 나온 바로 그 동물인지, 또는 생산 과정이 어떻게든 불안하게 만드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비디오 프로젝트에서 분명한 것은 이 동물들이 그런대로 행복하다는 것이고 그 동물들은 서구의 의복으로 입고 있으며, 각각은 개인이지만 집단으로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UNICLONES

A cashmere liaison between Mongolian goats and low-cost Uniqlo sweaters Uniclones is a video work in which mass produced clothing is decontextualized from its branded myth and repurposed for wry, discordant effect. Uniclones commen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ongolian cashmere goats and Uniqlo cashmere sweaters, and more broadly, between nomadic life and fast fashion products, through rather absurd juxtaposition.

This dynamic is somehow mirrored in the marketplace, in which companies like Uniqlo shepherd consumers toward products. As a global brand, Uniqlo has made accessible to the masses a luxury good that was once only available to the few. Their products are attractive, disposable and even ethical.
The retailer provides its community of consumers an individuating product: it satisfies the hedonist desire of quality conscious consumers while neutralizing (via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he anxiety provoked by its own mechanisms of production, appeasing a sort of ethical dilemma within the herd. In this dynamic, the corporation has become the shepherd and the consumer the flock. Uniclones is somewhat subversive in its message, but playful in its tone. It is not clear that these are the exact animals from which this fabric comes, or that the production
process is in any clear way unsettling. What is clear in the video project is that these animals are reasonably happy, and that they are draped in Western clothing, each one an individual, yet posturing collectively.

J공정무역

Fair Trade(공정무역)은 2016년 Stems Gallery(스템스 갤러리)에서 전시된 설치물이다. 그 작품은 1제곱미터로 판매 중인 일련의 담배꽁초를 전시한다. 일단 획득이 된 후, Fair Trade는 수집가들이 다른 미술품과 그들의 담배꽁초를 교환하도록 초청을 하고 그 작품을 정교한 시체로 변화시켜버리는데, 각 조각은 손에서 손으로 옮겨간다. 이러한 제스처적인 작품 상황에서, 담배꽁초는 일종의 선물분배의식을 위한 수단이 되며, 비생산적 비용의 중요성을 단언하고 있다. 파우스트식 거래의 측면이 있는데, 그것은 세속적 즐거움은 덜 유형적인 것을 위해 옹호되고 찬양된다는 것이다. 신체의 상업화와 예술의 사업화라는 즐거운 연구를 위해, 그것은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유혹적인 흥정이며 MarieVic(마리비크)에 의한 공정한 무역이다!

Fair Trade

Fair Trade is an installation presented at Stems Gallery in 2016. The piece presents a series of butts for sale, by the square meter. Once acquired, Fair Trade invites collectors to exchange their butts for other art objects, turning the work into an exquisite corpse, each piece moving from hand to hand. In this context of the gestural work, the butts become a medium for a sort of potlatch, a affirming the importance of unproductive expenses. There is a Faustian aspect, a way in which earthly pleasures are asserted and celebrated in favor of something less tangible.
For a delicious study on the commodification of the body and commercialization of art, it's a tempting bargain - made in France and Fair Trade! by MarieVic.

웨일컴 픽처

멀티채널 비디오 설치물

원래 뉴욕 Red Bull Studios(레드불 스튜디오)에 전시되어 있는 Whalecum Pictures(웨일컴 픽처)는 예술과 상업의 작은 틈을 그리고 시장 내 가치라는 개념을 유쾌하게 조사하는 비디오 설치물이다. 그 작품은 상징적 영화들에 나오는 7개의 다시 상상된 장면들과 이러한 영화들과 연계된 홍보용 사물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 사물들은 영화를 개발한 허구적인 생산 회사, 즉 Whalecum Pictures(웨일컴 픽처)에 의해 크게 브랜드화 되어 있다. 프로젝트는 7개의 비디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은 다양한 아이템에서 나온 주목할만한 장면을 분명하게 재현하는 역할을 한다. 각 비디오 한 쪽에 그 특정 장면에서 나온 사물이 놓여있다. 슬리퍼나 스트레스볼 같은 전형적인 소비재인 사물 그 자체에는 Whalecum Pitures(웨일컴 픽처) 로고가 있다. 그 로고는 아무 재미가 없다. 일반적 필기체로 쓰인 단어이며, 두 마리의 범고래가 안으로 다이빙하고 있으며, 그 뒤에는 파란색 동그라미가 있다. 예술가의 서명이 아래에 있다. 본질적으로 가장 부조리한 것이 그 아이템들, 즉 이쪽 배우가 입은 속옷!과 저쪽 배우가 든 담배는 미디어 그룹과 다른 기업들이 흔히 이용하는 홍보스타일, 즉 각각에 브랜드 로고가 찍혀있는 홍보스타일을 흉내낸다. Whalecum Pictures(웨일컴 픽처)는 예술 후원과 소비자중심주의를 통한 돈의 악순환을 지적하고 있으며 그 안에 유쾌하게 존재하고 있다. 브랜드는 자애롭게 예술에 부여되고 있으며, 예술은 브랜드에 부여되고 있다. 익살스럽게 Whalecum Pictures(웨일컴 픽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다.

WHALECUM PICTURES

Multi-channel Video Installation.

Originally presented at Red Bull Studios in New York, Whalecum Pictures is a video installation that playfully investigates the interstice of art and commerce, and the notion of value within a marketplace. The work consists of seven re-imagined scenes from iconic movies, and promotional objects that tie in with these movies.
The objects are heavily branded by the fictional production company that develops the movies - Whalecum Pictures.
The project consists of seven videos, each plays a distinct reenactment of a notable scene from the various items. Aside each video is an object from that specific scene. The object itself - a typical consumer good like a slipper or stressball - bears the Whalecum Pictures logo. The logo is innocuous enough: the words written in generic corporate cursive, two orcas diving inward, a blue circle behind them because why not. The artist_s signature is underneath. The items, absurdist in nature - the underwear worn by this actor! the cigarette held by that actor! - mimic the promotional style often employed by media conglomerates and other companies, the branded logo stamped on each one.
Whalecum Pictures points to a vicious circle of money through art patronage and consumerism, and exists playfully within it. The brand is philanthropically bestown upon the arts, and the arts bestowed upon the brand. In jest, Whalecum Pictures comes full circle.

박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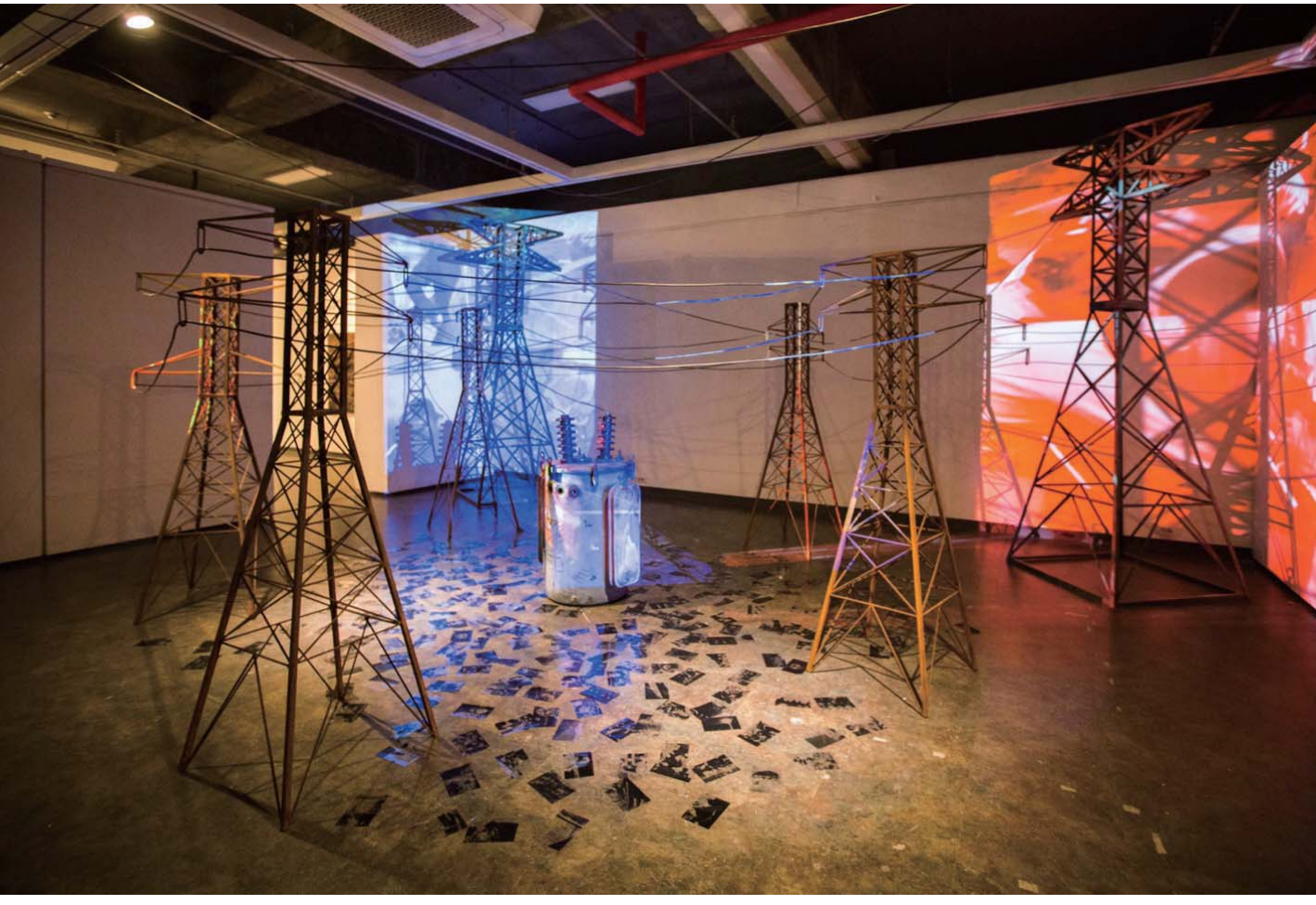
KyungJe Park

345kv

어느덧 찾아 온 겨울, 저물어가는 한 해의 끝자락에서 오늘도 차마 저물지 못하는 그 곳, 청도군 각북면 삼평리. 처음 두 손에 카메라를 들고 찾아간 그 곳에는 절망이 있었고, 때문에 희망이 있었다. 아니, 있어야만 했다. 누워가는 가을 들녘이 있었고 누워버린 그녀들이 있었다. 두 눈에, 카메라에 담긴 그 날의 광경에 대해 안타까워 할 수 없었다. 또한 함부로 슬퍼할 수 도 없었다. 그것은 비단 살아가며 종종 마주하게 되는 타인의 이야기가 아니었으며, 그 이야기에 이제야 귀 기울이는 나 자신이 함부로 공감할 수도 없었다.
빼앗으려는 자와 지키려는 자, 한 쪽이 칼을 쥐면 다른 한 쪽은 총을 잡는 그 싸움 앞에서 나는 위로와 도움 그 무엇도 뒤로한 채 예술가로서 두 손을 움켜잡았다. 송전탑을 하나 둘 만들기 시작했다. 송전탑이 있다. 여기도, 저기도, 당신이 지나온 길과 돌아가야 할 길 그 어느 곳에도 있었고, 있을 것이다.
아픔이 있다. 절망이 있다. 여기도, 저기도, 당신이 생각 조차 하지 않을 어느 시퍼런 들녘에도 차마 저물지 못한 채 10번째 겨울을 우두커니 맞이할 것이다. 보지 않는 곳에 보이지 않는 이야기가 숨어있고, 너무도 당연한 것에 결코 당연치 않은 이야기가 얼룩져있다.
무모하리만큼 당연한 이 몇 개의 구조물로 나는 그 이야기를 작게나마 전하고자 한다. 돌아가는 길 당신이 마주하게 될 수많은 그것들을 잠시나마 멍하니 바라보기를 기도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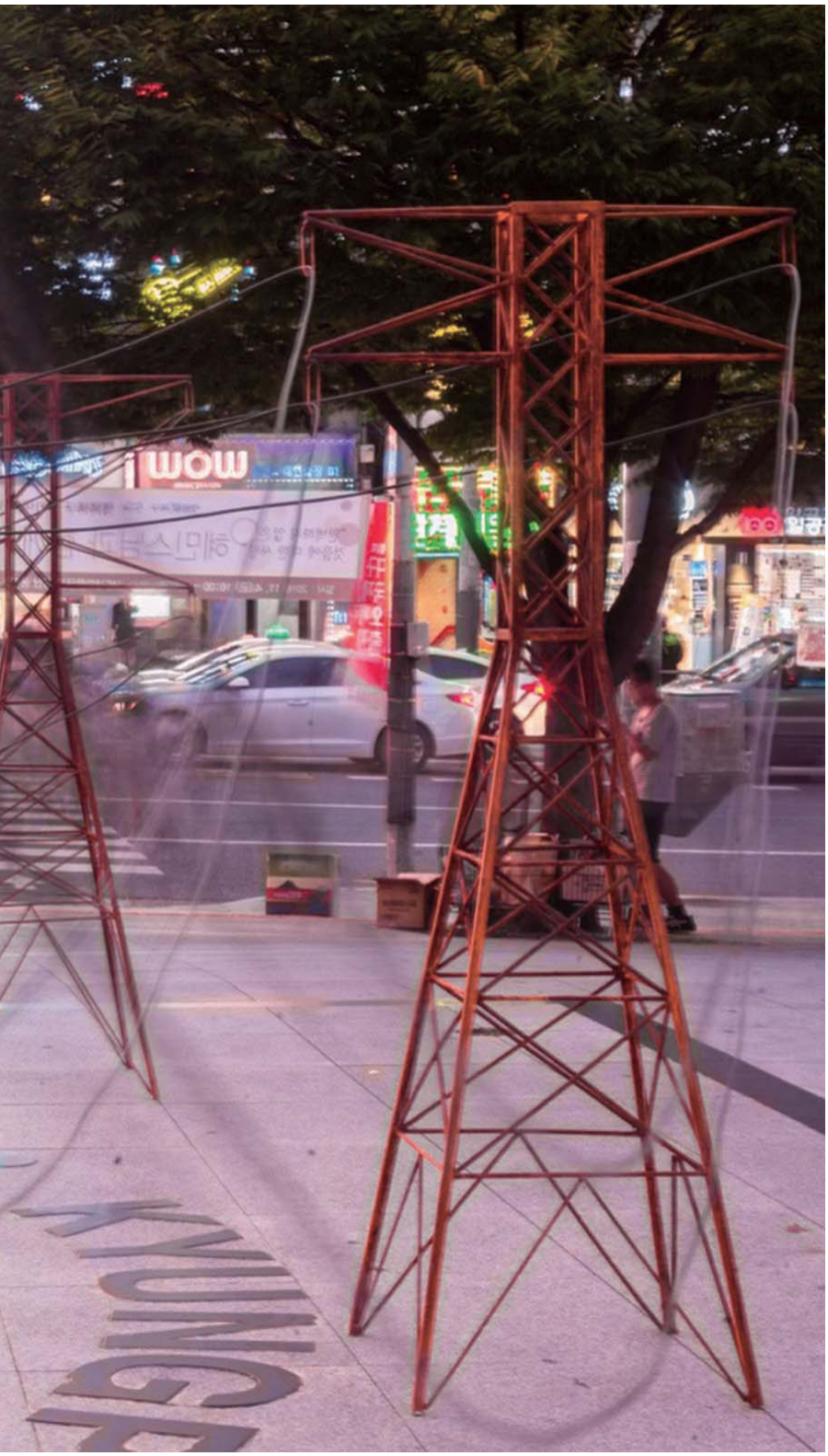
345k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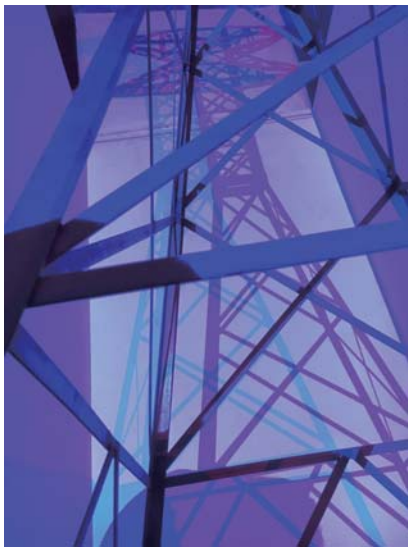
Sampyeong-ri, Gakbuk-Myeon, Cheongdo-gun, the place the day does not end again today at the end of the year, winter is upon us. There is existence necessary to someone but giving sadness to someone. It was. Residents living there have lost the place where they spent all of their lives, due to the construction of the tower. However, people do not face its truth. We have power towers in our daily life and I want to bring about stories of people damaged by the construction conducted unilaterally. When I first visited there with a camera in my hands, there was despair as well as hope. Yes, the hope should be there. There are autumn fields and women who had to choose to lie. I could not feel sorry for the sight of the day photographed, in the eyes. Nor I felt sad thoughtlessly. That was not just someone's story we often encounter in our lives and I just coming to listen to the stories dared to share it carelessly. With people trying to take and people trying to protect, I did nothing but hold my hands as an artist by leaving comfort and help behind in front of fight between one holding a knife and the other having a gun. The power tower started to be constructed one by one.
There is a power tower. There, as well. A tower was and will be standing on the road you just passed and will return. There is pain. There is despair. Here and there. The 10th winter will be vacantly faced even in the bluish field you might never think, and never ends. There are stories hidden in invisible places and unreasonable stories in very natural things. I try to deliver the story with these some couple of structures fair to be considered reckless. Hope you have a chance to stare at the numerous things you might meet when you turn ba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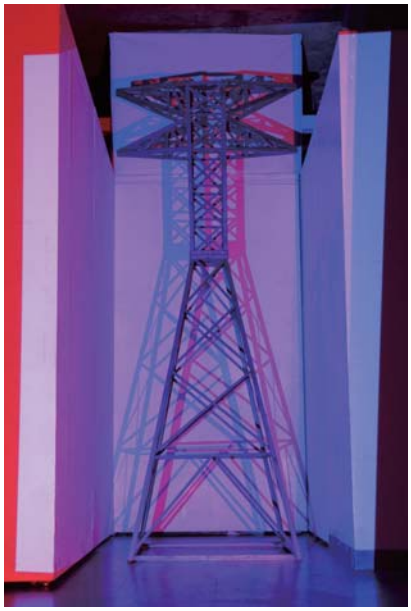


345kv
steel, 가변설치, 2016

고기무한리
반 코인
종합
문구
DASKIN







345 kv
steel, 가변설치, 2016

박제성
JE BAAK

여정

〈여정〉 속에서 관람객들은 어린아이의 질문과 같은 상징들로 가득한 초현실적인 세계를 여행하게 된다. 작가는 RPG 게임의 가상현실 공간을 사유의 공간으로 변모시키고 관객들로 하여금 그곳에 배치한 상징적인 요소들과 상황들을 여행자의 시점에서 경험하게 함으로써 삶이라는 수행적인 여정을 통해 만나는 이래와 같은 여러 질문들을 시적으로 표현한다.

– Stupa : 첫 번째로 만나게 되는 상황은 늘어선 돌이다. 이는 마치 기원을 담아 쌓은 탑과도 같은데 돌은 모두 같은 하나의 돌이나 차차 디지털 수치화 되어 마치 조각된 것과 같이 간결한 형태가 되고 점점 비어가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시지프스의 돌과 같이 인간은 끊임없는 기원과 좌절을 반복하고 이 무의미한 행위로부터 초월적 힘을 부여된다.

– Encounters : 관객은 사막에 파묻혀 걸어가다 서로를 관통해 지나가는 코끼리와 물고기를 맞닥뜨리게 된다. 코끼리와 물고기는 각각 종교적 상징성을 지니며 작가가 겪는 이성의 오만함과 인간 근원의 나약함이 겪는 갈등을 의미한다.

– a Wheel of :돌 너머로 보였던 하늘에 떠 있는 롤러코스터를 향해 걸어가게 된다. 점차 가까이 감에 따라 사람들의 놀이 공원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주기적으로 들린다. 영원히 반복되는 내릴 수 없는 구조의 놀이기구는 윤회를 상징하며 현대인들이 쫓은 공허한 자극을 의미한다.

– The Moon : 작가는 다양한 문화권에서 기원과 염원의 상징인 달을 조우하는 상황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 달은 실제의 달이 아닌 누군가의 시점에 의해 왜곡된 달이며 더 이상 절대적 존재가 아닌 상대적 관계 맺음 이후의 달이다. 이 상황을 통해 작가는 달이라는 절대적 존재가 시점에 의해 왜곡된 모습을 통해 상대적 가치에 대한 화두를 던진다.

3D Modeling & Animation_Chorong Kim
Assistant 3D Modeling_Yura Choi
Sound Design_Dongwook Kim

박제성 〈여정〉은 현대자동차그룹 VH AWARD 제작 지원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A JOURNE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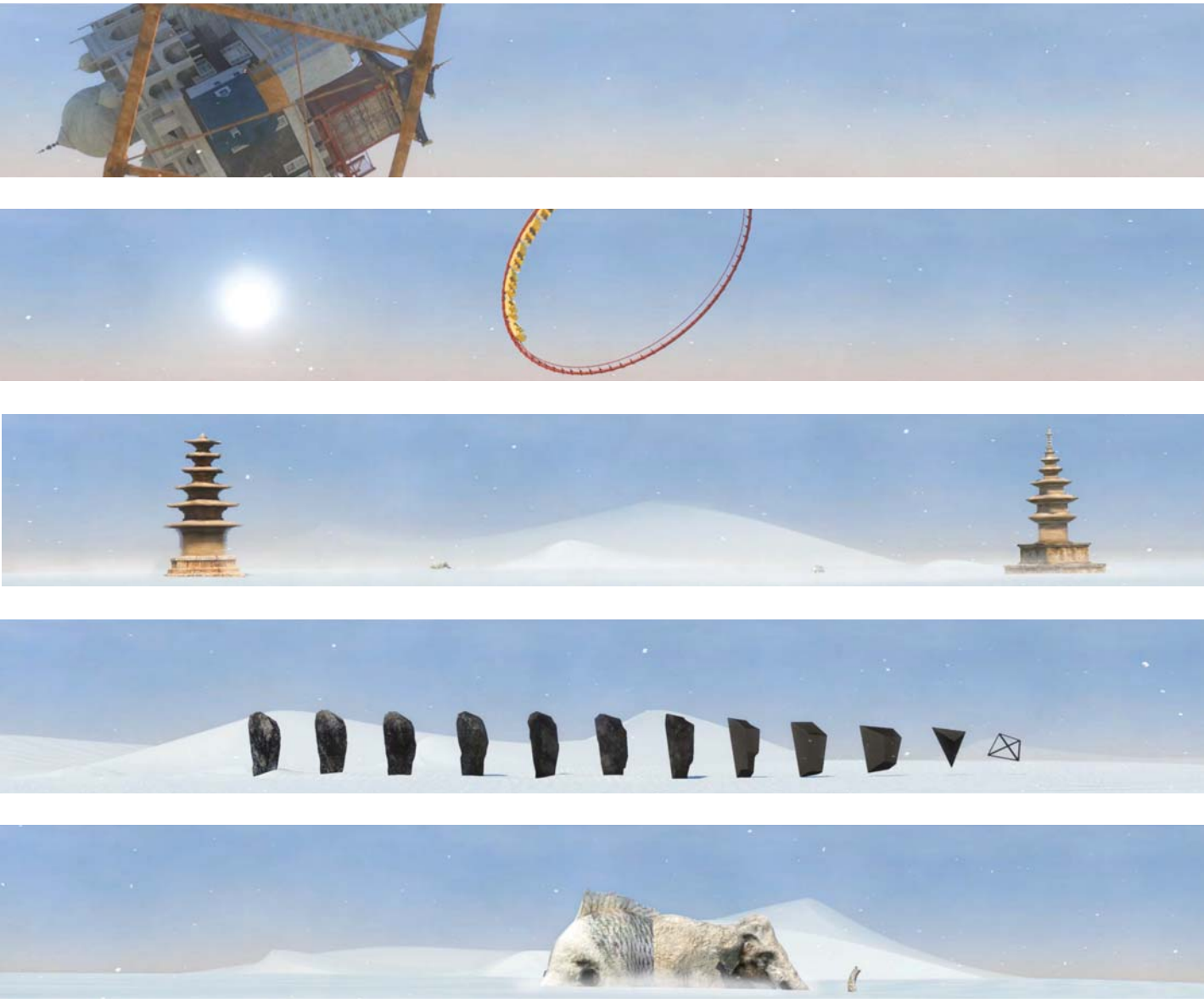
A JOURNEY adopts the element of virtual reality from RPG game, yet eliminates its fundamental quality of achieving its goal through given “missions”. This virtual reality is no longer a space for a challenge, but transformed into a space for insight meditation. The symbols applied with his methodology create disparate worlds, and they guide the audience to travel around the creations. The encountered poetic journey found in various metaphors will finally be complete as a narrative once the audience fills in the remaining blanks.

- Stupa: The first encountered situation will be stones standing in a row, just like a tower built with wishes. The stones are all identical ones, however, they are gradually digitized to a concise form as if they are sculptured, and identified they are slowly going hollow. Like the stone of Sisyphus, human repeats constant wishes and failure, and from this meaningless deed, he or she is endowed with transcendental power.

- Encounters: In a desert, the audience will find an elephant and a fish almost buried in sands, traveling a certain distance back and forth. He or she will see two animals confronting, passing by each other by being penetrated. The elephant and the fish each carries religious symbolism and they also represent one’s arrogance of intellect and the conflict he or she suffers by weakness, the origin of human.

- a Wheel of: One is walking towards the roller coaster up on the sky, which had been seen over the stones. As the audience approaches, the usual screams you hear at the amusement park are caught in his or her ear periodically. The ride that forever cannot be stopped symbolizes samsara and represents hollow excitement that today’s people pursue.

-The Moon: The artist provides a situation where the audience encounters the moon: the symbol
of pray and wish in diverse cultures. However, the moon is no longer the absolute being, but
distorted by someone’s point of sight. It conveys that the moon has already shared a relative
relation. From this situation, the artist raises a topic of value of relativity through the reflection of the moon - the absolute being - distorted by one’s point of si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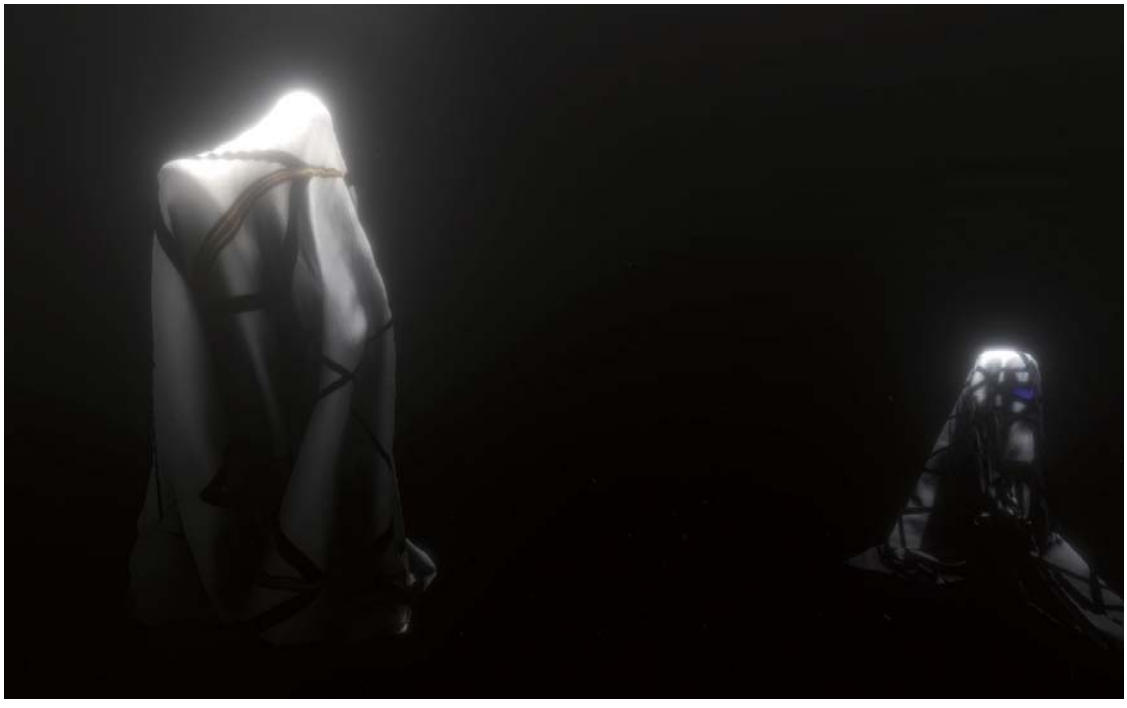


A JOURNEY
여정, 영상, 26분 54초, 2015

The Structure of 01, 02, 03, 04
1920×1080p (세로설치), Full HD
Stereo Sound, 2009

박제성 작가의 작품활동은 원시불교의 수행과 현대 철학의 접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는 관람객이 일상에서 겪는 장면들을 낯선 시각에서 볼 수 있도록 작품에서 주목 대상을 끊임없이 바꾸거나 제거한다. 진지함에서 유머로, 친숙함에서 불편함, 화려함에서 비어있음으로, 작가는 그의 관객들에게 익숙한 가치에 대한 주인의식을 환기하여, 쉽지만 익숙지 않은 질문으로 성찰과 깨달음을 얻게 한다.

Works of Je Baak focuses on the contact point of execution of primitive Buddhism and contemporary philosophy. He continuously alters and removes objects to be targeted in the works to make the audience appreciate scenes happening in daily lives in unfamiliar perspectives. The artist calls attention of ownership about values familiar to the audience, from seriousness to humor, from familiarity to discomfort, and from extravagance to emptiness, and have them obtain introspection and enlightenment with easy but unfamiliar questions.



의식 000-Pataphor
VR설치, 가변 크기, 2016

Technical Director : 김원기 (Wonky Kim)
Project Manager : 유도원 (Dowon Yoo)
Sound Designer : 김동욱 (Dong Wook Kim)

박준상

Joonsang Park

시대유감(時代遺憾)

우리는 바쁜 현대를 살아가며 정치, 종교, 문화, 인간관계 속에서 다양한 마찰을 겪으며 살아간다. 그 속에서 '질서'를 이루며 거대 사회의 자연스런 '음율(音律)'을 따라 숨을 쉬고 있다. 사회가 빠르게 흐를수록 우리는 자연인으로서의 가치와 존엄성을 잃어버릴 때가 많다. '대중적 사고', '전체주의', '공익성'이란 허울 좋은 명목으로 매일 매일을 각자 다양한 방식의 스트레스 속에서 자신을 억압한 체 사회를 보호하고 있다. 현대인들의 스트레스는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

갓 태어난 아이는 웃음 혹은 울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다. 아이에겐 '화를 내다' 라는 감정선은 아직 주입되지 않았다. 어쩌면 '스트레스'는 사회가 만들어낸 후천적 감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시대가 만들어낸 어쩌면 과거보다 현재에, 현재보다 더 복잡하고 빨라질 미래에 이 감정은 너무나 일상화되어 순수한 인간성마저 사회 속으로 잠식시켜 버릴지도 모를 일이다.

나는 현재 우리의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을 주목한다. 그 속에서 느끼는 후천적 감정을, 미처 경험해보지 못하였을 순수한 아이의 얼굴에 주입시킨다. 하지만 결코 아이는 밉거나 무섭지 아니하다. 그 이유는 너무나 단순하다. '아이'이기 때문이다. 스트레스 속 현재의 우리의 모습을 배냇저고리를 입고 세월의 풍파를 정면으로 맞고 서서 누군가를 응시하는 아이의 형태로 표현하였다. 그 안에 한국인의 정서를 담고, 이를 통해 전 세대를 걸쳐 우리 속에서 자생되어진 '스트레스'라는 감정에 대해 다시금 그 의미를 생각해 보았다. '시대유감(時代遺憾)'이 해소될 날을 기다리며...

regret of the times

We have busy life by experiencing tremendous frictions in politics, religion, culture and human relations. We breathe along with natural tunes of society by forming 'order' in it. The faster the society rapidly changes, the more we often lose our values and dignity as natural persons. We protect the society by suppressing ourselves everyday under stress formed in our own different ways in the specious names of 'popular thought,' 'totalitarianism,' and 'public interest.' Since when did people in modern times start to have stress?

Newborn babies express their emotions with smiling or crying. The emotional line of 'get angry' is not injected to them yet. It makes me believe 'stress' might be acquired emotion generated by our society. The emotion which might be produced by the times and can be developed in the present and become faster and more complicating in the future can be routinized, and erode humanity into the society.

I focus on accidents and issues happening now in our society. I inject acquired emotions I have there into innocent faces of children not having experienced them yet. However, the children are not disliked nor look terrifying. The reason is simple. They are only 'children'. I tried to express our features under stress in this time as children in traditional Korean clothing for a newborn baby facing hardships of time and staring at someone. By putting Korean sentiment in it, I had a chance to think about the meaning of 'stress' being generated naturally in our mind generation to generation again. Looking forward to seeing the day of 'regret of the times' released...

시대유감, 도자기, 80×75×200cm, 2017 ▶

Paint
도자기, 벽면에 페인팅
46×33×110cm, 2016

Paint
도자기, 조화(가변설치)
66×38×110cm, 2016

누구에게나 삶이 버거워 모든 걸 reset 하고 싶은 순간들이 온다. 과거 내가 바라왔던 모습들과 다른 어른으로서의 내 모습을 인지하는 순간, 못 견디게 서럽고 무섭고 우울해지기도 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무엇이 나를 지금의 나로 망쳐놓았을까..... 10여 년의 짧지도 길지도 않은 작가 생활을 하는 동안 나는 이 물음을 줄곧 되뇌곤 했다. 세상에 홀로 떨어져 나와 '나'라는 이름을 달고 세상을 사는 것이 참 힘들었다.

그림에서 방금 나온 듯한 아이가 서있다. 그림은 내가 꿈꾸던 세상이며 이데아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사회는 현실과 꿈 사이에서 타협하기를 종용하고 그 꿈을 하나씩 버릴 때 비로소 나를 '어른'으로 대해주었다. 이러한 내게 아내와 가정을 이루며 생긴 '아이'는 현실을 절감하게 하는 채찍이며 동시에 다시금 출발선에서 새로운 꿈을 꾸게 해주는 이유가 되어 주었다. 현실을 받아들이는 일은 언제나 힘들고 고되지만 능동적인 삶을 꿈꾸는 누구나가 그러하듯 이 시작점은 꼭 필요한 것이다.

아이가 나를 덧칠하고 그린다. 아이가 세상을 덧칠하고 그린다. 아이의 얼굴에 꿈을 좇던 '동심'을 덧칠하고 그린다.

Everybody has a moment they want to reset everything when they feel life is way beyond control. I sometimes felt sad, scared or depressed when I found myself different from the feature I expected to be in the past. Where did I go wrong, what destroyed me as I am ..... I used to keep asking myself about this question when I was a writer for around 10 years, neither too long nor too short period. I had hard time living a life under the name of 'me' alone away from the world.

A child is standing just like it comes out from a picture. Drawing is the world and idea where I have dreamt of. However, reality is different. Society has urged me to negotiate between reality and my dream, and treated me as an 'adult' whenever I gave up my dream one by one. The 'child' from me and my wife married has become a whip making me feel keenly about reality and the reason giving me a new dream at the starting point again. It is tough and difficult to accept reality, but this starting point is essential as people dreaming of active life.

The kid paints over and draws me. The kid paints over and draws the world. It paints over and draws 'innocence of childhood' pursuing dream on its face.

학은 현자(賢者)에 비유되는 대표적 장생 동물로 신선이 타고 하늘을 나는 상서로운 영물로 여겨졌다.
구름 사이로 선계(仙界)에서 내려오는 학의 모습을 인간들의 기원(祈願)의 상징인 종이학으로 표현하였다.

A crane has been considered as auspicious creature as a representative longevity animal compared to sage, which mountain spirit gets on while flying in the sky. I expressed features of the crane coming down from enchanted land through the clouds as paper crane, symbol of praying to humans.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인간은 자연의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자연을 이용하며 파괴하는 단계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있는 그대로의 순수함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인간의 기준으로 분석되어지고 해체되어 새롭게 해석되어진 자연의 모습을 동물과 기계의 형태로 치환하여 표현하였다. 받아들이는 기준에 따라 파괴의 모습 또는 진화의 모습으로도 보이는 심상을 통해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 대해 재조명하고자 하였다.

Humans, the lord of all creation, have come to the phase of using and destroying nature despite being a part of the nature. Instead of accepting pureness as it is, I have expressed the features of nature analyzed, dismantled and newly translated based on the standard of human as replaced shapes of animals and machinery. I tried to review the relations between humans and nature through images appearing as both figures of being destroyed or evolving depending on the criteria accepted.

기원(祈願) Pray
Ceramic, LED, 1500×1700×15000mm, 2016

생물학명-사슴 Scientific Name-deer
Ceramic, 1220×600×1850mm, 2017

반다나

Vandana | India

챕터 클로즈 – 퍼포먼스

Chapter Close(챕터 클로즈)는 사회에서 여성들의 역경과 깊게 연관되어 있다. 그 사회에서는 여성들은 존중받는 동시에, 인도에서처럼 경전과 종교에 등장하는 여신으로 여겨졌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구조가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존재 가치에 의문을 표하게 했지만 역설적으로 여성들은 자기연민에 굴복하거나 자기연민에서 이상한 즐거움을 취하기 시작한다.
Chapter Close(챕터 클로즈)는 여성과 여성 권리 강화라는 이슈와 어떻게 그들이 국내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고려되었는지를 다룰 뿐 아니라 인도 사회에서 여성들이 가끔 그리고 특히 결혼 후 경험하는 모든 부당한 당혹감과 죄책감, 존재에 대한 지나친 경멸과 무가치함을 상기시킨다.

퍼포먼스에서 나는 손에 해머를 든 채로 의학수술에 사용되는 직물로 만든 흰색 옷을 입고 등장하여 설치 공간으로 들어간다. 내 몸과 마음의 최대한의 힘을 다해 격렬하게 벽을 때려서 벽돌과 시멘트로 만들어진 벽을 부순다. 퍼포먼스를 위해 틀어놓은 사운드트랙은 들리기는 하지만 이해는 되지 않는데, 이것은 힌두 결혼식에서 불리는 의식용 산스크리트 만트라를 거꾸로 부르는 것이다.

이 작품은 여성을 위한 편안함, 균형, 그리고 권력에 대한 중도를 찾으려는 노력을 보여준다. 실제 벽을 부수는 행위는, 여성을 사회에서 충분히 자격을 갖춘 자기존중을 가진 인격체로 인식하면서, 굴복된 삶을 살면서 고통을 받은 다른 여성들과 공감하고, 또한 이러한 여성들이 겪어온 모든 고통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아서, 또다시 삶을 살기 시작한 여성들에 대한 경의를 보여준다. 그리고 이는 새로운 시작의 축하이기도 하면서, 새로운 시작의 조짐, 즉 평정함을 나타내기도 한다.

챕터 클로즈 – 결혼 의상 설치물

스탠드에 걸려있는, 자연 건조된 옷으로 흔히 사용되는 신부의상은 여성들이 가끔 특히 결혼 후 사회에서 겪는 모든 부당한 경멸을 상기시킨다. 이것은 또한 전세계가 살고 있는 눈부신 화려함, 최면상태, 무지라는 환상에 대한 비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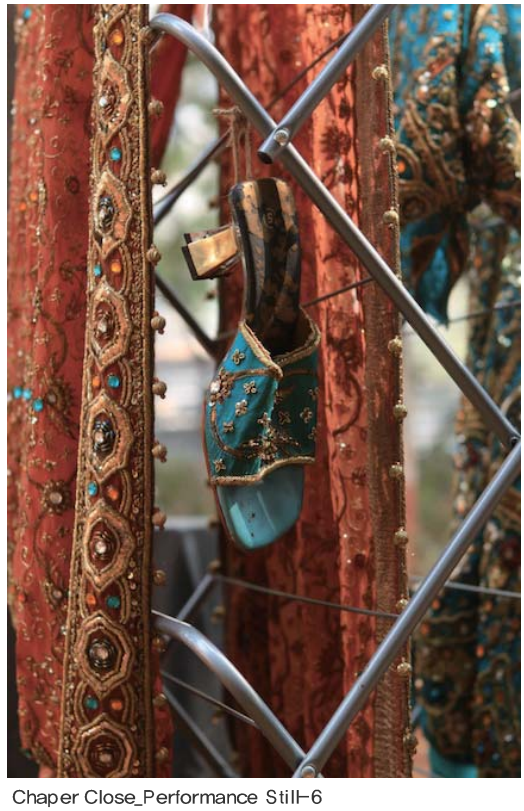
Chapter Close – Performance

Chapter Close is deeply connected to the plight of women in the society where, on one hand women have been respected and considered as Goddess in the holy books & religion as in India, and on the other hand the societal structure has brought them to question the worth of their existence but ironically women either submit themselves or start taking a strange pleasure in self-pitying.
Chapter Close, deals with the issue of women and Women Empowerment, and how they have been looked upon domestically, politically and socially as well as reminds of all the feelings of undeserved embarrassment & guilt, undue disrespect & the worthlessness of existence, women go through in Indian society every now and then and especially after marriage.
In the performance I appear wearing a white costume, made of the fabric used in medical surgery, with a hammer in my hands, enter into the installation space created for the purpose. I break the wall made of bricks and cement by violently striking the wall with the utmost force of my body and mind. The audible but incomprehensible sound track, played along, is the reverse chanting of ritualistic Sanskrit mantras chanted in Hindu Marriages.
This piece is an effort to search for an in-between space of comfort, balance and power for women, to re-placing them in the society with their well deserved self-respect, through performing the act of breaking a real wall and to empathize with the women who submitted & suffered, and pay homage to the ones who survived and started being alive again despite all the pain they went through, and is also a celebration & a harbinger of a new beginning - equanimity.

Chapter Close – Wedding costume installation

The bridal costume, hanging on a stand, commonly used to air dry clothes, reminds of all the undeserved disrespect women go through in society every now & then especially after marriage. This is also a metaphor for the illusion of dazzling glamour, mesmerization and ignorance the whole world dwells in.

Chaper Close_Performance Still-3



Chaper Close_Performance Still-6

저에게 예술이란, 어떤 형태로든 청중들에게는 지적 즐거움을 주면서, 사회에는 기여를 하는 것입니다! 예술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체, 마음, 그리고 심장을 스스로의 자아와 연결시키는 과정에서 발생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체와 인지라는 것은 경험을 예술로 바꾸는 장치라 할 수 있는데, 특히 라이브 퍼포먼스 형태의 예술로 변화시키는 도구입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정신적으로 고통이 될 수 있으면서도 따분한 느낌을 피하기 위해, 지성을 크게 사용하지 않고 실제의 느낌과 아이디어를 가장 순수한 형태로 유지하여 표현하고자 하였습니다. 예술 그대로의 예술인 것입니다. 삶도 그 자체로 예술인 것이죠.

For me Art is a service to the society along with giving intellectual pleasure to the audience, no matter what art form it is! I believe that art comes out of one's connection to one's own Self using body, mind, heart. The body and the senses of perception are the vehicles for the transition of the experience into art especially in live performances. I keep and express my actual feelings & ideas in its purest form without using too much Intellect to avoid banality which is the most painful and hard to handle for me; be it art, be it life itself.

청춘의 사체
설명: 나는 결혼으로 상징화된 침실에 신부 복장으로 등장한다. 약 천 송이의 붉은 장미를 칼로 잘게 썬다. 이 퍼포먼스는 기본적으로 인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동 결혼에 대한 풍자를 다루는데, 이는 현재 21세기에도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여기에서 신부는 결혼으로 상징화되었으며, 장미는 아직은 성숙하지 않은 젊음으로 비유되었다. 장미를 잘게 써는 행위를 통해, 아동 결혼에 대한 생각을 간접적으로 표현한다.

Dead Bodies of the Youth
Description: I appear in a bridal outfit in a bedroom personified as marriage. I chop around thousand red roses with a knife on a chopping board. This performance is basically a satire on Child Marriage which is still happening in the interiors of India even in 21st century. The Bride here has been personified as marriage and the roses are metaphor for the immature youth. Representing the consequences of Child Marriage by the idea of chopping the roses.

금욕 – 자기 의례 시리즈
설명 : 이 퍼포먼스에서 혀로 그림을 그리는 동안 제약된 움직임은 간접적으로 생식기의 숨겨진 의식을 향해 나타낸다. 혀는 말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써, 생식기와 비교해 볼 때, 인간의 신체 부위 중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기관 중 하나이다. 이 작품은 의식(儀式)적으로 다른 기관을 통해 한 기관의 기능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Abstinence – rituals of self Series
Description : The restricted moves while painting with tongue in this performance indicates towards the hidden ritual of genitals indirectly. Tongue is a more frequently used organ of a human body in comparison to genitals in general, like it's used inevitably all the time for speaking. Here this work represents the function of an organ through another organ in a ritualistic manner.

런던

설명 : City of London' 작품은 펜 대신 바늘을, 잉크 대신 실을 사용하여 제작되었으며, 특히 그 표면은 면직물 조각을 이어서, 그 질감이 그대로 드러나도록 표현되었다. 런던이라는 도시는 다양한 문화의 수용력과 정체성에 대해서는 그 어느 도시와도 비할 데가 없는 아주 경이로우면서도 중독적이며, 또한 전세계적으로도 가장 매력적인 도시라고 생각되는 곳이다. 이 작품은 이례적이게도, 런던이라는 도시의 물질주의적인 면을 보여주면서도,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아름다운 복합 구조물, 독창적 인공물, 예측 불가능성, 그리고 존재의 무상함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특히나 런던 시민들의 후각을 만족시켜 그러한 기억을 오랫동안 간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독적일만큼 사차원성(알코올 냄새)을 추구하고 있다.

City of London

Description: Using needle as my pen, the colorful threads as the ink, joined pieces of self-textured pieces of cotton fabric as the surface for my drawing of the 'City of London' - a city, which I find highly phenomenal, mesmerizing, addictive, seductive, an international hotspot with incomparable absorbency and full of hybrid identities. The anomalousness of this drawing itself represents the city's extraordinary materiality, ever changing beautiful complex structure, its original-artificiality, unpredictability, transiency of existences and simultaneously intensified sensuousness through the addition of the fourth dimension (thesmell of alcohol) to the piece, trying to satisfy the olfactory sense of the locals.

방정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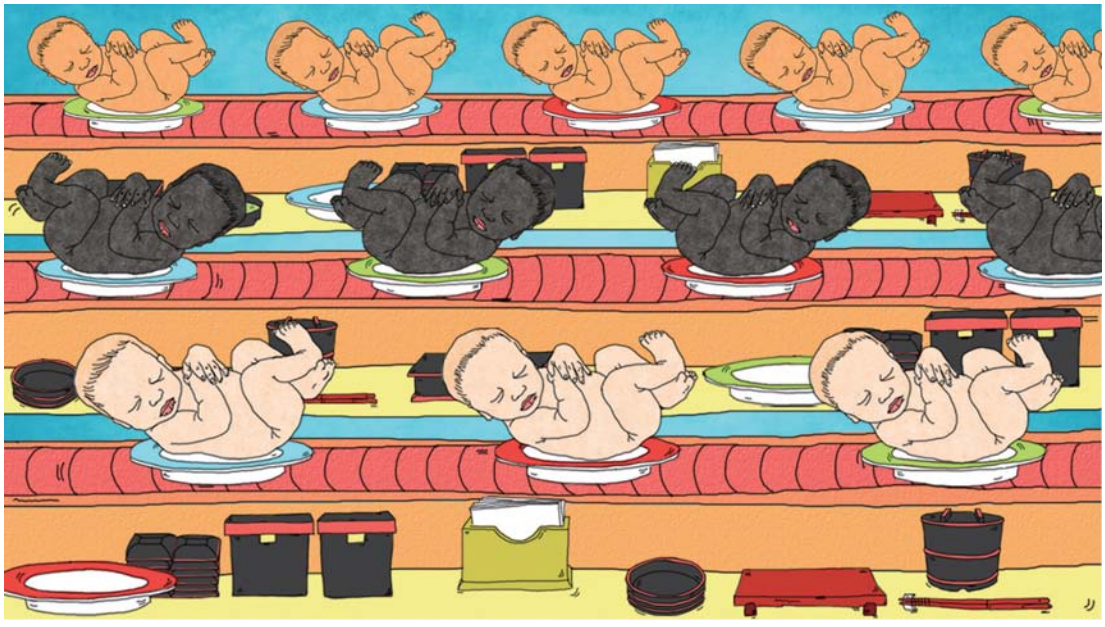
Jungho Bang

Products, hum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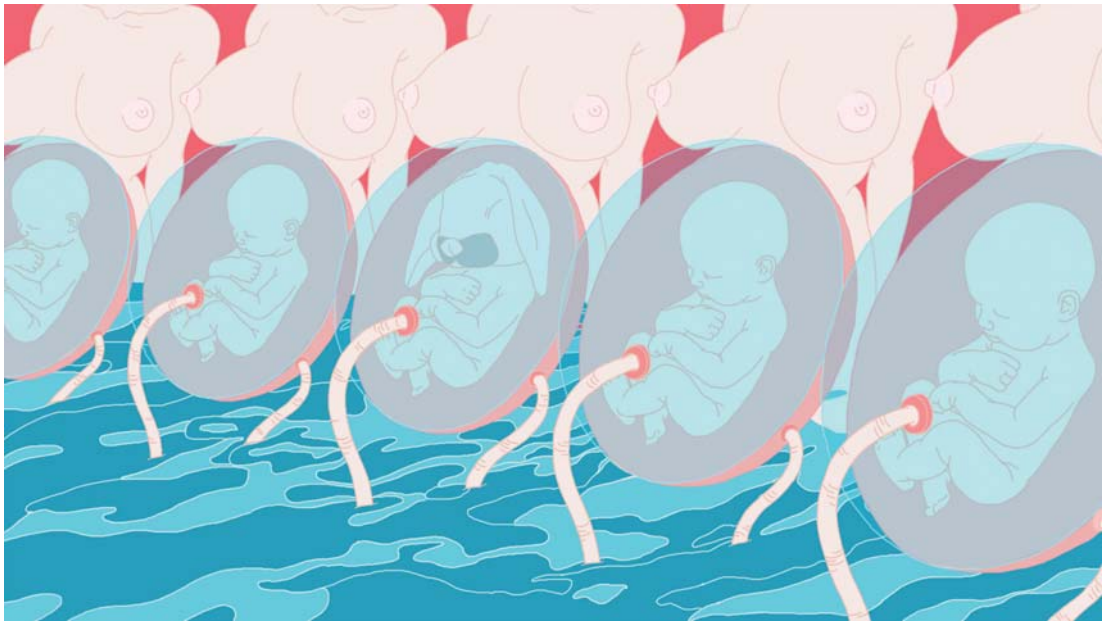
거대 영장류 중의 하나인 인간은 '진화'라는 본능을 가지고 과학을 발전시키며 지적인 설계로 자연적 선택을 대체하고 있다. 더 진화된 생명체가 되기 위하여 지적인 설계를 하며 '진화과정'에서의 인간의 잔인성과 변태성을 〈Human〉에서 표현한다.
〈Products〉는 세계적으로 큰 문제인 '아기공장'과 '동물학대'에 대한 애니메이션이다. 나이지리아에서 십대들이 아기공장에 갇혀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고 아기를 낳는다. 이러한 아기들은 많은 나라에 있는 아기가 없는 부부들에게 입양되고, 또는 아기의 장기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로 팔려 나간다.
동시에 이 작품은 동물학대의 문제도 다루고 있는데, 품종이 좋고 인기가 있는 개들은 우리에 갇혀 임신과 출산만을 반복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Products, human

Humans as one of great primates have developed science with instinct of 'evolution' and replaced natural selection with intellectual design. They perform intellectual design to be more evolving creature, so I have expressed cruelty and metamorphosis in the 'evolving process' in <Human>.
<Products> is animation about baby factory and cruelty to animals becoming global issues. Teenagers in Nigeria are confined in baby factory for an unwanted pregnancy and they give birth to their babies. The babies are adopted to couples without babies in many other countries and sold to people who need organs of the babies. The work also deals with matters of cruelty to animals, which shows popular dogs in good breed are caged and keep to be forced to repeat pregnancy and delivery.



Products
2D Animation, 1080p, 4' 42", 2014



Human
2D Animation, 1080p, 5' 00", 2017

시프트 패러다임 Shift Paradigm 대구문화예술회관 DAC 특별기획 전시상영, 2016

대왕오징어
순지에 먹
130.5×194cm
2016

대왕해파리
순지에 먹
130.5×194cm
2016

인정하기 싫지만 인간은 오래전부터 자신들에게 등급을 나누었다. 지적사회에서 인간들이 나누는 등급이란 인간을 제외한 모든 생물체가 가지는 서열등급과는 차이가 있다. 생물체의 서열은 오로지 신체적인 힘으로 나눠지는 원시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반면에 인간은 지적수준, 경제적 능력, 그들이 가지는 권위 등이 서열의 기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불행히도 이러한 기준들 중에 권력(힘)이라는 원시적인 방법이 인간의 수준과 등급을 나누는 기준으로 인식되고 있다. 인간이 원하는 권력이란 권력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본능적인 성격이다. 종들과의 서열 그 종들 속에서의 서열.

I do not want to admit it but it is true that humans have classified themselves into different classes. The class we use for dividing ourselves in intellectual society is different from the ranking-based class of all the creatures except human. The ranking of the creatures is measured through applying primitive methods only classified by physical strength. On the other hand, when it comes to human, the standards of ranking include intellectual level, financial power, and authorities. However, power among those standards, one of the primitive methods, has unfortunately been recognized as the criteria to divide levels and classes of human. The power we want to have is one of instinctive natures possessed by not only men in power but all the human. Ranking with species and ranking in the species.

작품 '대왕시리즈' 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원시적인 본능중 하나인 권력(힘)을 하나의 존재들로써 생기 있고 아름답게 표현한다. 그것이 권력을 지향하는 인간의 본능을 상징적으로 들어낸다

The work of 'Giant- Series' lively and gorgeously expresses power, one of primitive instincts owned by human as one of existences. It symbolically reveals the instincts of human pursuing power.

성태향

Taehyang Seong

‘Lump’ 시리즈

한국사회의 과도한 승자독식 문화가 전근대적인 계층의식과 만나 기득권자, 즉 ‘갑(甲)’의 횡포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그런 물질적 불균형이 인격적 불균형으로 이어지는 현대사회의 비극적인 상황을 오브제의 이질적인 조합으로 드러나지 않는 묘한 관계 속 문제들의 실체를 표현하고자 한다.

Lump 시리즈 중, 〈Lump-Handcart〉(2016) 작업의 닭장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량생산을 위한 억압의 대표적인 장치로 이용된다. 작업 속 닭장에는 구겨지고 서로에게 밀려 밖으로 터져나오는 스타킹오브제들이 가득 차있다. 스타킹오브제는 한정된 공간 안에서 서로 먼저 빠져나가기 위해 발버둥 치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 리어카 안에 높게 쌓아진 닭장들은 현대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제한, 억압되어진 우리들의 모습들이 뒤엉켜 있는 거대한 덩어리로 보여 진다.

모니터가 들어있는 대형 닭장 설치 〈Lump-#2〉(2016)에서 관객은 주변을 살피며 닭장 안으로 들어오는 자신의 모습을 모니터로 마주하게 된다. 닭장 전체가 보이도록 설치된 CCTV는 모니터를 통하여 감금된 관객의 모습을 깨닫게 해준다. 이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또 다른 구조에 대하여 생각하게 한다.

최근작 〈먹이 제공터_Vulture Restaurant〉(2017) 연작에서는 먹이를 제공받는 독수리 또는 비둘기가 등장한다. 독수리 앞에는 제공받는 입장의 취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오로지 제공하는 자의 판단과 결정으로 먹이 제공터는 젤리로 채워진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먹이 제공터에서 일어나는 이질적인 상황들을 통하여 사회 속에 만연되어 있는 갑을 관계, 모순된 상하구조와 같이 보이지 않는 관계의 실체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한다.

‘Lump’ series

The tyranny of people in power tripping, vested interests occurs in Korean society by combining the excessive winner-takes-all culture with outdated class. I try to express the truth of matters in relations unrevealed by heterogeneously combining objet of tragic situations in modern society where material unbalance leads to personal unbalance.

The henhouse in <Lump-Handcart> (2016) out of Lump series is used as a representative repression tool of mass-production in a capitalistic society. There is stocking objet in the work filling the henhouse, crumpled and burst into the outside by being pushed each other. The stocking objet might be our figures kicking out to get out of limited space. The henhouses piled high in the handcart are reflected as huge lump as if our suppressed figures are entangled, invisible in modern society.

The audience face their own figures through monitor, entering into the henhouse by looking around in <Lump-#2> (2016), installation of large-scale henhouse with built-in monitor. The surveillance camera installed able to see the entire henhouse helps the audience realize they are confined through monitor. This gives a thought about other structures invisible but existing.

In the recent work of <Vulture Restaurant> (2017), the series, eagles or doves provided with feed appear. The feeing place is filled with jelly only based on judgment and decision of the provider without considering taste of the eagles offered with feed. I try to bring about the relations of people in power and those who are not, prevalent in our society, and invisible truth of relationships like contradict structure between subordinates and superiors through heterogeneous situations happening in the feeding place artificially created.

Lump-Handcart, Stocking, Cotton, Wire mesh, Wood, Variable Size, 2016

Lump-#2, 원채널모니터, CCTV, 각목, 철망, Variable Size, 2016

성태향은 최근작 먹이 제공터_Vulture Restaurant(2017) 연작에서는 먹이를 제공받는 독수리 또는 비둘기가 등장한다.
독수리 앞에는 제공받는 입장의 취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오로지 제공하는 자의 판단과 결정으로 먹이 제공터는 젤리로 채워진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먹이 제공터에서 일어나는 이질적인 상황들을 통하여 사회 속에 만연되어 있는 갑을관계, 모순된 상하구조와 같이 보이지 않는 관계의 실체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한다

In the recent work of <Vulture Restaurant> (2017), the series, eagles or doves provided with feed appear. The feeing place is filled with jelly only based on judgment and decision of the provider without considering taste of the eagles offered with feed. I try to bring about the relations of people in power and those who are not, prevalent in our society, and invisible truth of relationships like contradict structure between through heterogeneous situations happening in the feeding place artificially created.

Lump-#1
Stocking, Cotton, Wire mesh, Wood
Variable Size, 2016

먹이 제공터-Vulture Restaurant
Expanded Polystyrene, Feather, Sculpey, Acrylic Eyes, Gel wax, Wire, Wood, variable size, 2017

심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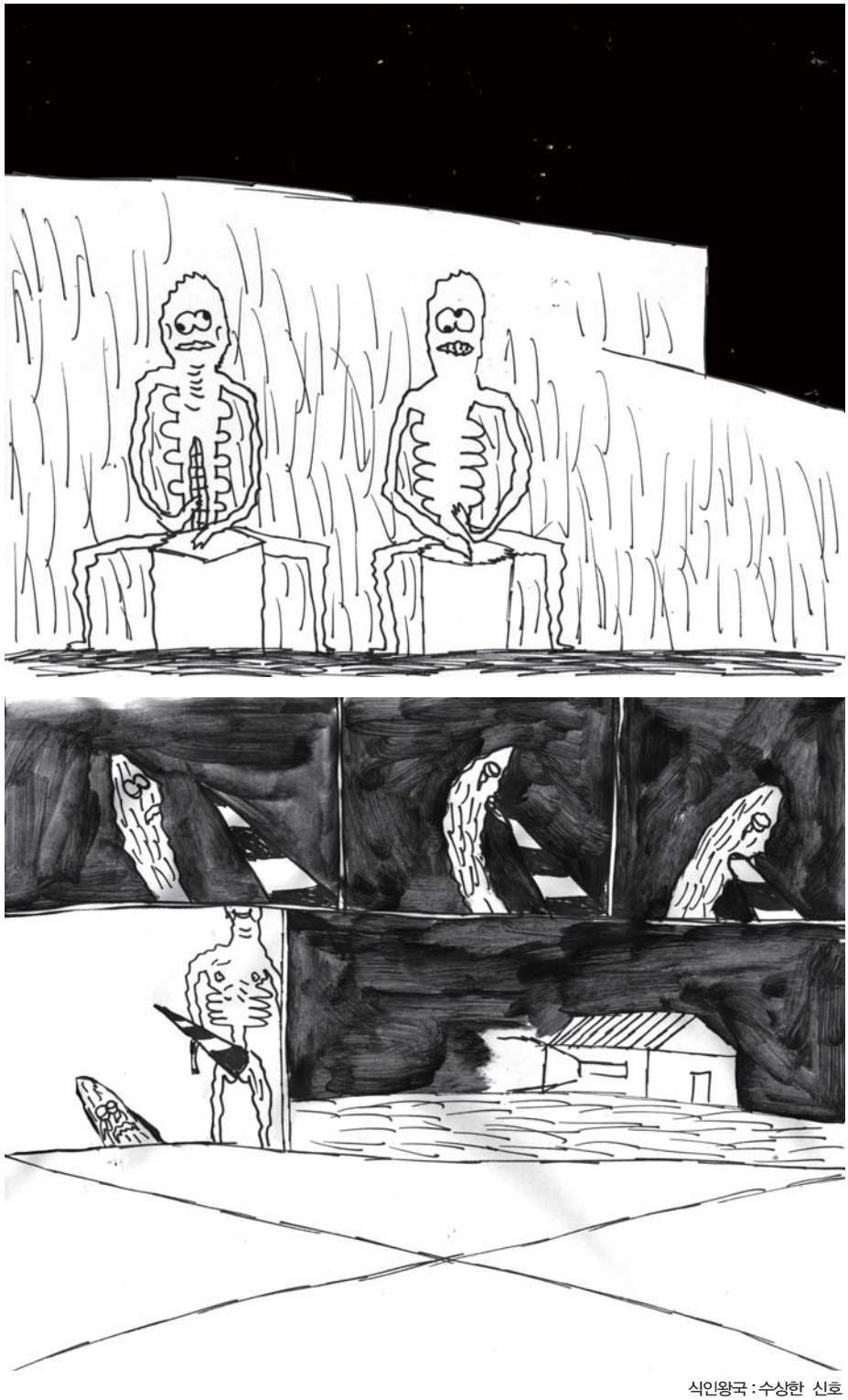
Raejung Sim

식인왕국 : 수상한 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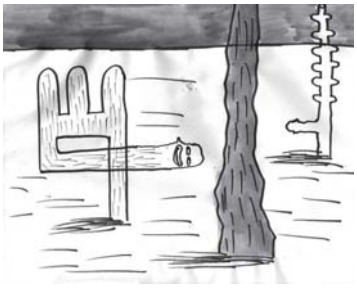
연쇄살인에 대해 조사하던 중 식인 행위를 하는 연쇄살인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다. 그들은 대부분 유년시절을 불행히 보냈으며 어머니에게 사랑 받고자 하는 욕구의 결핍을 여성을 살인함으로써 해소하고자 했다. 살해 후 인육을 먹는 식인행위는 희생자의 사신을 숨기기 위해서, 또는 희생자의 몸과 마음을 소유하기 위함이었다. 인간은 여러 관계 속에서 존재를 증명하려 한다. 하지만 그것이 좌절되었을 때 상대를 어떠한 방법으로든 파괴하려는 본능을 가진다. 그것이 식인 행위와 다름없다고 보았다. 인간은 비인간적 행위로 생존, 즉 자신의 삶을 유지하려 한다. 식인을 하는 행위는 사실 비인간적 행위가 아니라 어쩌면 생존하기 위한 인간의 본질이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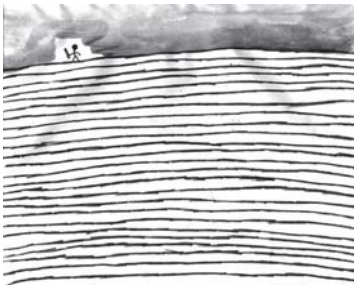
Suspicious Signa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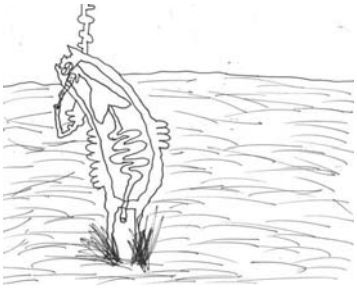
I have happened to hear serial killers with man-eating while investigating serial murders. They spent most of their childhood miserably, so they tried to resolve the deficiency of their desire to be loved by their mother through murdering women. Man-eating act was to hide the body of victim or possess their body and heart. Humans try to prove their existence in various relationships. However, when they are discouraged, they start to show an instinct of destroying their counterparts. I have considered it just as man-eating act. Humans want to keep their lives, in other words, survival in an inhumane manner. Can man-eating act actually not be an inhumane act but an instinct of humans to survi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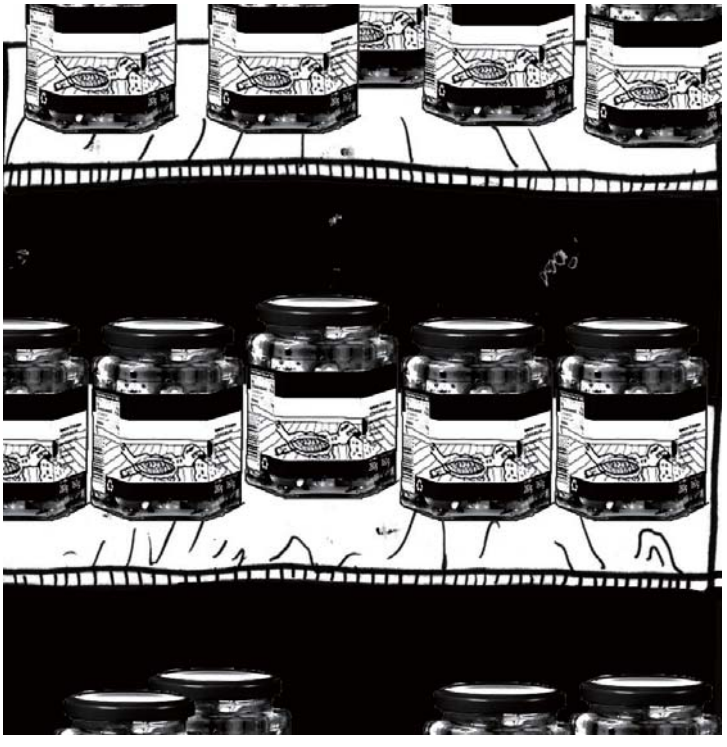


식인왕국 : 수상한 신호
핸드드로잉애니메이션, 2채널 비디오 프로젝션, 서라운드, B&W, 반복재생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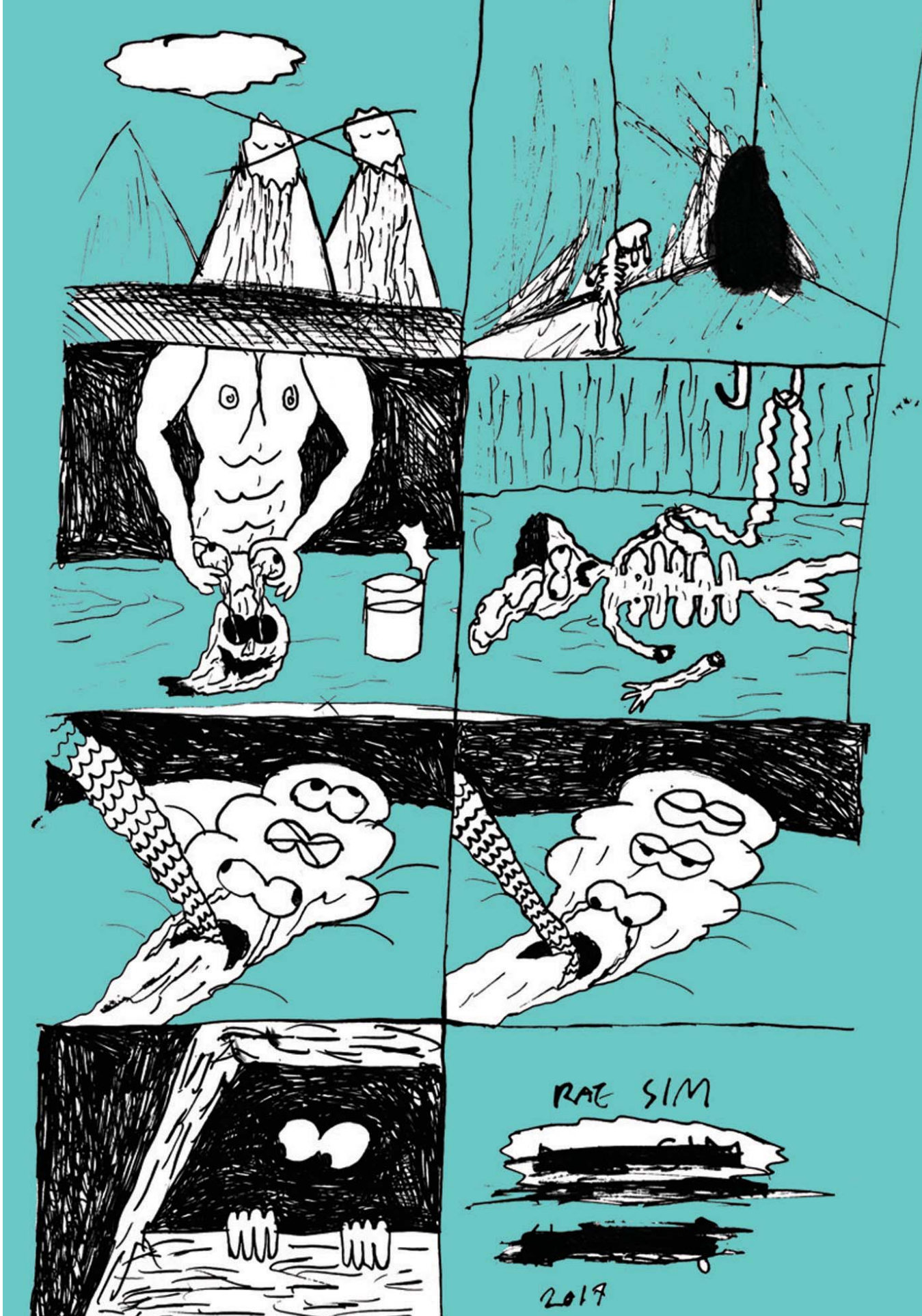








식인왕국 : 수상한 신호
핸드드로잉애니메이션, 2채널 비디오 프로젝션 서라운드, B&W, 반복재생 2016


RAE SIM
2019

안정주

Jungju An

무궁화

안정주는 영상, 사진, 사운드 등 다양한 미디어 작업을 통해, 사회와 제도 그리고 점차 무감각해지면서 간과하기 쉬운 현실에 주목해왔다. 익숙한 외관을 전혀 다른 감각들로 해체하고 재구성하여,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그의 작업은 익숙한 것을 낯설게 인식시키는 과정에서 현실을 재발견하도록 작용한다.

그의 작품 '무궁화(Rose of Sharon)'는 당연한 것, 유익한 것, 평화로운 것, 아름다운 것 등이 엉성한 틀 안에 기괴한 모습으로 담겨있다. 오랜 시간 나름대로 자리를 잡아 그 형태로 견고하다. 내가 견고하게 자리 잡은 그것에 의문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오래되지 않은 일이다. 어떤 프레임으로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 세상은 달라 보인다. 선거 캠페인에 등장하는, 모두가 알고 있는 상투적인 약속,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미문여구(美文麗句)는 더 이상 국민에게 어떠한 감응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바람에 나부끼는 태극기를 우러러보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느끼는 경건함, 웅장함, 아름다움, 굳건함 같은 감정은 어디서 어떻게 발생하는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작업은 당위적으로 받아들여진 것들이 일상 속에서 얼마나 엉성하고 왜곡된 모습으로 담겨 있는가에 프레임을 맞춘다.

Rose of Sharon

Jeong-Ju An has concentrated on society, institution and reality able to be easily overlooked as becoming insensible through images, photos and sound. The works disassembling and restructuring familiar appearances into completely different senses, and building new orders help re-discover reality in the process of recognizing familiar things in a unfamiliar way.

The work of 'Rose of Sharon' contains being natural, useful, peaceful and beautiful as eccentric figures in its flimsy frame. It has been placed firmly for a long time, so it is solid as it is shaped. It is not so long ago that I started raising questions on the things tightly placed. The world looks different depending on what frame is used to see the world. The clich_d promises known to everyone and flowery words of making a better world appearing on election campaigns no longer arouse inspiration to the public. It is difficult to make sure where and how emotions including piety, grandeur, beauty and firmness we feel as Koreans looking up the national flag of Korea flapping in the wind are generated. The work puts a frame into what things accepted without questions appear flimsy and in a distorted way.

Rose of Sharon, 2012

무궁화
서예, 족자, 35×200cm(5pcs), 2012

안정주 작가는 비디오 미디어를 통해 사회적 변주를 시도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사회의 모습을 비디오에 담고 그것을 편집하여 작업을 만드는 방법은 타 장르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는 흔히 영화에서 다루는 이야기를 이끄는 방식이 아닌, 비디오 매체가 가진 물리적인 형질에서 오는 특성을 이용한 매체의 형식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한다는 점에 그 차이가 있다.
작업 방식은 비디오가 가지고 있는 속성인 이미지와 사운드를 이용하여 시각적인 음악을 만드는 것에서 시작되는데, 촬영을 통해 채집한 이미지는 작은 단위로 분리되어 하나의 시각적 음원이 된다. 개개의 음원들은 특정한 공간적 상황과 관련이 있으며, 그 음향들은 특정한 정황을 대변하는 물리적이고, 문화적이며, 심리적인 표식으로서의 기능을 꾀하게 된다.

Jeong-Ju An, the artist has performed works based on social variation through video media. The way videotaping and editing features of society appears different from that in other genres. It actively applies forms of media by using features of physical traits of video media rather than the method of narrating stories usually done in the movie.
The method of works starts from making visual music through applying image and sound, characters of video, and the image collected through videotaping becomes part of visual music by being separated as a small unit. Each sound source is related to particular spatial situations and the sources function as physical, cultural and psychological signs representing specific circumstances.

All for One, One for All, 2013
7' 29", Synced two channel video, Stereo sounad, color

Marching 행진, 2015
2' 20" Loop, Five channel video Stereo sound, Color

Ten Single Shots 열번의 총성, 2013
8'56" Loop, Synced six channel video Stereo sound, Black and white

Concerto for Saw and Drum 톱과 드럼을 위한 협주곡, 2015
10' 05", Synced two channel video Stereo sound, Color

〈All for one, One for all〉(2013)은 단체 줄넘기를 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기록한 이 작품은 전체의 움직임을 담은 영상과 부분을 클로즈업한 영상으로 구성된 2채널 비디오 형식이다. 목소리와 행동을 하나로 맞춰야 목표로 세운 줄넘기 개수를 성공할 수 있는 게임인 단체 줄넘기는, 놀이와 제식훈련의 중간 정도에 위치한다. 〈All for one, One for all〉(2013)은 구조화된 통념이나 전체에 대한 헌신을 두 채널의 비교를 통해 역설적인 상황으로 뒤바꾼다.

<All for one, One for all> (2013) recording students playing the group rope jumping is made based on two-channel video by showing the entire movement and zooming in on some parts. The group rope jumping based on completing the number of rope jumping, its target, by matching voices and motions is a kind of game mixing play and close-order drill. <All for one, One for all> (2013) is about altering structured common ideas or devotion to the whole into paradoxical situations through comparing two channels.

〈행진〉 (2015)은 전시장 곳곳에 산발적으로 놓인 기둥과 기둥들에 걸린 스크린에 투사되는 다섯 개의 영상 채널로 구성된 작품이다. 영상에 등장하는 것은 숲 속을 걸어가는 군악대의 행진이다. 각각의 채널에서는 같은 곡을 연주하면서 일관된 흐름을 만들지만, 밴드의 동선과 연주의 구성이 내외부의 다양한 요소의 개입으로 조금씩 달라진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만들어지는 숨어있는 리듬과 미세한 변화에 주목하고, 소리와 이미지의 비정형적인 조화의 변주를 통해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간다.

<Marching> (2015) is the work consisting of five image channels projected to the screen hanging between pillars and pillars sporadically furnished in the exhibition hall. The thing appearing on the image is the march of military band walking in the wood. Individual channel creates consistent flow by playing the same tune, but the flow of the band and composition of the performance appear different by intervention of various interior and exterior factors. New meaning is created through focusing on hidden rhythm made in repeated daily life and delicate variation, and playing a variation of atypical harmony of sound and image.

〈열 번의 총성〉 (2013)은 새로운 법칙 아래 진행되는 게임에서 출발한 작업이다. 전시장의 벽면을 가득 채운 여섯 개의 흑백 스크린에는 각기 한 명의 인물이 등장한다. 무용수들은 자신이 연기할 동작을 만들어 카메라 앞에서 총소리가 들릴 때마다 동일한 안무를 반복하였다. 이렇게 진행된 열 번의 테이크에서 일부분만을 선택하여 하나로 편집한 완성본을 제작하였다. 시간을 느리게 조작한 〈열 번의 총성〉에서 이 작품을 이끌어가는 중심축은 폭탄이 폭발하는 소리처럼 길게 늘어져서 들리는 총성의 사운드이다. 총성의 사운드들은 한국 전쟁을 그리는 영화들에서 수집된 것이다. 총소리는 배우의 연기를 촉발하는 신호이면서 한 테이크의 시작과 끝을 의미하는 단위이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극적인 긴장감을 배가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The work of <Ten Single Shots> (2013) started from a game played under new rules. Each character from six black and white screens filling the wall of the exhibition hall appears. Dancers repeated same choreography by creating motions whenever they heard gunshot in front of the camera. The completed one is produced by selecting and editing some part of ten takes. The center of this work in <Ten Single Shots>made by operating time slowly is the sound of gunshot getting slower heard just like the sound of a bomb explosion. The sounds of gunshots were collected from movies dealing with the Korean War. The sound plays as a signal of making players perform and a unit of start and end of one take as well as doubles dramatic tension entirely.

〈톱과 드럼을 위한 협주곡〉 (2015)은 2채널로 이루어진 영상작품이다. 왼쪽 화면에는 나무 토막에 톱질을 하는 사람이, 오른쪽 화면에서는 드럼을 치는 사람이 등장한다. 톱 연주자는 전기톱으로 통나무를 깎아 나가면서 굉음과 함께 무수한 나무 파편들을 만들며 둔탁하게 하프의 형상을 조각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드럼 연주자의 연주가 동시에 진행되고, 연주자의 감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고조되고 결국에는 드럼을 부수는 행위로 마무리된다. 이 작품은 현실 속의 다른 의지를 가진 두 연주자의 행위와 감정, 음악적 요소와 비음악적 요소를 적절하게 조율하면서 독특한 협주곡을 만든다.

<Concerto for Saw and Drum> (2015) is video work consisting of two channels. On the left side of the screen, a person sawing pieces of wood appears, and on the right side, a person playing the drums does. The saw player carves a shape of a harp by cutting log with an electric saw and making countless wood chips with an explosive roar. On the other hand, the drummer plays the drums simultaneously, and as time goes on, it ends up with breaking the drums. This work creates particular concerto by properly tuning behaviors, emotions, musical factors, and non-musical factors of two players with different kinds of will in reality.

안효찬

Hyochan Ahn

우리 안의 우리

나는 특정한 주제에 맞춰서 작업을 생산하기 보다는 작가라는 존재로 살아가면서 내가 경험하고 반응하는 지점들을 조각과 설치라는 형식을 통해 작업으로 풀어낸다. 스스로 독백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향보다는 관객들과의 대화, 호흡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리안의 우리' 라는 작업은 돼지라는 형태를 지지대 삼아, 무엇인가를 짓고 있는 건설 현장, 그리고 그안에 구성요소를 담당하는 오브제들이 표현되어 있다. 인간과 자연사이 에서의 본질과, 탐욕과 욕망, 그리고 내가 바라본 세상은 이처럼 굉장히 모순된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러한 것들을 직설적으로 드러내기 보다는 은유적으로 동물에 빗대어 표현했다. 많은 동물들 중에서도 돼지라는 소재가 그 부분에 적합한 소재라 판단되어 작업에 적용되었다. 돼지와 함께 대칭을 이루고 있는, 짓고 자르고 재단하고 부수는 일련의 모든 관정들은 내가 바라본 혹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인간사회를 표현하고 있다. 두 가지 요소가 하나의 조각 구조를 이루면서 사회의 또 다른 이면 혹은 모순들을 역설적으로 드러내고자 했다.

Us in a pigsty

<Us in a pigsty> expresses objet functioning as construction sites where something is built by using shape of 'pig' as its supporter and components inside. There were essence and greed, and many absurd matters which is the way I have watched to the world. I tried to express them fabricated to animals metaphorically rather than revealing them directly. The entire process of building, chopping and cutting symmetric to the shapes of the pig presents human society I have observed or not been completed yet. By forming two components as one structure, I try to disclose dark side or absurdity of society paradoxically.

우리안의 우리, 혼합재료, 50×70×80cm, 2016

우리안의 우리, 가변설치, 혼합재료, 2016

우리안의 우리, 가변설치, 혼합재료, 2016

▲▶**우리안의 우리**, 혼합재료, 132×61×41cm, 2016

Remembrance
glasses, object, 가변설치, 2015

Remembrance

안효찬은 수집된 것들을 마치 사진이나 타임캡슐처럼 시간을 동결시킨다. 병들은 임의적으로 보일만큼의 잡다한 사물들에 공통의 문법을 제공한다. 부패와 부식을 막기 위한 밀봉처리, 그리고 자신만의 규칙으로 배열되어 있는 나름의 질서 감각은 전형적인 수집의 방식이다. 수집벽은 세상의 무질서와 임의성에 대항하여 자신만의 질서를 관철시킨다. 수집과 분류는 골동품적인 취향을 넘어서 과학에도 관철된다.

가령 안효찬의 작품에서 무엇인가를 담는 용기(容器)는 중성적이지는 않다. 이 용기들은 내용물보다 좀 더 안정적이고 일관적이며 투명하지만, 그 역시 그 안의 사물 같은 상대성 을 가진다. 질서는 시스템에 의해 가능하다. 중국의 레지던시에서의 작업을 비롯하여 요즘 몰두하고 있는 설치작품에서 그는 특정 시스템이 낳는 질서를 전면화한다. 투명 용기에 담긴 수집품들에 체계의 문제는 암시적이었던 반면, 요즘의 작품은 명시적이다. 수집이 사물에 대한 명명과 배열을 통해 지배의 욕망을 드러낸다면, 요즘 작품에는 지배에 방점이 찍혀있다.

(이선영 평론가 글 中)

Hyo-Chan An freezes time of things collected just like photos or time capsule. Bottles give common rules of grammar to miscellaneous things as they might seem arbitrary. Sealing to prevent decomposition and corrosion, and its own sense of ordering arranged based on its own rule are the typical collection way. Collectomania carries its own order towards chaos and arbitrariness of the world. Collection and classification are also stuck in science beyond antique-like taste.

Suppose containers of the works of Hyo-Chan An, putting something in are not neutral. The containers are more stable, consistent, and transparent than its contents, but they also have relativity just like the contents in it. Order can be formed by a system. Installation-based works including works being carried out in residency, China, which I have currently immersed myself in, are dealt with revealing orders derived from certain systems. While the structures of collection on the transparent containers are implicit, that of the recent works is explicit. The collection appears with its desire for domination through naming and arrangement of things, whereas the latest works focus on domination

(extracted from critique by Seon-Yeong Lee, a critic)

안드레이 케친

Andrey Kezzyn | Russia

넷

나의 사진기법은 단순하며 관람객들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복잡한 상징이나 정교한 조명은 존재하지 않는다. 색상은 흰색 배경에 흰색을, 검은색 배경에 검은색을 사용하는 등, 마치 사진기법 매뉴얼인양, 단색조를 사용한다. 나는 그것들이 명확하고 복잡하지 않기를 원했다. 따로 떼어놓으면 그것은 단지 다채로운 물체들일 뿐이다. 서로 바로 옆에 두었을 때만, 그것들은 자체의 위협적인 리듬과 반복성으로 넘치기 시작한다. 마치 다가오는 재앙 전 얼어붙은 것처럼 라이더들은 정적이다.
그들의 눈은 차갑고 무관심하다. 그들의 눈에는 분노가 들어있지 않으며, 단지 평상시 모습 그대로이다. 관람객은 뒤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은 볼 수가 없다. 그들은 단지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질병, 전쟁, 배고픔, 죽음 –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가져온 것이다. 하나의 정경에 있는 세 인물은 삼각형을 형성한다. 4개의 정경 모두에 있는 인물은 모두 12명이다. 그들은 시간과 공간을 포용한다. 그들은 종말을 가져온다. 그들은 신세계의 시작을 선언한다. 그 세계는 새로운 신들과 새로운 사람들이 살 곳이다. 그들의 말은 맹세를 깨트리지 않고, 그들의 마음은 부패하지 않으며, 그들의 행위는 가장 인간적이다.

The Four

My photography is simple and maximally approachable by the viewer. Neither complex symbols, nor sophisticated light is present here. The colour is very monochromatic as if from a photographic manual on how to shoot white on the white background, black on the black background, etc. I wanted them to be like that, clear and straightforward. Taken separately, they are just colourful objects. And only put together next to each other, they start pulsing with their own threatening rhythm and repeatability. The riders are static, as if frozen numb before a coming catastrophe. Their eyes are cold and indifferent. They have no anger in them, they are just what they are. The viewer can not see the faces of the people behind because they are supposed to serve like a mirror. This is what we bring into the world: illnesses, wars, hunger and death. Three figures in one tableau form a triangle; all the figures in all the four tableaus number twelve. They embrace time and space. They bring the end. They proclaim the beginning of a new world; the world where the new gods and the new people will live. The ones whose words will not be oath-breaking, whose hearts will not be corrupted and whose deeds will be most human.

Pale Rider:Death, Dibond,110×137.5cm,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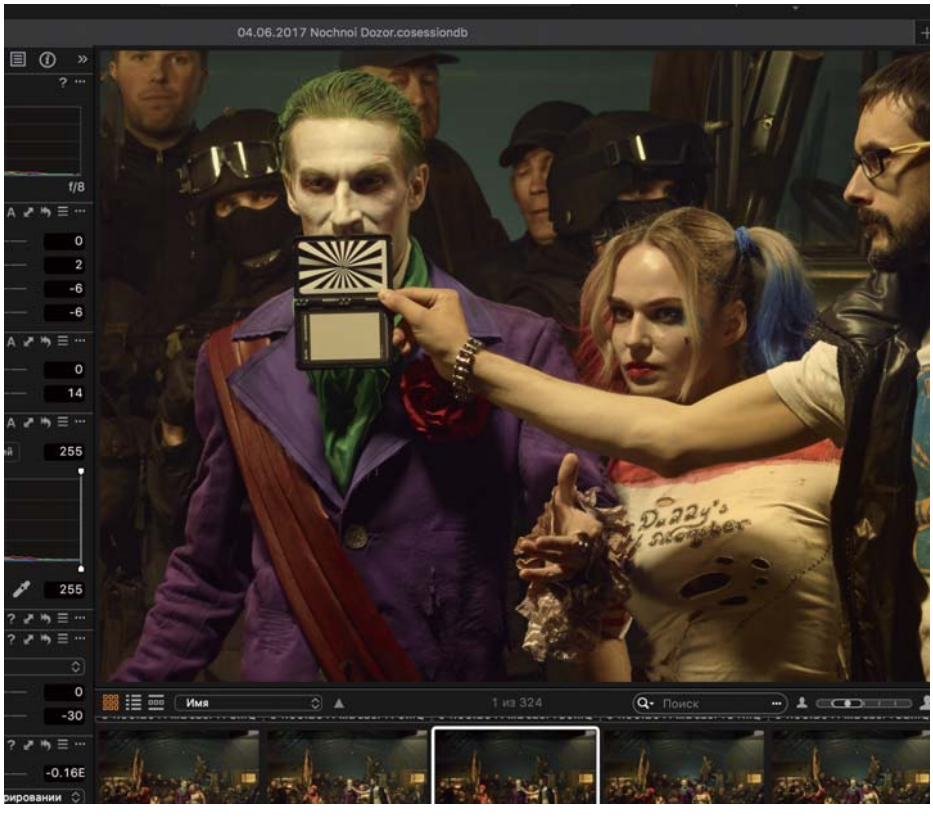
White Rider:Pestilence, Dibond, 110×137.5cm, 2012

Red Rider:War, Dibond, 110×137.5cm, 2012

Black Rider:Famine, Dibond, 110×137.5cm, 2012

Kezzyn Waits(케친 웨이츠)로도 알려진 Andrey Kezzyn(안드레이 케친)은 현재까지 거의 10년 동안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그는 무대에 올려진 연극과 같이 연출하는 연극화 사진기법에 몰두해왔다. 모델은 배우이며, 공연에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촬영장소는 무대이며 그 무대 위에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사진작가는 연출가이며 그는 이미 줄거리의 극적 전개 중 어느 것이 사진으로 변환될 가치가 있는지를 알고 있다.
Kezzyn(케친)의 작품은 결코 만들어진 적이 없는 영화 장면이나 생산된 적 없는 그림을 닮아있다. 풍자적, 감정적이고 도발적이며 강렬한 그 작품들은 관람객에게 천명하며 이 때 관람객의 역할은 수동적 방관자로 관찰만 하는 것은 아니다. 관람객의 역할은 그 안에 들어가서 그것에 대해 심사숙고하며 등장인물들과 협력하는 것이다. 관람객의 역할은 복잡하고, 놀랍고도 비극적인 순간으로 가득 찬 이야기 속으로 예리하게 빠져드는 것이다. 그 이야기는 사진작가가 그들에게 보여주기로 결정한 것의 분할된 초 단위의 파편이다.

Andrey Kezzyn, also known as Kezzyn Waits, has been doing photography for about ten years so far. Last five years have been devoted to staged theatralising photography, in which the models are the actors, who play their parts in the perfomance, the shooting area is the stage, on which the story is told, and the photographer is the director, who only knows which one of the dramatic twists of the plot is worth turning into a picture.
Kezzin's works resemble of scenes from films which were never made or paitings which would never be produced. Sarcastic, emotional, provocative and vibrant, they address to the viewer and the viewer's part here is not exclusively to observe as a passive onlooker. The viewer's part is to get into it, think it over and co-operate with the characters. The viewer's part is to get keenly involved into the complicated, full of amusing and tragic moments story, the split-second-long fragment of which the photographer has decided to show them.


04.06.2017 Nochnoi Dozor.cosessiondb
f/8
0
2
-6
-6
0
14
255
255
0
-30
-0.16E
Имя
1 из 324
Поиск

이안민지

Minji Leeahn

가치의 가치
THE VALUE OF VALUE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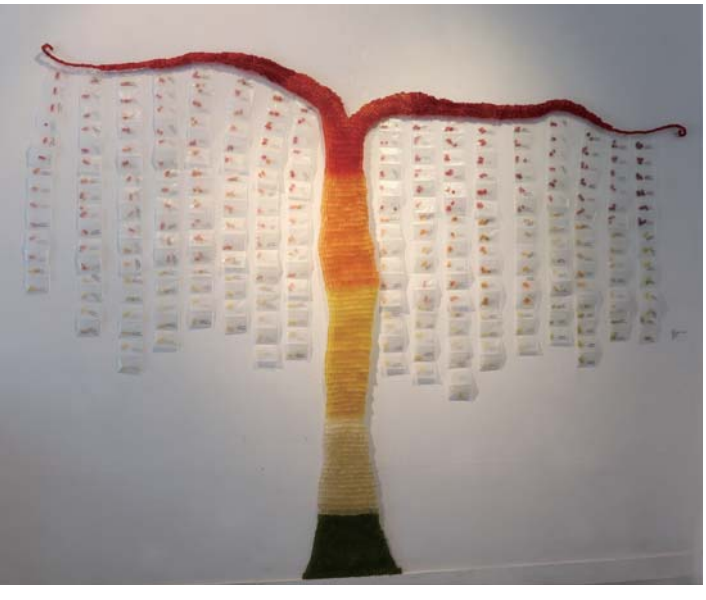
모든 장소에서 다년간 모아온 쓰레기를 약 봉투에 담은 작품이다. 약 봉투는 가치를 담는 그릇, 봉투에 담긴 오브제는 버려진 물건의 내제된 가치를 의미한다. 우리 사회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두지 않는지, 가치의 한계와 효용에 대한 질문을 던져본다.

나은 세상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
THE GIVING TREE IN A BETTER WORLD 2017

작품의 나무는 이타적인 나무로 유명한 셸 실버스타인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모티브로 만들었다. 나무를 구성한 곰젤리는 곰 인형의 정서적 안정과 사랑을 표상하는데, 'TADDY BEAR PROJECT'를 통해 사랑과 나눔의 메타포로 인식되는 곰 인형을 이용해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상징적 가치를 강조하는 의도를 담았다. 나무에 열린 약 봉투 열매는 삶과 세상에 열린 사랑의 결실이며 다시 누군가를 위한 나눔을 의미한다. '대구미혼모가족협회'와 함께한 이번 작업은 자신의 삶을 의미하는 회원의 이름, 자녀에 대한 사랑과 바램을 담은 자녀의 이름, 자식의 의미를 담은 자녀의 초상화, 쓸모 없어진 소지품으로 만든 오브제는 새롭게 태어난 소중한 존재를 위한 희생을 상징하며, 미혼모의 딸로 대구에 입양되어 아동학대로 죽은 은비를 위한 선물에 안타까움과 미안한 마음을 담았다. 미혼모들의 희생과 사랑이 아이를 통해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며 나아가 그 아이들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임을 전달하고자 한다. 관람객은 약 봉투를 가져가고 원하는 금액을 미혼모협회에 기부함으로써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눔을 함께 하고자 한다. 이번 작품을 통한 기부는 미비할지라도 에머슨의 시 '성공'처럼 작은 마음과 사소한 실천이 세상에 성공을 가져옴을 전하고자 한다.

There are their own names and names of their children on medicine packets neatly written by single mothers, and objet created through combining portraits of their kids drawn by the mothers, their waste and useless objects, and the last gift for 'Eunbi' from Daegu, who was born by a single mother and died due to child abuse by family adopting her in 2016 is put into the packet. Then, jelly representing sweetness is put into the packet. This is the time they think about their own identity not someone's mothers, desire of mothers when they give names to their children and hope the kids can be raised as they wish, and they newly discover their children in the process of observing and drawing them, and showing interest on them. Moreover, the process of changing things whose values are lost to art works presents how much the single mothers despondent themselves do precious things. The medicine packets having the objet inside are hung on the wood post made of jelly just like leaves. People appreciating the packets give money they are willing to pay and take the packets. The entire profits collected in this exhibition are donated to <Daegu Korean Unwed Mothers' Families Association>. Even though my donation is relatively trivial, I hope I can make another success just like 'Success,' poem of Ralph Waldo Emerson.

가치의 가치 THE VALUE OF VALUE
variable size, mixed media, 2017



나은 세상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
THE GIVING TREE IN A BETTER WORLD
variable size, mixed media, 2017

THE CURE FOR PAIN IS IN THE PAIN
variable size, mixed media, 2010

THE FRUIT OF THE SPIRIT IS LOVE
variable size, paper pill container, jelly, 2017

성 공

랄프 왈도 에머슨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것

현명한 사람들에게는 존경을 받고,
아이들에게는 사랑을 받는 것

정직한 비평가로부터 진가를 인정 받으며,
거짓된 친구들의 배신을 참아내는 것

아름다움의 진가를 알아보는 것
다른 이들에서 최고 좋은 면을 찾아내는 것

아이를 낳아 바르게 잘 기르든,
조그만 정원을 잘 가꾸든,
또는 세상살이를 개선하든
세상을 조금은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당신이 세상에 존재하였음으로 인해,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수월하고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성공하는 것이다.

Success

by Ralph Waldo Emerson

To laugh often and much;

To win the respect of intelligent people
and the affection of children;

To earn the appreciation of honest critics
and endure the betrayal of false friends;

To appreciate beauty;
To find the best in others;

To leave the world a bit better, whether by
a healthy child, a garden patch
or a redeemed social condition;

To know even one life has breathed
easier because you have lived;

This is to have succeeded.

YOU AND ME
TOGETHER LIKE BLUE
variable size
mixed media
2017

UNTITLED ;
HIDDEN STORY
variable size
mixed media
2017

POOR THING
variable size
mixed media
2017

TRY;
RETRY FLY AGAIN
variable size
mixed media
2017

인세인박

Insane Park

포르노 제작을 위한 습작

TV, 뉴스, 영화자막, 컬트무비, 심볼, 엽기, 종교, 사건들, 살인사건들, 인터넷, 패션잡지, MTV, 포르노, AV여배우들, 연예인들, 인터넷 댓글, 정치적 발언, 정치인, 슬랭, 말장난, 그래피티, 광고, 네온사인, 코미디, 속담이나 명언들, 사회적인 것들과 개인적인 것들, 그것들의 관계, 부조리, 냉소적임, 욕설, 더러운 것들, 음모, 금기된 것들, 어두움, 빛과 그림자, 아우라, 범죄자의 얼굴 피해자의 얼굴, 몽타주.... 등등

이미지들

나는 매일 TV나 인터넷 앞에서 이미지들을 본다. 뉴스에 나오는 세기말적인 사건들, 신파적인 삼류 드라마나 컬트영화, 뻔한 카피라이트의 광고, 싸구려 쇼 프로그램이나 저급한 포르노무비 등 이러한 이미지들은 내 머릿속을 둥둥 떠다니며 헤집고 다닌다. 때론 연결될 것 같지 않은 이미지들이 합쳐지기도 하고 광고카피나 쇼 프로그램의 자막, 영화의 명대사들 같은 텍스트들이 전혀 다른 이미지와 뒤섞여 변종이 된 이미지를 만들기도 하고 변종된 이미지들끼리 다시 합쳐져 또 다른 이미지를 만들기도 한다.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이야기하려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어떤 대상도 그것에 대해 확신할 수 없다. 확정 지을 수 없다.

모든 것은 이미지다.
모든 것은 단지 이미지다.
내가 보는 모든 것은 이미지다.
내가 만들어 낸 결과물들은 때때로 사회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거나, 모순적인 체계를 비판하는 이미지로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그것은 내가 보는 이미지의 반영일 뿐 어떠한 의미도 가지고 있지 않다.
내 주변의 세계가 머금고 있는 이미지를 내면으로 흡수하고 내뱉는 것이 내 작업의 목적이자 방식이다.

Making Film : PORN

TV, news, movie subtitles, cult movie, symbol, bizarre, religion, events, murder cases, internet, fashion magazine, MTV, pornography, AV actresses, entertainers, internet replies, political statement, politician, slang, pun, graffiti, advertisement, neon sign, comedy, proverb or well-known saying, social things and personal things, their relations, irrationality, sarcasm, swear word, filthy things, conspiracy, forbidden things, darkness, light and shadow, aura, face of criminal, face of victim, montage etc....

Images

I watch images everyday through TV or internet. Fin-de-sicle accidents on TV, glurge third-rate drama or cult movie, obvious advertisement of copywriter, vulgar show program or low-grade pornographic movie, etc.
These images floated and obtrude upon my mind. Images with different characters are sometimes combined, texts of commercial copy, subtitles of show programs or quotes of movies are mixed with completely different images, which makes varied images, or the modified images are brought together to make other different images. It is uncertain what concept is contained and what subject is going to be told. There are no objects able to convince them. There is nothing able to decide it.

Everything is images.
Everything is simply images.
Everything I see is images.
Outcomes I have finally created sometimes have social messages or been considered as images criticizing contradictory systems.
However, the things I see are just reflection of images but have no certain meaning.
That I internally inhale and exhale images being held by the world around me is the purpose and the way of my works.

mother
love doll, resin, wall painting, neon, silkscreen, single channel video, variable dimension, 2017

solid, soft
dildo, resin, single channel video
variable dimension
2017

인세인박은 주로 미디어를 통해 수집한 이미지와 텍스트를 차용하거나 변용하는 작업을 해왔다. 그가 tv나 인터넷에서 수집한 대중적인 이미지들은 다양한 매체로 출력되고 설치되었는데, 이러한 것들은 네온사인 이미지나 광고판처럼 산업사회의 일상에서부터 부유하는 것들이다.
영상작업 「청춘」은 남녀가 서로의 침을 각자의 입에 뱉어내는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점차 끈적이고 질척한 침이 전달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 작업은 남녀 간의 연애가 지속되는 시간의 감정들을 비유하기도 하고, 타액의 교환이 만들어내는 합일된 물질이 공허한 생리적 활동의 반복으로 보이기도 한다. 두 남녀는 서로 다른 개별적 행위자로서 자기 욕망의 타액을 상대의 몸에 배출하고 그 배출물을 수용하고 있는데, 이 행위는 매우 친밀해 보이지만, 생물학적 유기체의 기계적인 활동처럼 공허하다. 「FEMINIST」는 네온관으로 만들어진 알파벳 'FEMINIST' 사이로 오줌이 순환하는 도발적인 설치 작품으로, 여성으로서의 권리를 표방하면서도 남성 의존적인 일부 여성에 대해 비판적 시선으로 미러링한 작업이다. 페미니스트로 지시되는 여성 주체의 언어는 네온을 따라 흐르는 네온가스 대신 인세인박의 소변으로 대체되어 흐르고 있다.

Insane Park has usually worked on borrowing and transforming images and texts collected from media. The popular images collected through TV or internet have been output and installed in various media, and they usually float in our daily life in the industrial society like images of neon signs or billboards.
「Youth」, image work, describes the process of gradually transferring sticky and soggy saliva by showing a man and a woman spit on each other's mouths repeatedly. This work compares the relationship of the two about feeling of times during their relationship or tells the repetition of empty physiological motion through combined matters produced by exchanging salvia. The two discharge salvia of their own desire to the other's body and accept it as separate actors, which seems to be very intimate but it is empty just like mechanical activity of biological organism. °∏FEMINIST°π, as provocative installation work, showing urine being circulated between 'FEMINIST,' alphabet made of neon tubes, is carried out based on being mirrored for claiming to have women's rights and criticize some women depending on men. The language with the subject of the woman, directed as feminist, flows by being replaced with urine of Insane Park instead of neon gas flowing along the neon.

feminist
Mixed media (glass tube, urine, air-pump, water tank)
34×187cm, 2016

青春
single channel video, 2016

girls do not need a prince
single channel video, loop, 2016

untitled
mixed media, 40×27cm, 2016

장석준

Suk-Joon Jang

도시에 소유된 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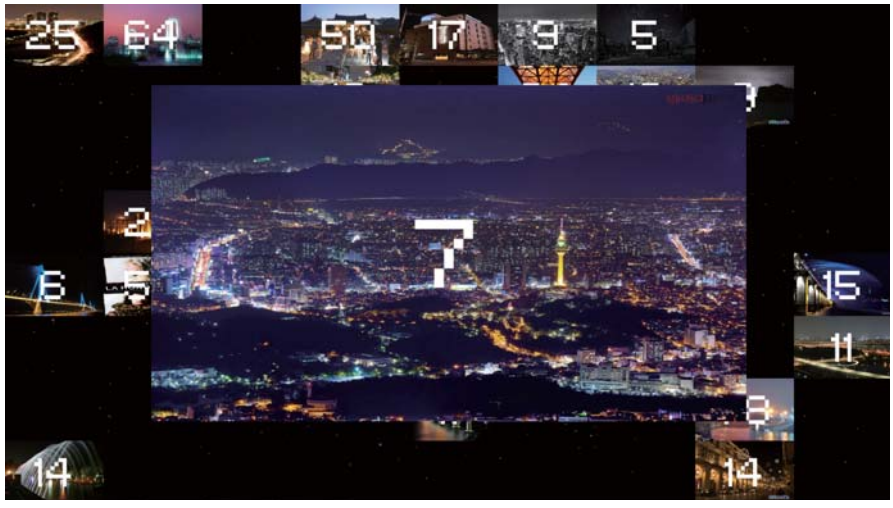
인류 문명 최고의 발명품 중 하나인 인공의 빛, 조명, 그리고 그로 인해 만들어진 저물지 않는 밝은 밤, 그것은 공해인가 문명의 이기(利器)인가.
인간이 빛을 소유하고 유희하기 시작한 이후 인류의 문명은 끊임없이 발전해 왔다. 그러나 그 유한함과 과잉에 대한 두려움 사이의 불안은 우리의 잃어버린 가치들과 함께하는 공존 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도시의 밝은 야경은 천체 관측의 방해, 생태계 교란, 정신적 불안감, 지속적인 에너지 소비 등 다양한 사회환경적 문제들을 야기한다. 밝은 밤은 천체를 관측하여 미래를 예측하고 현재를 인지하던 자연과 인간의 상호 관계를 단절시켰다. 실시간 눈으로 확인하고 인지하며, 미래를 점치거나 현재의 위치를 파악하는 상호적 기능을 가진 능력 또한 우리가 밝은 밤을 제공받는 대신 희생된 가치이다.
이제 인간이 하늘을 바라보며 우주를 상상하던 밤하늘은 온라인 환경의 구글어스(Google earth)로 대체되었으며 현재와 미래를 소통하던 일상의 밤은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인간에게서 더욱 멀어지고 어두워졌다. 포화 상태의 이기(利器)와 함께 살고 있는 현대인들이 그들의 생산물을 통해 지금 이 도시에 남기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도시는 읽고 쓰고 상상하는 사공간적 문맥으로 자연과 매체의 유기적 연결관계를 보여준다. 이러한 유기적 현상은 동시대 주변의 변화를 기록하고 공유하는 사진 매체의 환경에서도 빗대어 볼 수 있다. 지금 디지털 데이터의 무한한 생산은 시각적 정보뿐 아니라 도시의 변화를 실시간 반영한 메타화된 매체이다.
이 매체는 미디어와 현실의 관계를 형성하여 저장된 정보로 현실의 다른 읽기와 관계를 보여준다.
밤의 조명들은 도시의 밤을 감상하고 유희하게 하였다. 사진으로 밝은 밤을 담고, 즐기며 또 다른 소비를 가능하게 한다. 이제 도시의 과잉 되고 왜곡된 풍경은 감상 가능한 도시의 빛이 담긴 이미지로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다. 이번 작업은 현대에 지속적으로 생산되는 사진 데이터를 감상의 이미지가 아닌 데이터의 값으로 번역하는 컨버팅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소비된 밝은 밤을 인지하고자 한다.
온라인에서 '야경' 을 검색한 결과로 수집된 이미지가 컨버팅 프로그램에 입력된 후 가장 밝은 값(RGB256 밝기 값의 125이상 값)이 연산되어 합산된 수가 프로그램에 누적된다. 그리고 연산에 사용된 이미지는 다시 픽셀이 되어 화면에 빛의 점으로 축적되어 간다. 가상의 빛으로 합해진 수치는 우리들의 잃어버린 밤을 되찾아 줄 실용적인 수가 될 수 있을까? 프로그램은 추출된 빛의 값들의 가치 있는 쓰임을 상상하며 작동된다.

Light Possessed by the City

Are artificial light, one of the greatest inventions in human civilization, lighting, and its result of making night never dark pollution or a modern convenience?
Since humans have light and know enjoyment, civilization has continuously been developed. However, anxiety from fear for finiteness and over abundance coexist with our lost values.
Bright city night view in modern society causes multiple social and environmental issues including disturbance of astronomical observation, intervention of ecosystem, mental instability, and sustainable energy consumption. The bright night has disconnected the mutual relations between nature and humans observing celestial body, and helping foreseeing the future and recognizing the present. The ability of checking and perceiving it with the eye in real time, foretelling the future and understanding our present as mutual functions has also been sacrificed as the price of the bright night provided to us. The night sky we used to look up and imagine the universe has been replaced with google earth on-line and the ordinary night helping us communicate with the present and future has been further away from humans and darker as technology has been developed. What do modern people living in convenience being saturated leave in this city through their innovated products?

The city describes organized relationship between nature and medium as temporal and spatial contexts for reading and imagining. This organic phenomenon can be referred to the environment of the media of photo recording and sharing changes of surroundings in contemporary times. Infinite production in the digital era is a meta-medium being reflected with not only visual information but also change in city in real time. This medium shows the relation with different forms of reading through stored information generated from the creation of the tie between media and reality.
Lighting makes us appreciate the city night and enjoy it. The bright night can be contained in photograph, and provides enjoyment and different types of consumption. Excessive and disported landscape of the city is continuously regenerated as images with the city light we can appreciate. This work tries to show the way of recognizing bright night consumed through manufacturing converting program translating image of picture being produced consistently in modern times as data values not images for appreciation.
After images collected by searching 'night view' on-line are entered into the converting program and values of the brightest ones (values with over 125 times the RGB256 brightness value) are calculated, the added values are accumulated in the computer. After that, images used for calculation become pixel again and are accumulated as dots of light on the screen. Can the values combined with virtual light be the practical numbers to recover our lost night? The program is operated through imagining the precious use of values of light extracted.



Citylight converter(2017)
program, dimention variable, still image

City Converting Service(2013)
Installation image, Artcenter Nabi, Como

나의 작업은 혼재된 도시에서 삶의 자생적 논리를 비춰 볼 수 있는 대상들을 도시의 집합된 구조에서 찾고 분류하며 재위치 시키는 수집과 분류의 과정을 통해, 가깝고 친숙한 일상을 새로운 시점으로 다시 감각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도시 풍경의 조각을 모으며, 복잡함 속에 일정한 질서로 토착문화를 형성하는 도시성을 발견하고 그 속에 포함된 일상성이라는 반복된 순환에 주목하게 되었다. 일상은 반복과 지속 사이에 발생하는 시간과 그로 인해 삭제되는 풍경의 기억들로 친숙한 매일을 그려낸다. 자생적으로 도시를 유지하고 확장하는 조화의 관계 또한 일상에 내제된 반복과 지속이라는 운동성으로 현실 안에 보이지 않는 움직임을 만들어, '무료한 '일상' 속 도시의 내면을 작동시키는 동력이 된다. 나는 이 역동적인 일상 안에서 도시 삶의 균형을 그려내는 생태계 질서들의 면모를 찾아 반복, 연속, 삭제의 일상의 특성이 미디어 환경으로 연장되어 펼쳐지는 새로운 현재의 시점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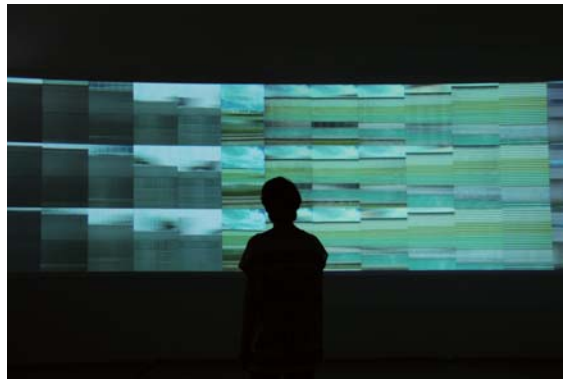
온/오프라인 상태의 경계가 일상의 중심이 된 지금, 도시는 미디어 매체의 생태계가 연장되어 이 둘의 관계 안에서 나의 주변이 형성된다. 예를 들어 사진 데이터를 사용하고 감각하는 일반적인 인식의 태도가 실제를 대변하고 간섭하는 상호작용을 만든 것처럼 미디어 환경에서 제공하는 시각적 서비스가 새로운 차원을 구성하기도 하고 그것이 현실이 되어 실제를 움직인다. 온/오프라인이 공존하는 중간계에서 나의 작업은 일상과 미디어 사이의 관계에서 그것이 내제된 생태적 성질을 재번역한 새로운 차원의 풍경을 제시하고 있다.

My work starts from re-sensing familiar daily life as new perspectives through the process of collection and classification which is finding objects able to reflect natural logic of city life from structure gathering in the city, and dividing and relocating them.

By collecting pieces of landscape in the city, I happened to discover urbanity creating indigenous cultural in a consistent order in complexity and focus on the repeated circulation of everyday-ness contained in there. The daily life describes times generated from repetition and continuation, and familiar everyday with memories of landscape in the times deleted. The relation of harmony naturally maintaining and extending the city also becomes the driving force to operate the inner of the city in 'dull ordinariness' by forming movement invisible in reality as repetition and continuity created in the everyday life. I tried to propose new perspectives of the present where features of the daily life including repetition, continuation and deletion spread to the environment of media through discovering aspect of orders of ecosystem drawing balance of city life in this dynamic everyday life.

The city creates my surroundings in the relation of the media and ecosystem by extending the ecosystem of media outlets in this time the boundary of on- and off-line becomes ordinary. For instance, just like attitude of ordinary recognition applying and sensing photo data represents reality and makes mutual action for intervention, visual service provided from the media environment sometimes forms new dimensions of services or becomes real to make it move. My work in the middle phase coexisting with on- and off-line suggests new perspectives of landscape by re-translating inherent ecological nature of the daily life and media in its relationship.

FLAT CITY(2015)
FLAT60, 1x1_digital color video, Installation, VHHall



Screen saver
digital color video, playback program system
installation image, 2011

정재범

Jaebeom Jeong

심플라이프

정재범은 이스라엘 키부츠에서의 경험에서 시작한 '심플라이프' 프로젝트를 통해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과 대비된 느리게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노숙인, 노동자 등–에 대해 이야기한다. 동전이 담긴 일회용 컵을 흔드는 거지의 단순하고 반복적인 동작을 기계적 움직임으로 재해석한 작품은 우리의 반복적이고 공허한 삶에 대한 메타포이다. 자본주의 사회의 경쟁과 속도에 지친 우리에게 작가가 이야기하는 심플라이프는 도시라는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가는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작가의 우리가 살아가는 속도와 시간에 대한 관심은 '뻐꾹뻐꾹 개굴개굴' 작업으로 이어진다. 작가는 효율성과 생산성을 동력으로 작동하는 자본주의적 시간개념에 질문을 던지고 잊혀진 '뻐꾸기 시계'의 부품을 활용해 임의의 시계장치를 고안한다.

이 시계장치는 우리가 살고있는 시간에 대한 관념을 다양한 방향으로 확장시킨다.

최근 작업 무지개폭포는 도시의 구조물인 에스컬레이터를 전시장에 나무로 재현한 키네틱–설치작업이다. 나무로 만들어진 에스컬레이터는 본래의 기능을 잃어버린 채 무의미한 움직임을 반복한다. 작가는 에스컬레이터의 기능을 도시의 속도를 조절하는 장치에서 우리의 호흡을 조절하는 장치로 재전유한다.

Simple Life

Jaebeom Jeong tells about our neighbors who live at a slower pace such as the homeless and the laborers compared to our busy life through 'Simple Life' project starting from his experience in Kibbutz in Israel. His work that reinterpreted a simply repetitive beggar's action shaking a disposable cup containing coins in mechanical movements is a metaphor of our repetitive and empty lives. The Simple Life that the artist tells gives us the opportunity to reconsider the meaning of living together in the city as a large community.

The artist's interest in the pace of our lives and the time is continuously connected to his work 'Cuckoo cuckoo Ribbit ribbit.' He asks a question about the capitalistic idea of the time that is driven by efficiency and productivity, and devises an arbitrary clockwork through applying parts of a 'cuckoo clock.' This clock mechanism extends our notion of the time that we live into various directions. Recent work 'Rainbow falls' that represents escalators as urban structures at the exhibition is a kinetic-installation work which is made of woods. The wooden escalator repeats meaningless movements losing its primary function. The artist re-appropriates the function of escalators from the machine which manipulates the pace of the city to the apparatus which regulates our breathing.

무지개 폭포 Rainbow falls
나무, 모터, 체인, 기어, 타이머 wood, motor, chain, gear, timer,
4870×800×2840mm(2점, 가변설치) (2 pieces, variable installation), 2017

심플라이프 프로젝트

심플라이프 프로젝트는 이스라엘 유학시절 잠시 머물렀던
키부츠 공동체에서 시작되었다.
도시의 경쟁과 속도에 지쳐있던 나에게 키부츠 사회주의 공동체
생활은 도시의 바쁜 삶을되돌아보게 하였다. 예루살렘 마하네
예후다 시장을 배경으로 진행한 프로젝트는 바쁘게살아가는
군중 속에서 찾아낸 느리게 살아가는 사람들 – 거지, 청소부,
노동자 – 의 반복적인 행동이나 동작을 기계적 움직임으로
재해석한 키네틱 오브제 작업이다.
인간의 동작을 해학적으로 흉내 내는 오브제들은 우리의
반복적인 삶의 모습을 역설하며 단순하고 반복적인 움직임은
우리의 반복적이고 공허한 삶에 대한 메타포이다.

Simple Life project

Simple life project started from Kibbutz Community I stayed for a while during studying in Israel.
The experience of living in the socialism-based Kibbutz Community made me exhausted by competition and speed in the city as well as look back to busy city life. The project carried out based on the background of Yehuda Market in Mahane, Jerusalem is kinetic objet work re-translating repeated actions or motions of people - beggars, cleaners and laborers - living slowly found in the crowd living busy with mechanical movements.
Objet imitating movements of humans humorously stresses
the features of our repeated life, and simple and repetitive motions are metaphor for our repeated and empty life.

빠꾹빠꾹 개굴개굴 Cuckoo cuckoo Ribbit ribbit
새장, 나무 , 전선, 아날로그 타이머, 모터, 전구
bird cage, wood, electric wire, analog timer, motor, lamp
가변크기 variable dimensions, 2016

망갈 뮤직박스 Mangal Music Box
바베큐 그릴, 오르골, 고무줄, 장난감
barbecue grill, music box, rubber band, toy
40×30×20cm, 2014

멜로디 카트 퍼포먼스 Melody Cart Performance
마하네 예후다 시장, 예루살렘 Mahane Yehuda Market, Jerusalem, 2014

멜로디 카트 Melody Cart
나무, 금속, 자전거 바퀴, 모터, 플라스틱 컵, 동전
wood, metal, bicycle wheel, motor, plastic cup, coin
120×50×80cm, 2014

악수할 수 없는 손 Unshakable Hand
종이상자, 나무, 플라스틱 컵, 스피커, 모터, 동전
cardboard box, wood, plastic cup, speaker, motor, coin
36×48×25cm, 2014

조진섭

Jinsub Cho

난민

폭력을 피해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들은 과거에도 존재했으며 지금도 존재한다. "난민"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이들은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도 사라지지 않았고 과학과 함께 발달된 군사 무기들은 그들을 큰 위험에 빠뜨렸다. 그리고 그 위험은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며 치명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프랑스 칼레(Calais)에는 "정글"이라고 불리는 난민촌이 있다. 1990년 초에 발칸 반도에서 벌어진 전쟁으로 동구권 사람들이 이동해 난민촌을 만들었고 2000년대로 들어서면서 그 자리는 지독한 기아와 독재, 내전을 피해 지중해를 건너 온 아프리카 사람들로 채워졌다가 2015년을 기점으로 다시 아랍 사람들로 채워졌다.

세계 평화라는 거대 담론이 와 닿지 않던 나의 10대는 행복이라는 것을 찾아 헤맸고 20대에는 사회가 요구하는 삶을 살다가 무작정 파리로 떠났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을 마주했다. 나는 낭만의 도시인 파리 북부에서 노숙을 하는 아프리카 난민들과 어울려 지내다가 그들을 따라 칼레(Calais)로 가게 되었다. 그 후, 발칸 반도로 넘어가 아랍 난민들의 여정을 동행하다 독일에 정착한 시리아 난민들과 함께 생활했으며, 미얀마로 넘어가 로힝야족을 만났다.

독재로 고통받아 난민이 된 수단 사람은 지중해를 불법적으로 건너가기 위해 3년여를 꼬박 일해 돈을 모아야만 했고 이라크에서 담배를 피다 팔이 잘린 10대 소년은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에게 해(Aegean Sea)를 건넜다. 돈이 없어 간신히 시리아 국경만 넘어 터키 남부에 숨어 사는 시리아 소녀는 어느 날 떨어진 폭탄으로 아빠가 죽는 광경을 보고 실어증에 빠졌다. 8살 로힝야족 소년은 화상으로 고환이 부풀어 바지를 입지 못하지만, 통행이 제한되어 의사를 만날 수도 없다. 이 모든 것들은 동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이다. 나는 적어도 그들보다 안전한 곳에 있지만, 그들을 마주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지금 그들을 기록하고 있다.

Refugee

People wandering aimlessly to avoid violence exited in the past as well as do now. The people called °∞refugees°± never disappeared even after World War II but military weapon developed along with science put them in greater danger. In addition, there is still danger and it is even continually getting bigger and worse. There is a refugee town called °∞Jungle°± in Calais, France. People from the East-European bloc moved to the place fleeing from the war in the Balkan Peninsula in the early 1990's and made the town, and after that, Africans settled there by passing Mediterranean to escape terrible starvation, dictatorship and civil war, then recently, people from Arab countries have arrived around 2015.

I searched for happiness during my teen years when I lived far beyond themes, world peace and meta-discourse, and just lived to fit into society and left for Paris aimlessly in my 20s. Then, I encountered them in there. I got along with African refugees sleeping rough in the northern part of Paris, the city of romance, and happened to follow them to Calais. After that, I headed for the Balkan Peninsula and accompanied Arab refugees, then lived with Syrian refugees settled in Germany for a while, and came to meet the Rohingya Community in Myanmar.

Sudanese refugees under suffering from dictatorship had nothing to do but work for three years to save money to cross the Mediterranean Sea illegally and a teenage boy losing his arm by smoking crossed the Aegean Sea even before his arm was healed. A Syrian girl hiding in the southern part of Turkey just crossing border of Syria because she had money only to survive came to have aphasia by seeing her father die from the explosion of a bomb. An 8-year-old Rohingya boy was not able to wear pants because his testis was swollen by suffering from a burn but had no chance to see a doctor due to pass restriction. All these matters occur in the same era. I, even though at least living in a safer place than they do, cannot help facing them. That is the reason why I record them.

2016년 2월 5일 세르비아 남부 프레세보(Presevo) 기차역에서 시리아 소년이 북부 시드(Sid)행 기차를 기다리고 있다. 아침 기차를 놓친 소년의 가족은 역에 쌓여있는 모포로 추위를 견뎌내고 있다.

A Syrian boy is waiting for the train for Sid, the northern part of Serbia, at Presevo Train Station in the southern part of Serbia on Feb. 5, 2016. His family missing their morning train is enduring the cold with a blanket piled by the station.

"인류 문화의 모든 것을 '신들'의 탓으로 돌리고 싶은 유혹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이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된다. 희생은 인간의 일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인간의 말로써 설명되어야 한다."
– Ren_ Girard 〈La Violence et le Sacr_〉 (폭력과 성스러움)

"Even though temptation is strong enough to ascribe
all the human cultures to 'Gods,' we are not supposed to be tempted into it.
Sacrifice is our job."
Therefore, it should be explained through words of humans."
- Ren_ Girard <La Violence et le Sacr_>

2016년 2월 4일 크로아티아 슬라본스키 브루드 (Slavonski Brod) 기차역에 난민을 가득 채운 기차가 들어왔다. 세르비아 북부도시 시드(Sid)에서 기차를 타고 온 이들은 도착해 간단한 서류 검사와 사람들이 기부한 신발과 옷가지들 중 필요한 것들을 지급받아 다시 기차에 탑승한 후 오스트리아로 향한다.

A train filled with refugees arrived in Slavonski Brod Train Station, Croatia on Feb. 4, 2016. After just arriving from Sid, the northern part of Serbia are screened with some simple documents and supplied with shoes and clothing donated, they get on the train again for Austria.

2015년 9월 23일 크로아티아 국경 도시 밥스카 (Bapska)에서 난민들이 난민 전용 검문소가 있는 오파토바츠(Opatovac)행 버스를 타기위해 이동하고 있다. 9월 10일부터 16일까지 4만 4천여명의 난민들이 이곳을 통해 오파토바츠(Opatovac)로 향했고 22일 하루 동안 6천 500여명의 난민들이 이곳을 지나갔다. 불어나는 난민으로 크로아티아는 일시적으로 국경을 폐쇄했으나 불어나는 난민을 막을 수가 없었다.

Refugees are moving to take a bus for Opatovac where the refugee-exclusive checkpoint is located, in Bapska, a border town in Croatia on Sep. 23, 2015. About 44,000 refugees headed for Opatovac from Sep. 10 to 16 through this point and around 6,500 passed there on Sep. 22 alone. The Croatian government temporarily blocked the border due to the rapidly growing number of refugees but could not prevent the refugees from crossing the border.

2015년 9월 23일 크로아티아 국경 도시 밥스카(Bapska)에서 시리아 모자가 난민 전용 검문소가 있는 오파토바츠(Opatovac)행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이 모자는 22일 밤에 국경에 도착해 밤을 보내고 23일 막차를 타고 검문소로 향했다.

Syrian mother and son are waiting for a bus for Opatovac where the refugee-exclusive checkpoint is located, in Bapska, a border town in Croatiaon on Sep. 23, 2015. The two arrived in the border at night of Sep. 22 and stayed a night, then headed for the checkpoint by the last bus in Sep. 23.

지아젠 린

Jia-Jen Lin | Taiwan

시체 보관소

"The Archival Body(보관소의 시체)"는 현대 의학에 직면해서 인간의 연약함을 탐구하는, 즉 그것이 우리 자신의 신체와 관련하여 우리의 신체 인식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탐구하는 조각, 사진, 비디오 등을 포함하는 일련의 모듈 방식의 작품들이다. 더 작은 기념비들을 실물 크기로 만드는 것과 같이 Lin(린)은 기나긴 암과의 투쟁 동안 그녀의 남편을 위해 제거되었거나 망가진 신체 부분을 보존하고 표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Jia-Jen(지아젠)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얼마나 더 빨리 진보하는지에 놀란 반면, 그녀는 또한 TED에서 의료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이러한 흥분되고도 진보적인 발견과 해결책들이 물방울이바위에 구멍을 뚫는 것과 같은 속도로도 진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사라지고 있는 점점 더 많은 생명들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이 시리즈에서, Jia-Jen(지아젠)은 합성수지, 금속, 3D 프린팅 플라스틱과 그들의 디지털 사진으로 만들어진 일련의 조각들을 만든다. CT 스캔 이미지로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진 비디오도 있다.

"We Can See Them Gradually Dissolving(점점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사진)와 "X-Ray: Collective Memory 001 (엑스레이: 집합적 기억)"(한 그룹의 조각들)은 다양한 해부 모형들에서 주조된 클리어 레진 조각들과 그 사진들로 구성되어 있다. 거푸집 내부의 붉은 색조는 의심스러운 실체를 상징하며 크기가 점점 커지거나 사라지는 것을 상징한다. 환자의 생명이 비정상적인 세포들이 커지거나 사라지는 것에 의존할 때 또는 의사가 판독하는 엑스레이에 의존할 때, 생명의 미래를 내시경으로 보고 예측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다소 특이하다. 인간의 눈을 통해 결정 내리는 것에 의문을 표하기 위해, Lin은 의사들이 그것을 재검진하는 방식과 유사한 관점으로 거푸집을 촬영한다. 그녀는 그 후 전시할 때 그 사진들과 거푸집들을 나란히 놓는다.

The Archival Bod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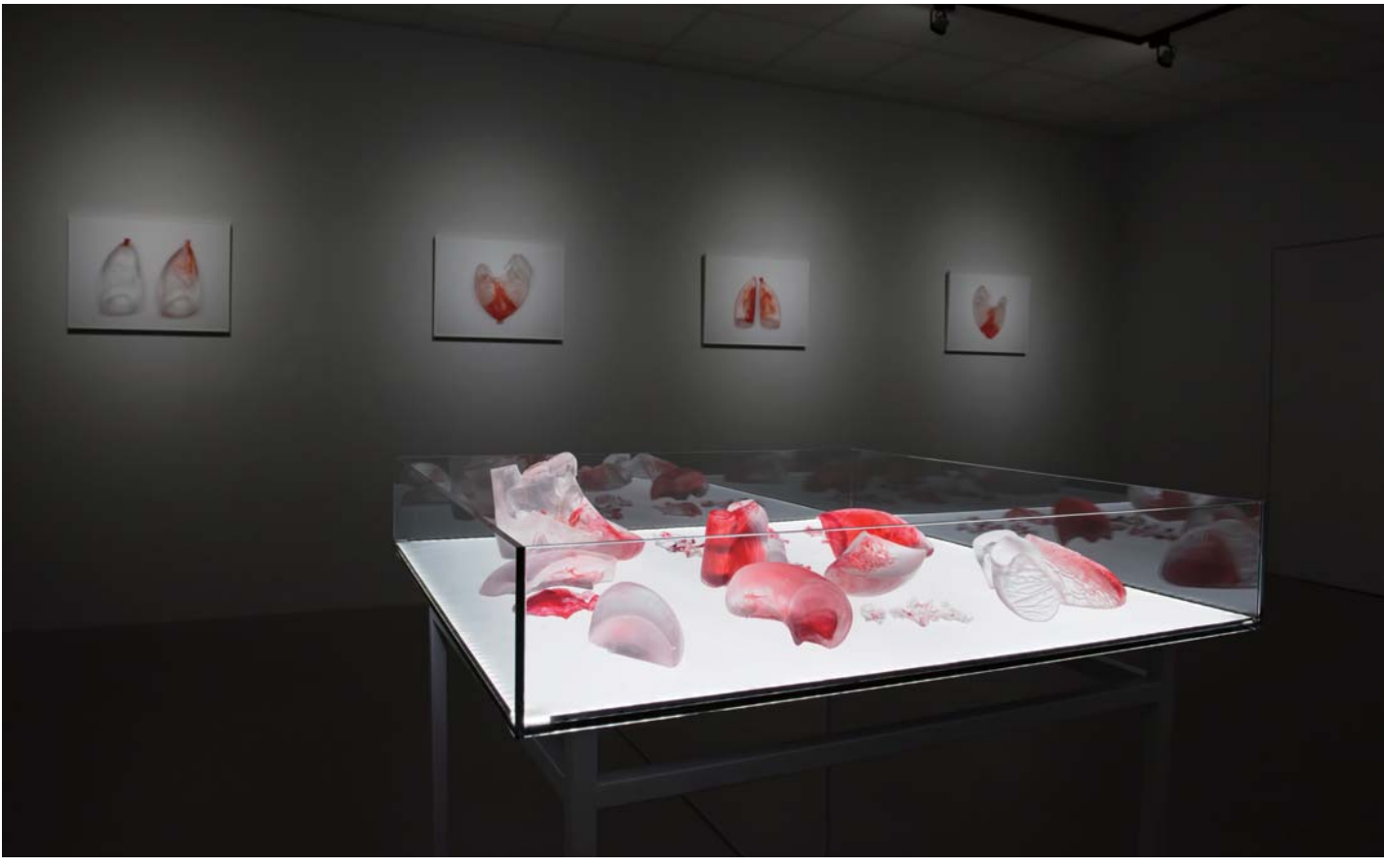
"The Archival Body" is a series of modular works including sculptures, photographs, and videos that explore the fragility of the human being in the face of modern medicine how it changes our physical perception with regard to our own bodies. Like making smaller monuments in life-size scale, Lin tried to preserve and represent the physical parts that had been removed or disabled for her husband during a long battle of canc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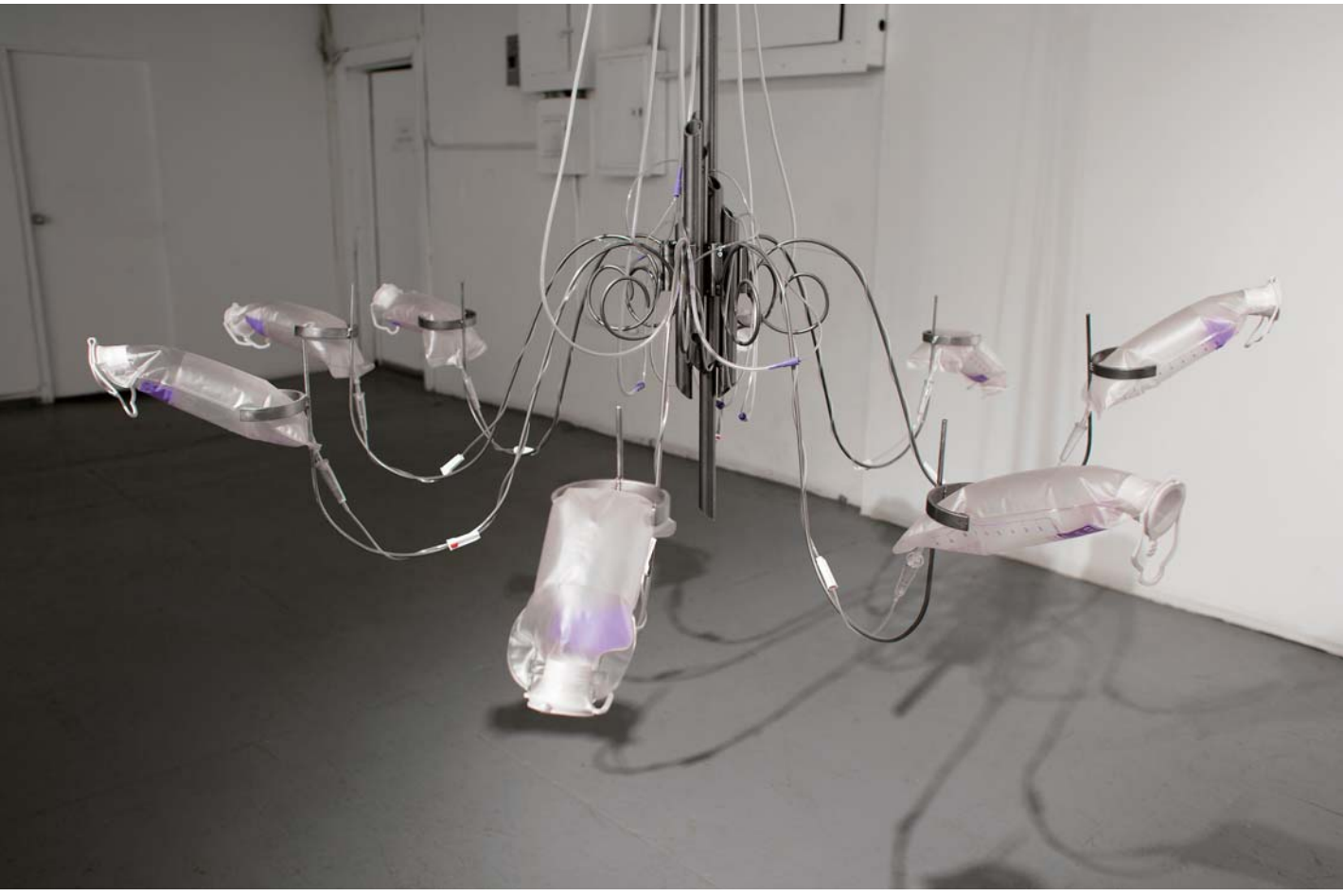
While Jia-Jen is amazed by how medical technology is moving faster than we can imagine, she also notices that these exciting and forward-looking discovery and solutions presented by medical experts on TED talks move at the speed as dropping water to wear away a stone. We still cannot help but be affected by the increasing numbers of lives disappearing around us.

In this series, Jia-Jen creates a series of sculptures made of resin, metal, and 3-D printed plastic and their digital photographs. There is also a video animated from CT scan images.

"We Can See Them Gradually Dissolving"(photographs) and "X-Ray: Collective Memory 001"(a group of sculptures) are constituted of clear resin sculptures cast from various medical anatomy models and their photographs. Red color tints inside the casts symbolize suspicious entities and expanding or disappearing growths. When a patient's life relies on these expanding or disappearing abnormal cells or relies on the X-Ray reading by a doctor, what we can use to endoscope and predict the future of lives is rather singular. Lin photographs the casts from a perspective much like the way doctors would re-examine them, to question decision-making through the human eye. She then juxtaposes the photographs and the casts in the presentation.

X-Ray: Collective Memory 001 ▶
Resin casts in Light Box, 93 ×93 ×112cm(dimension varies), 2015





Unknown3525, video, 1'44", 2014

"60 Gram Is Non Dose(60그램은 투여량이 아니다)"는 금속 파이프와 막대, 음식공급백, 공기펌프 기계로 구성된 조각이다. 샹들리에와 오르간 파이프 모양(사치와 영성의 상징)을 일회용 의료 자재와 결합함으로써, Lin(린)은 그것을 풍자적인 기계장치로 재구성하여, 우리가 신체적 트라우마가 있을 때 우리의 재정이나 사회적 지위와는 상관없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동일한 의료 과정과 의료 장비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을 암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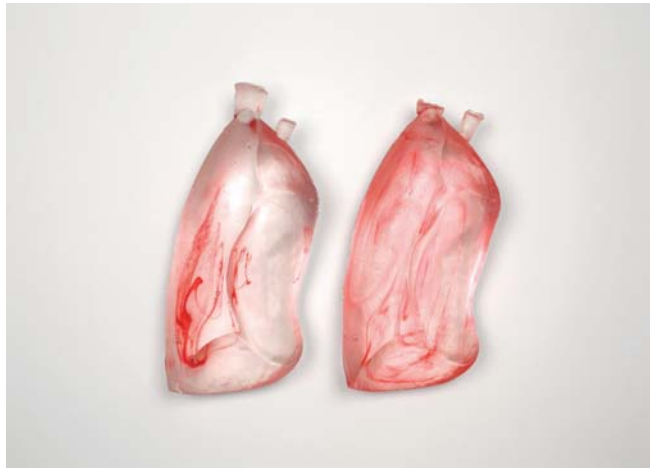
"60 Gram Is Non Dose" is a sculpture composed of metal pipes and rods, feeding bags, and air pumping machinery. By combining the shapes of chandelier and organ pipes (symbols of luxury and spirituality) with those of disposable medical supplies, Lin recomposes them into a sarcastic mechanical contraption to imply that, when we have physical trauma, we all need to rely on the same medical process and medical equipment to maintain life, regardless of our financial or social status.

"The Archival Body: Figure Study(보관소의 시체 : 형체 연구)"는 내이의 분해된 의료용 해부 모형에서 주조되고 변형된 한 그룹의 클리어 레진 미니어처 조각들이다. 현미경으로 보는 것처럼, 사진은 이미지를 확대했다.

이 작품은 비정상적인 신체 조건을 가진 환자의 자기 인식을 나타낸다.

"The Archival Body: Figure Study" is a group of clear-resin miniature sculptures were cast and modified from dissembled medical-anatomy models of the inner ear. Like looking through a microscope, the photographs present enlarged images.

This work illustrates the self-awareness of patients with abnormal physical conditions.



We Can See Them Gradually Dissolving
66×51cm, 2014

이 프로젝트는 대만 문화부, 타이충 문화국, Sculpture Space(스컬프처 스페이스) 주식회사가 후원한다.
This project i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Culture of Taiwan, the Cultural Affairs Bureau of Taichung, and Sculpture Space, Inc.

최은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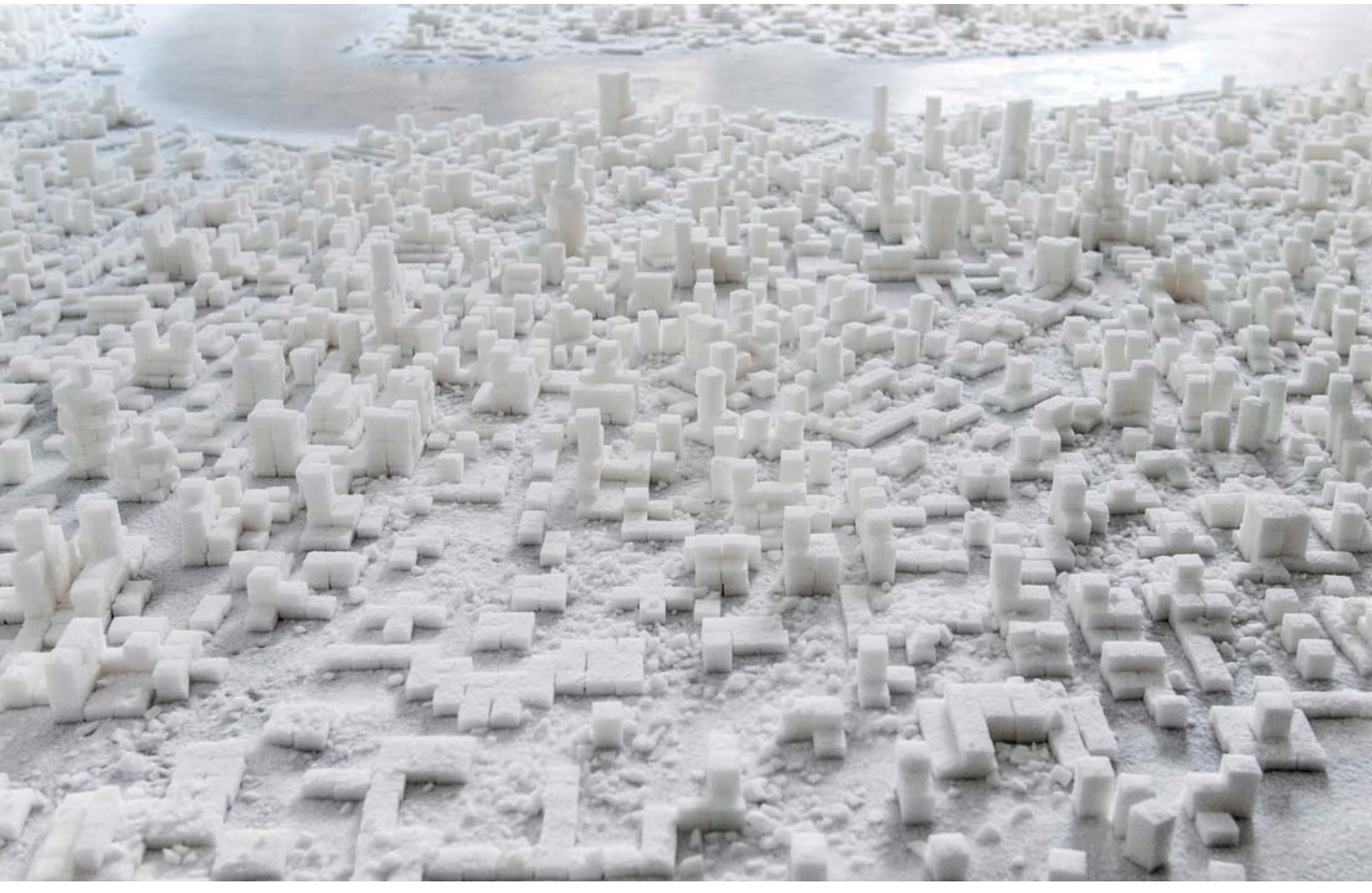
Euncheol Choi | Germany

Sugarcity

'Sugarcity' 는 전시장의 컨셉과 규모에 맞게 완성되는 공간설치 작업이다.
오늘날 설탕이 당뇨병, 비만 등 온갖 질병의 발생률을 높인다는 이유로 일부 국가에서는 설탕소비세(Sugar tax)를 실시하고 있다. 나는 이 세금이 사회의 계층을 나누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초래하는 것을 지켜보며 나의 작업 키워드인 '도시' 에 이를 적용하였다.
멀리서 보면 게임 속에 등장할 만한 작은 네모 조각들이 줄지어 세워져 하나의 지도를 보는 것 같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제로는 수천 개의 각설탕들이 높이와 열을 달리하여 세워져 있다. 'Sugarcity' 는 두 가지 시선을 중요시한다. 일반적인 눈높이의 시선으로는 설탕으로 만들어진 도시이지만 높은 곳에서 한눈에 도시를 내려다보는 부감의 시선으로는 갈라지고 메마른 땅의 형상이 보여지기도 한다. 나는 매 전시마다 공간 안에서 시점의 다양성을 염두하고 컴퓨터 작업을 통해 미리 모형화하여 사전 준비를 마친 후 설치를 진행한다. 단단해 보이지만 상대적으로 쉽게 부서지고 액체와 닿는 순간 사라져 없어지는 설탕이라는 재료는 나에게는 하나의 픽셀과도 같이 느껴졌다. 인간이 쌓아 올린 하나의 도시와 그 안에 즐비한 건물들이 겉으로는 매우 견고해 보인다. 그러나 사회는 싱크홀 또는 여러 자연재해로 인해 쉽게 무너지거나 파괴되어 버리는 도시가 안고 있는 수많은 우려들을 외면하지 않아야 하며 좀 더 겸허한 자세로 대처해야 한다. 현대 도시가 지니고 있는 이 달달한 매력은 마치 신기루처럼 한순간에 사라져 버릴지도 모른다.

Sugarcity

'Sugarcity' is space installation work to be completed by fitting into concepts and scale of the exhibition hall.
Today, some countries have implemented Sugar Tax since sugar is one of main causes to raising the incidence rate of various kinds of diseases including diabetes and obesity. I have observed social class and the polarization caused by the tax and applied it to my work whose keyword is 'city.'
Seen from a distance, it looks like a map with square-shape pieces standing in a line just like appearing in a game. However, taking a close look at it, thousands of sugar cubes are standing in different heights and rows. In 'Sugarcity', two views are considered important. From the general eyelevel, it is a city made of sugar but from a bird's-eye view of the city, it seems to have split or dry land in it. Whenever preparing for an exhibition, I first consider diversity of perspectives in space and model it through computer before working on the installation. Sugar has been regarded as pixel to me because it seems solid but can easily be broken and disappears right after it is touched with liquid. The city built by humans and buildings standing closely together inside the city looks strong and firm from the outside. However, society should not disregard numerous concerns in the city which can easily collapse or be destroyed such as sinkhole or several natural disasters, but deal with them in a more decent way. This very charming attraction the modern city has might disappear in a moment just like a mirage.



detail1_Sugarcity
각설탕, 드로잉, 공간 가변설치, S.Y.L.A.N.T.E.NHEIM in Bonn, 480×480×30cm, 2016

오후 전시밖 풍경

Crack_I
color pencil on Paper
150×150cm, 2016

이질적인 유사함 그리고 그 안의 풍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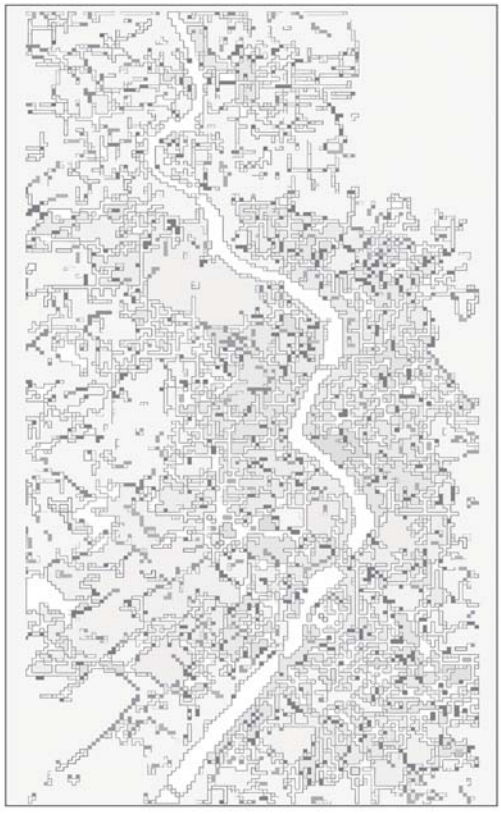
나의 드로잉에서는 인간의 특성이나 본질이 일련의 콜라쥬 방식을 통해서 보여지게 된다. 특히 인간의 특성 중 사회적 측면에서 다수와 개인의 본질에 대한 차이에서 오는 아이러니 즉, 실제와는 반대되는 모습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드로잉 화법은 보통 비유와 은유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특별히 '무리(다수가 모인 한 집단)'를 동물로 비유한다. 이는 인간과 새 혹은 곰과 같은 동물들이 사회적, 진화적 관점으로 볼 때 몰려다니는 무리적 생활 습성과 메가 시티(Megacity: 핵심도시를 중심으로 일일 생활이 가능하도록 기능적으로 연결된 대도시권)에 몰리고 떼 지어 엉켜 있는 형태에 관한 고찰의 반영이다.

특히 드로잉 시리즈 작품 'crack,2016'은 메마르고 갈라진 땅의 형태 위에 북극곰의 무리를 콜라주 한 것이다. 대상적으로는 이질적이지만 환경이라는 공통의 이슈를 가지고 있는 메마른 땅과 녹아내리는 북극을 시각적으로 동시에 교차 시킴으로써 두 테마가 가지는 양면성을 관객들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본 작품은 근거리 시점에서는 눈에 보이는 사물의 구조와 명확한 형태를 시각화하고, 원거리 시점에서는 하나의 큰 형태의 무리로 보일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작품 안에서 사회와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의도하였다. 또한 한 작업 안에 다양한 시점을 구현하여 관객들이 다각적인 관점에서 사유하고, 관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Heterogeneous similarity and landscape in there

Features and nature of humans in my drawings are displayed through a collage method. Particularly, I concentrate on irony, in other words, figures opposed to true aspects generated from the difference in nature between majority and individuals from the social perspective, among characteristics of humans. The drawing technique is performed through comparison and metaphor, and in particular, it compares a 'group (one group made by majority gathering)' with animals. This reflects the consideration of life styles which humans and animals including birds or bears have when moving around in groups, and forms concentrated and tangled in groups in Megacity (metropolitan areas functionally connected for making a one-day life possible focusing on core cities).

In particular, 'crack, 2016' out of drawing works is a collage work based on polar bears on dry and cracked land. It implies double-sidedness of two themes to the audience through visually intersecting dry land and the North Pole melting simultaneously which are different from the objects but have common issues of environment.
This work is intended to show features of both society and individuals in the work through visualizing structure and clear shapes seen from a short distance and displaying one huge crowd from a long distance. Moreover, it also considers helping the audience think and appreciate the work from multiple perspectives by realizing various points of view.



fromseoultocologne1

fromseoultocologne2

2015년에 독일 쾰른 Kunsthaus Rhenania에 설치된 "from Seoul to Cologne (한강에서 라인강까지)"는 내가 독일과 한국에서 거주했던 도시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프로젝트로 진행하였다. 나는 이 두 나라에 거주하며 정치적인 배경의 유사점을 착안하여 재현해 내었다. 이 두 도시는 비록 멀리 떨어져있지만 공통적으로 과거 전쟁 이후에 폐허가 된 도시라는 점과 빠른 경제의 재건을 상징하는 점에서 동질감 느낄 수 있게 한다. 독일의 라인강을 사람들은 경제적 부흥을 상징하는 '기적의 강' 이라고 지칭한다. 물론 한국에도 경제적 부흥을 상징하는 한강이 있다. 이 점을 토대로 나는 두 도시의 흐르는 강을 하나로 연결시켜 연출함으로써 나의 개인적인 히스토리를 보여주는 동시에 바이오그래피적 조각을 보여주고자 한다.

"from Seoul to Cologne" installed in Kunsthaus
Rhenania in Cologne, Germany in 2015 was performed by connecting cities in Germany and Korea where I have lived. I have observed similarities of political background in two countries during staying and reproduced them. Even though two cities are far away each other, I have had homogeneity in the countries by considering the two were completely destroyed after wars and achieved economic development again.
The Rhine is called 'the River of Miracle' to symbolize their economic revival. Korea also has Han River representing
our economic revival. Based on that, I try to show my personal history as well as bio-graphical sculpture through presenting rivers flowing in the two cities connected as one.

호아킨 세구라

Joaquin Segura | Mexico

존재론적 정치학 (하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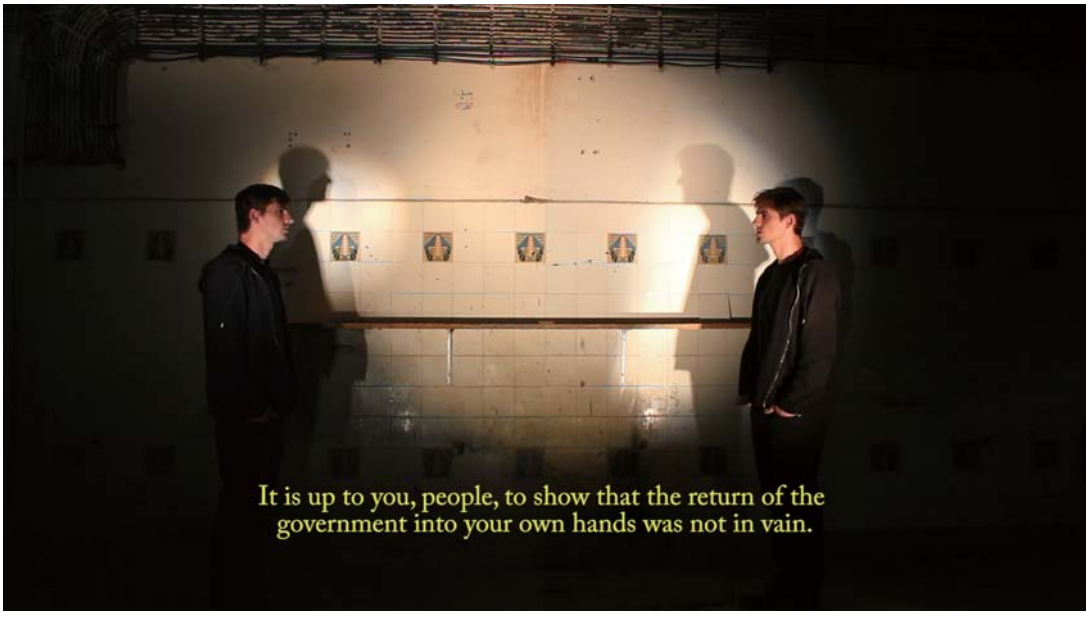
Ontological Politics #1 (Havel)(존재론적 정치학/ 하벨)은 동유럽에서 소비에트 시대 이후 정치의 예전 반체제인사이자 핵심 인물인 Vàclav Havel(바클라브 하벨)이 한 독창적인 대중연설에서 추출한 단편들로 구성된 반복적 대화가 들어있는 단일 채널 비디오이다. 이 작품에 사용된 두 대사 모두 각각 1990년과 1991년 Havel(하벨)의 신년사의 마지막 변론 부분이다. 계속되는 의심에 빠진 한 개인이 제기하는 이러한 끈질긴 의문은 소련 붕괴 후 세계 지정학의 극단적 변화를 시사할 뿐 아니라 지역과 유럽의 다른 부분에서의 현재 사회정치학적 위기를 시사한다.

이 비디오는 정치적 변화의 개념과 현재의 사회정치학적 분위기에서 급진적 이데올로기의 적절성이 짧은 비디오를 통해 탐구되는 진행 중인 일련의 작품인 Ontological Politics(존재론적 정치학)의 일부분이다. 이 작품들은 현대 역사에서 다양한 갈등의 순간들 사이에 가설의 평행상태를 확립하여, 이러한 이데올로기들이 구조적으로 미학적으로 따르는 방식의 비판적 관점을 만들어낸다. 이 시리즈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는 구체적 폭동 시나리오에서의 특정 사건들, 반체제의 미래, 정치적 폭행의 본질 및 항의의 미학화를 포함하며, 전유된 심상과 같은 공식적 자원과 매스미디어, 문서보관서, 악명 높은 정치 연설 및 비슷한 자료 같은 다양한 원천에서 추출한 내용물을 통합하고 있으며, 서구 세계에서 사회적 상부구조에 침투한 균열에 대한 광범위하고 환멸을 느끼는 시각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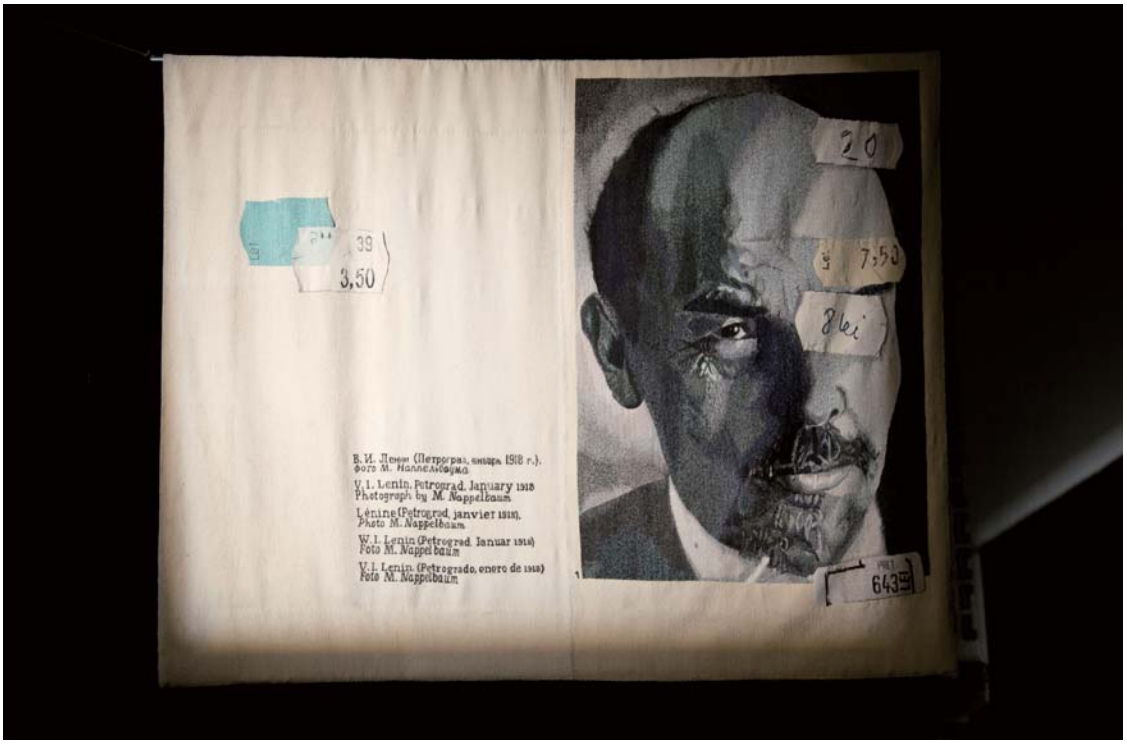
Ontological Politics #1 (Havel)

Ontological Politics #1 (Havel) is a single-channel video in which a recurring dialogue is formed by fragments extracted from two seminal public addresses by Vàclav Havel, former dissident and essential player of post-soviet politics in Eastern Europe. Both of the lines used in this work are the closing arguments of Havel's New Year Addresses of 1990 and 1991, respectively.
This persistent question posed by an individual in continuous doubt alludes to the extreme changes in global geopolitics once the Soviet Bloc fell, but also alludes to the sociopolitical crisis nowadays, both in the region and other parts of Europe.

This video is part of Ontological Politics, an ongoing series of works in which the notions of political change and the pertinence of radical ideologies in our current sociopolitical climate are explored through brief videos. These works establish hypothetical parallels between diverse moments of conflict in contemporary history, creating a critical perspective of the way these ideologies are structurally and aesthetically conformed. The topics treated in this series range from specific incidents in specific disturbance scenarios, the future of dissidence, the nature of political violence and the aestheticization of protest, incorporating formal resources such as appropriated imagery and content extracted from diverse sources such as mass media, document archives, notorious political speeches and similar material, elaborating on a broad and disenchanted vision of the fissures that permeate social super-structures in the western world.



Ontological Politics #1 (Havel)
Digital Video, 2′55″, 2013



이데올로기 청소(레닌) Ideological Clearances (Lenin)
오뜨리스 태피스트리, 수공 Haute-Lisse Tapestry, Handwoven
300×250cm, 2015

Ideological Clearances (Lenin)(이데올로기 청소(레닌))은 에스토니아 탈린의 한 지역 벼룩시장에서 구매한 공산주의 시대에 관광산업을 홍보하기 위해 만든 정치선전 사진집을 예술가가 개입하여 손으로 짜 연출한 것이다. 원본은 예술가에 의해 할인가격표를 붙여 부분적으로 개입되었지만, 구매 당시에 이미 있었던 원래의 스티커들이나 손글씨들 몇몇은 유지를 하고 있다.

Ideological Clearances(이데올로기 청소)는 진행 중인 고블랭 시리즈로 거기에서부터 3개의 큰 포맷 작품들이 이미 만들어졌다. 이 총체적 작품은 한 자산으로써 이데올로기라는 아이디어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 이데올로기가 하나의 자산이므로 따라서 이데올로기는 시간이 지나게 되면 상징적 그리고 경제적 가치 모두 감소할 수 있다. 그 작품은 20세기의 아주 급진적인 이데올로기적 프로젝트에 대해 그리고 현대 세계의 관점에서 그것의 지각된 실패에 대해 날카로운 비평을 확립한다. 그 예술가와 정치선전 이미지를 귀족적 장식을 연상시키는 텍스타일 기술의 정교한 표현으로 변화하는 데 도움을 준 고도로 숙련된 텍스타일 장인과의 협업을 통해, 잉여가치에 대한 마르크스식 아이디어로의 신랄한 접근은 또한 그 시리즈의 개념 구조에 존재한다.

Ideological Clearances (Lenin) is a hand-woven rendition of an intervened propaganda photo-book meant to promote tourism during the Communist era, sourced in Tallinn, Estonia at a local flea market. The original book was partially intervened with discount price tags by the artist, while keeping some of the original stickers and handwriting already present at the time of purchase.

Ideological Clearances is an ongoing gobelin series from which three large format works have already been produced. This body of work is interested in the idea of ideology as an asset, thus subject to a reduction of value, both symbolic and economic, upon the passing of time. It seeks to establish a sharp commentary upon the great radical ideological projects of the 20th century and its perceived failur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ontemporary world. Through the collaboration of the artist with highly skilled textile artisans who aid in the transmutation of propaganda images into exquisite renditions of a textile technique reminiscent of aristocratic décor, an acid approach to the Marxist idea of surplus value is also present in the conceptual structure of the series.

Joaquín Segura(조아킨 세구라)의 작업은 폭력의 현상학, 사회정치학적 미세기후, 비대칭적 역사, 이데올로기의 현재 역할에 대해 명상을 한다. 최근 프로젝트에서 다루어진 주요 관심은 현시점에서 권력의 본질, 특정한 불안정의 시대에서의 정체성, 반대와 실패의 존재론적 중요성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의 세대에서 가장 눈에 띄는 멕시코 예술가 중 한 명인 그의 작품은 2000년대 초부터 멕시코에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전시되고 있다. 그의 예술적 산물은 정치적 조직들과 급진적 사고에 대한 현상학적 측면에 관해 시각적으로 우려를 나타내는 것으로 인정을 받고 있으며, 사회 상부구조의 균열과 대립에 그리고 그것들이 정치적 위기의 세계화에서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에 깊게 매혹된 작업을 구성하고 있다. 이것은 현대 세계사의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을 끊임없이 참고하여 주로 탐구되며, 깊이 있는 연구와 날카로운 공식적 실행에 크게 의존하는 미적 제안을 달성하고 있다.

Joaquín Segura's practice meditates on the phenomenology of violence, sociopolitical microclimates, asymmetrical history and the current role of ideology. Major concerns addressed in recent projects revolve around the nature of power, identity in an age of particular instability and the ontological significance of dissent and failure, here and now.

One of the most prominent Mexican artists of his generation, his work has been shown in Mexico and internationally since the early 2000s. His artistic output is recognized as visibly concerned about the phenomenological aspects of political apparatuses and radical thought, constructing a practice deeply fascinated by the fissures and contradictions in social superstructures and the crucial role these have played in the globalization of political crisis. This is mainly explored through constant references to specific historical events of contemporary world history, achieving an aesthetic proposal that relies heavily on deep research and sharp formal execution.

새까맣게 탄 깃발의 잔여물로 구성된 조각 설치물. 암시된 국가들의 선택은 세계의 가장 큰 국가 경제를 가진 정부들을 함께 모은 국제 포럼인 선진 8개국 그룹을 구성하는 국가들과 일치한다.

Sculptural installation composed by the remains of charred flags. The selection of the countries alluded correspond to the nations that constitute the Group of Eight, an international forum that brings together the governments of the world's largest national economies.

G8, Synthetic fabric & wood 합성섬유 & 목재, 480×240×300cm, 2013

홍지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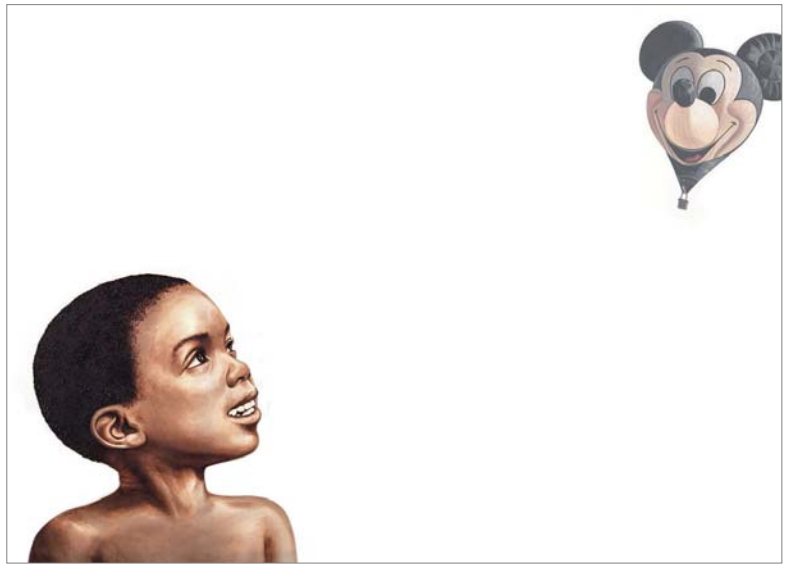
Jicheol Hong

Extremely Aromatic Wor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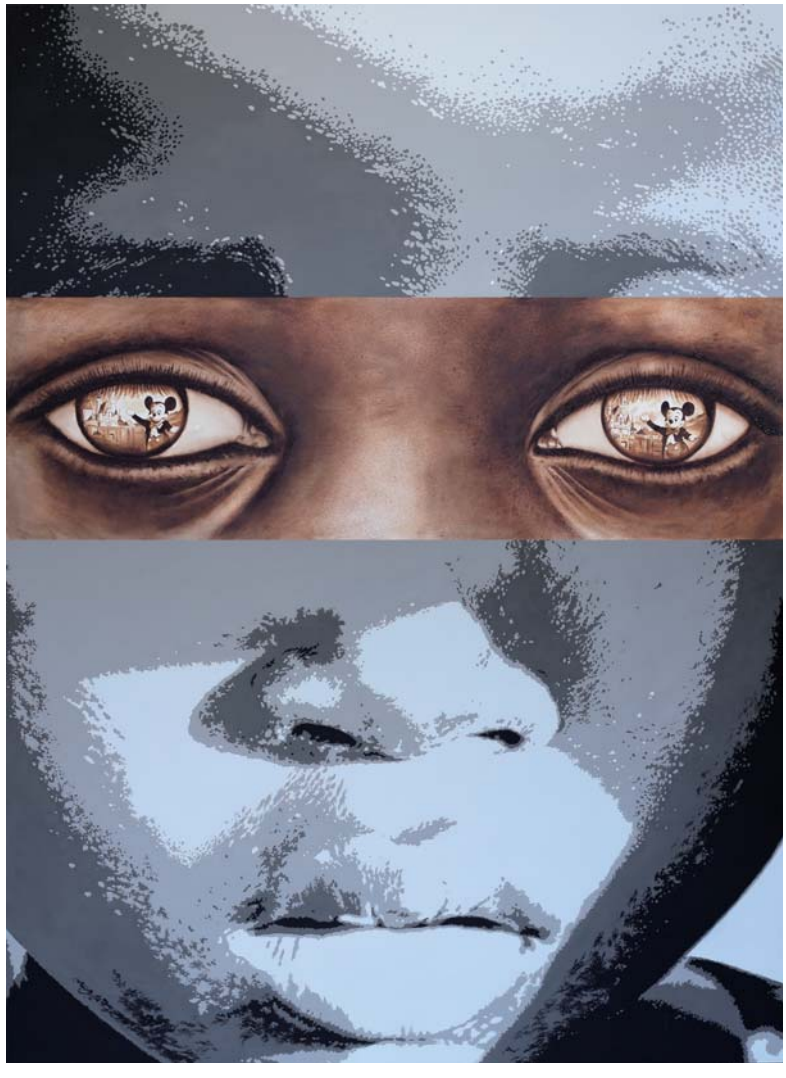
커피 전문점들이 우후죽순 건물의 한 켠에 자리를 잡은 것은 이제 익숙한 풍경이 되었다. 나 역시도 그 익숙한 풍경에 동요가 되어 테이크아웃 커피를 손에 들고 다니는 것이 무척이나 자연스러워졌다. 밥 한 끼 가격을 훌쩍 넘는 커피의 그윽한 향과 맛에 취해 커피 한잔의 여유를 부리는 동안 커피 생산의 1% 남짓한 임금을 받으며 일을 하는 현지 노동자들의 삶은 고생스럽기만 하다. 우리가 누리는 행복함의 이면엔 누군가의 희생이 따르게 마련일까? 세계에서 석유 다음으로 소비가 가장 많이 되는 것이 커피라고 한다. 매년 수백만 톤에 이르는 커피가 수확이 되고 그만큼 소비가 되지만 이렇듯 우리는 지구촌 어딘가에서 벌어질 노동착취와 노예제도에 암묵적인 동의를 하며 살아간다. 자본주의의 거짓된 화려함 속에 감춰진 쓰디 쓴 커피의 맛은 이들의 고통을 너무나도 잘 드러낸다. 이 세상은 진한 에스프레소의 향처럼 매우 향기롭지 않은가?

Extremely Aromatic World

Placing great numbers of coffee shops at the corners of buildings becomes familiar landscape. I have also come to get along with it, so it has been natural for me to walk around by holding takeout coffee on my hand. While we are enjoying a cup of coffee by being into its profound flavor and taste with the price of over one meal, life of laborers in coffee producing counties by receiving wage, just 1% of the production of coffee seems tough and hard.
Is it natural there is sacrifice of somebody on the other side followed by our happiness we enjoy?
Coffee is known to be one of products consumed the most in the world following oil. Hundreds of tons of coffee are harvested and consumed every year, which can also be translated we make an implicit agreement on labor sexploitation and slavery happening somewhere in the world. Taste of the extremely bitter coffee hidden in fake glamour of capitalism well-reveals their pains. Isn't this world extremely smelly just like the flavor of strong espress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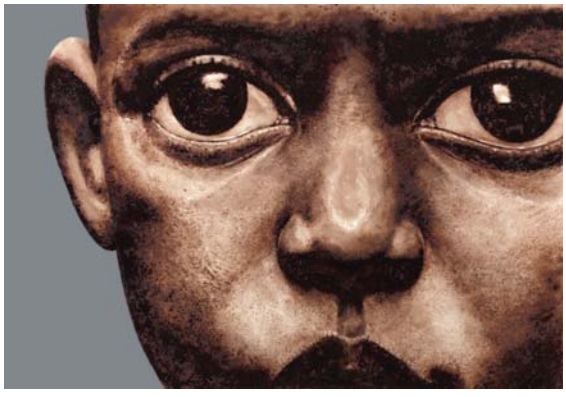
Extremely Aromatic World 1729
162.2 ×224.2cm



Extremely Aromatic World 1732
224.2 ×162.2cm

Extremely Aromatic World 1303

Extremely Aromatic World 1322



Extremely Aromatic World 1001

향기롭고 매력적인 커피원료는 나에게 식품이자 동시에 그림의 소재, 또는 그림을 그리는 재료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끼 식사 비용을 훌쩍 넘는 브랜드 커피를 이용하면서 그것들을 생산해 내는 일종의 '식민지 농업'의 부조리한 현실을 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이 인식하길 소망한다.
달콤하고 매혹적인 향 이면의 쓸쓸함으로 인해, 커피향이 매우 향기롭고 매력적인 것은 아닐까?

Aromatic and attractive coffee materials are not only food to me but subjects or materials for my drawing. Most people purchase coffee in brands whose prices are way expensive than that of one meal, but do not realize the absurd reality of 'colonial agriculture,' the way how coffee is produced. Accordingly, I hope people can be aware of the reality. Isn't the aroma of coffee more fragrant and attractive because of sadness behind its sweet and fascinating flavor?

Extremely Aromatic Qorld 1326

Extremely Aromatic World 1104

황종현

Jonghyun Hwang

죄

내게 죄가 있다면
나를 사랑하지 않은 죄
나를 귀히 여기지 않은 죄
나를 믿지 않은 죄
이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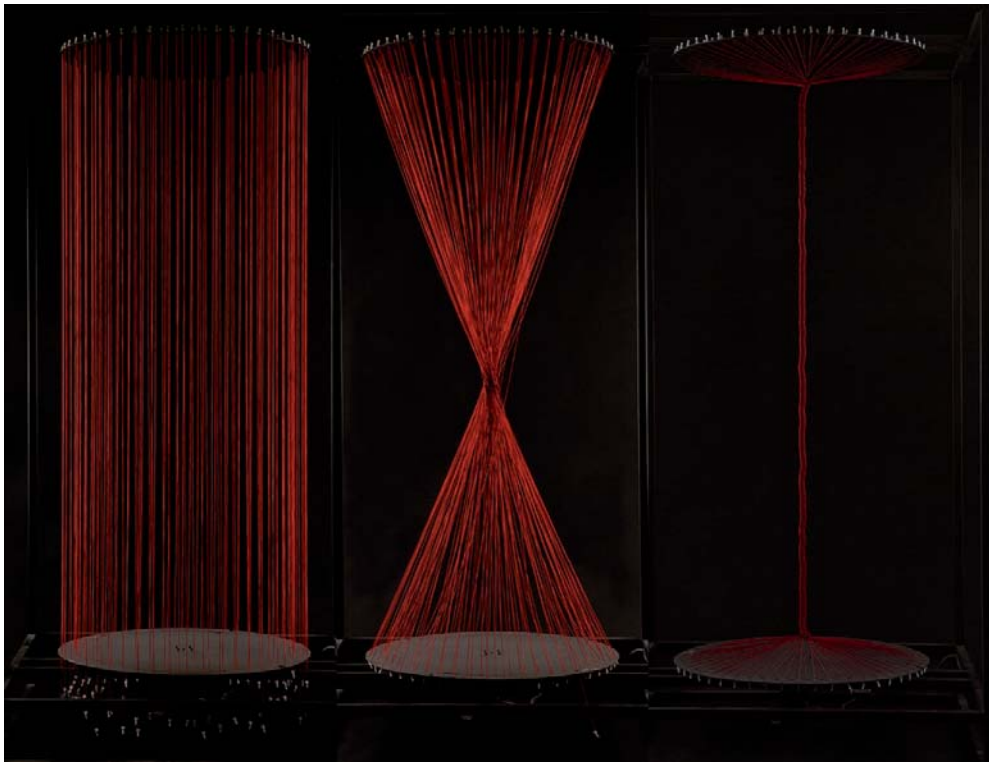
분당선 수원방향 막차시간인 오후 11시 37분, 퇴근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지하철에서 이어폰을 귀에 꽂고 집으로 향하는 34분 동안 내가 왜 예술을 하는지 생각한다.
주머니가 허전한 나에게 편안하게 다가오는 재료는 흔한 공산품이다. 특히 드로잉을 하기에는 A3용지만한 것이 없다. 불현듯 떠오르는 영감을 먹과 붓으로 A3용지 위에 그리는 행위는 마음을 정화시키고 웃음을 자아낸다. 반면 조각가임을 자부하는 나에게 조각작업은 애증의 관계로 볼 수 있다. 기존의 조각에 염증을 느낀 나는 아이디어는 물론 제작방법까지 온전히 나만의 조각을 만들고 싶었다. 그래서 길바닥에 버려진 쓰레기를 숨을 쉬도록 되살려보기도 하고 수만 가닥의 실을 일일이 기계에 연결하고 실 위에 그림을 그려서 조각을 만들어 보기도 한다. 조각작업은 돈과 노동이 필연적으로 많이 소요된다. 그래도 완성을 하면 깊은 만족감을 선사한다.
나는 의도적으로 작품을 좁은 의미로 한정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 OECD 자살률1위, 산재사망률 1위, 가계부채 1위의 대한민국에서 20대 작가로 살면서 경험한 것이 작품에 자연스럽게 녹아있을 뿐이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예술을 재미있게 즐기는 문화이다. 내가 내 나름대로 즐기면서 표현했듯이 관객도 각자 나름대로 해석하고 표현하면서 즐기는 것이 내가 바라는 것이다. 그래서 과속방지턱을 빙자한 매트리스를 놓았고 그 위에서 관객들이 마음껏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렇게 전시장이 놀이터가 된다면 비로소 작품이 각자의 마음속에서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오늘도 죄를 씻기 위해 작업을 한다.

S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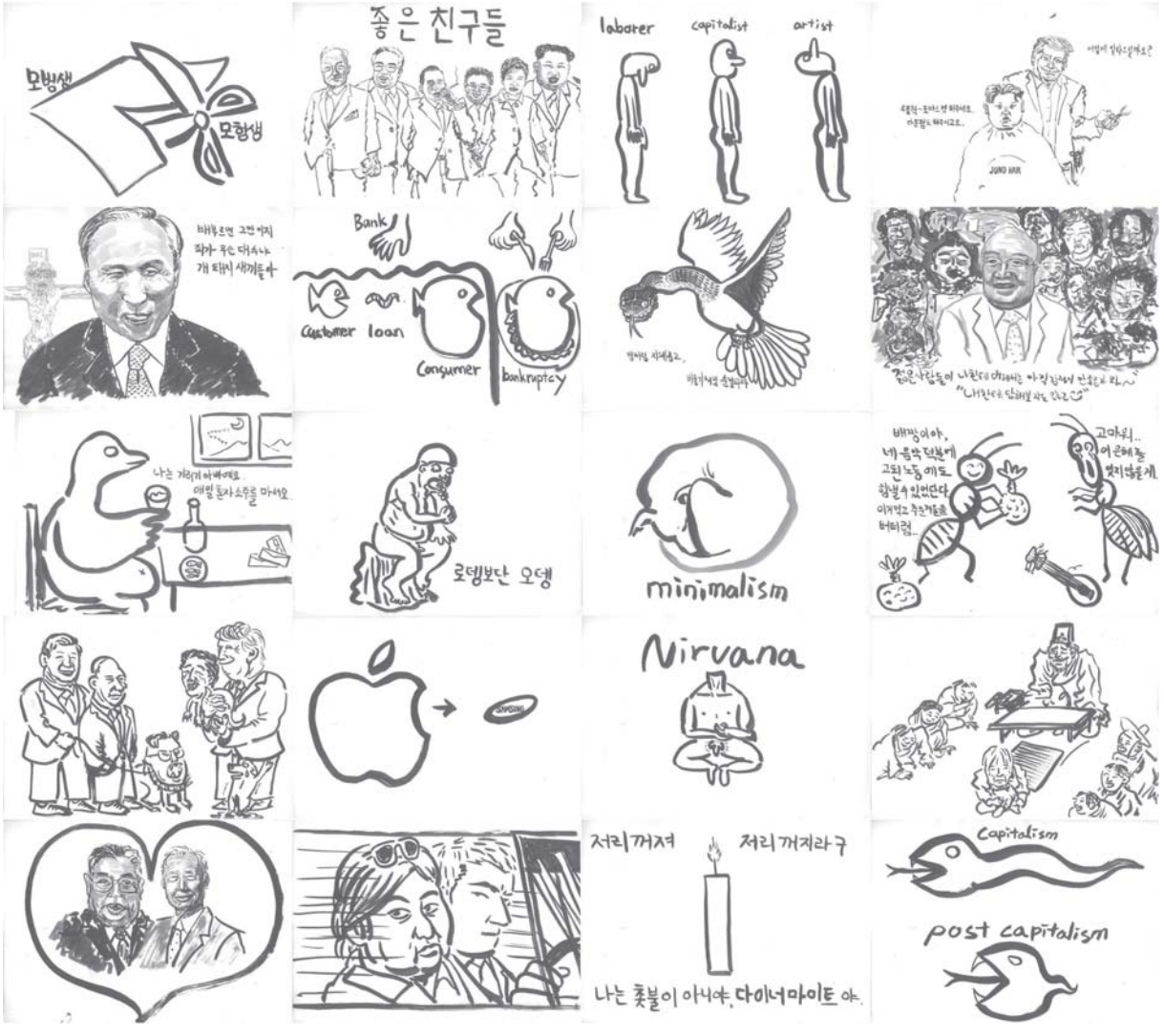
If I have sins,
sins of not loving myself,
sins of thinking poorly of myself,
and also sins of not believing in myself.
That's all.

When I finish my work, I usually rush to catch the last train. While I am in the train, full of people, I agonize over the reason of my choice to become an artist. On the way home, for 34 minutes, only the music through my earphones can calm me. Being an artist is hard, but I work hard because I like it. However, as time goes by, I cannot help but feel conflicted on whether not making money but following my passion of work is the right thing to do. There is no doubt that drawing or carving makes me happy and satisfied, although I scrape by for a living.
For me, cheap A3 paper is enough to express my inspiration. On that paper, with some ink and a brush, I try to throw everything on, and it helps purify my mind. At the same time, I believe I am a sculptor, but I have a strong partiality with sculpting. I reject a conservative approach, so I try to express my ideas with a new approach. Breathing trashes and a moving machine expressed with thousands of threads are examples. This kind of work demands a lot of time and money, but it also gives me deep satisfaction.
I don't want to limit the meaning of my work. I have lived in Korea, which has been top ranked for suicide rates, death of industrial accident rates and household debts out of other OECD countries, and my experiences in this country are integrated into my artwork. The most important thing about art is that visitors can enjoy artwork as I have been. I hope they can interpret the meanings with their own way of thinking and feeling. For this exhibition, I set a speed bump using a mattress. On the mattress, visitors can feel free to express their feelings; because of this, I can say the artwork will do its job only after then.
Today, I work to wash away my sin.

FUN HOUSE 展 전시전경, 오! 재미동갤러리, 서울, 2017



The thread
steel, elastic string, motor, converter, 110×110×220cm, 2015



Drawing
Korean ink on A3 paper, 42×29.7cm, 2017

Breath
a wooden box, motor, crankshaft, garbage bag
80×80×130cm, 2013
쓰레기도 숨을 쉰다. 너도 할수있다

I see you
Pen on rice paper, film, tissue, light panel
67×65cm, 2017
내가 너를 보고있다 네가 예술작품이기 때문이다.

arevolutionfrommybed

YOUNG ARTISTS PROJECT 2017

특별전
Special Exhibition

로저 발렌

Roger Ballen | USA

유령 극장

발렌은, 버려진 여성 감옥의 시커먼 창문 위에 손으로 그림을 그린듯한 장면에서 영감을 받아, 유리 위에 서로 다른 종류의 스프레이 페인트를 사용해서 그림을 그리거나, 자연광을 이용하여 날카로운 도구로 그 페인트를 제거하는 실험을 했다. 그 결과는 원시 시대의 동굴 벽화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유리 위의 검은색의 무차원적인 공간은, 발렌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그려넣는 컨버스인 셈이다. 화석같은 얼굴 형태와 훼손된 신체 부위는 수증기 모양의 유령 그림자처럼 함께 공존한다. 발렌의 작품 중, 한 시대에 제한되지 않으면서도 혁신적이며, 세속적이면서도 내세적이고, 그리고 물리적이면서도 영적인 특성을 추구하는 유령 극장 시리즈는,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구조화된 심리드라마 형태를 통해 새로운 허구의 세계를 소개한다.
발렌은 관람객이 생각하는 현실이라는 개념에 도전하기를 원한다. 다시 말해, 우리가 실제라고 인식하는 것이 실제가 아닐 수 있으며, 실제가 아닌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실제일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또는, 그 두 가지 가정 모두 틀렸을 수도 있다. '현실'이란 것은 모두가 항상 사용하는 단어이다. 그러나 그 단어의 본질은 수수께끼와 미스터리에 가려져 있다. 결국, 그러한 인지 자체는 자기 기만이라는 뜻이다.
완성이라는 단어를 기준으로 내 작품을 바라본다면, 사람들은 심적으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 그들이 생각하는 정상이라는 개념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The Theatre of Apparitions

Inspired by the sight of hand-drawn carvings on blacked-out windows in an abandoned women's prison, Ballen started to experiment using different spray paints on glass and then 'drawing on' or removing the paint with a sharp object to let natural light through. The results were like prehistoric cave-paintings: the black, dimensionless spaces on the glass are canvases onto which Ballen has carved his thoughts and emotions. Fossil-like facial forms and dismembered body parts coexist uncomfortably with vaporous, ghost-like shadows. Timeless and innovative, earthly and otherworldly, physical and spiritual, The Theatre of Apparitions series has transported Ballen's photographic work into a new set of fictions gesturing to a constructed psychological drama of infinite possibility.
My hope is to challenge the viewer's very assumptions about their knowledge of reality. In other words, what we perceive as real may be unreal, and what we perceive as unreal might be real. Alternatively, neither may be the case. 'Reality' is a word that all of us use all the time; yet the essence of this term is shrouded in enigma and mystery. To assume otherwise is ultimately a case of self-deception.
In its state of completion, my work makes people feel uneasy, because it affects their concept of normality, of order. As a defence mechanism, they will automatically ask about what the subjects of the photographs think, what my dreams are like, or refer to the darkness of the image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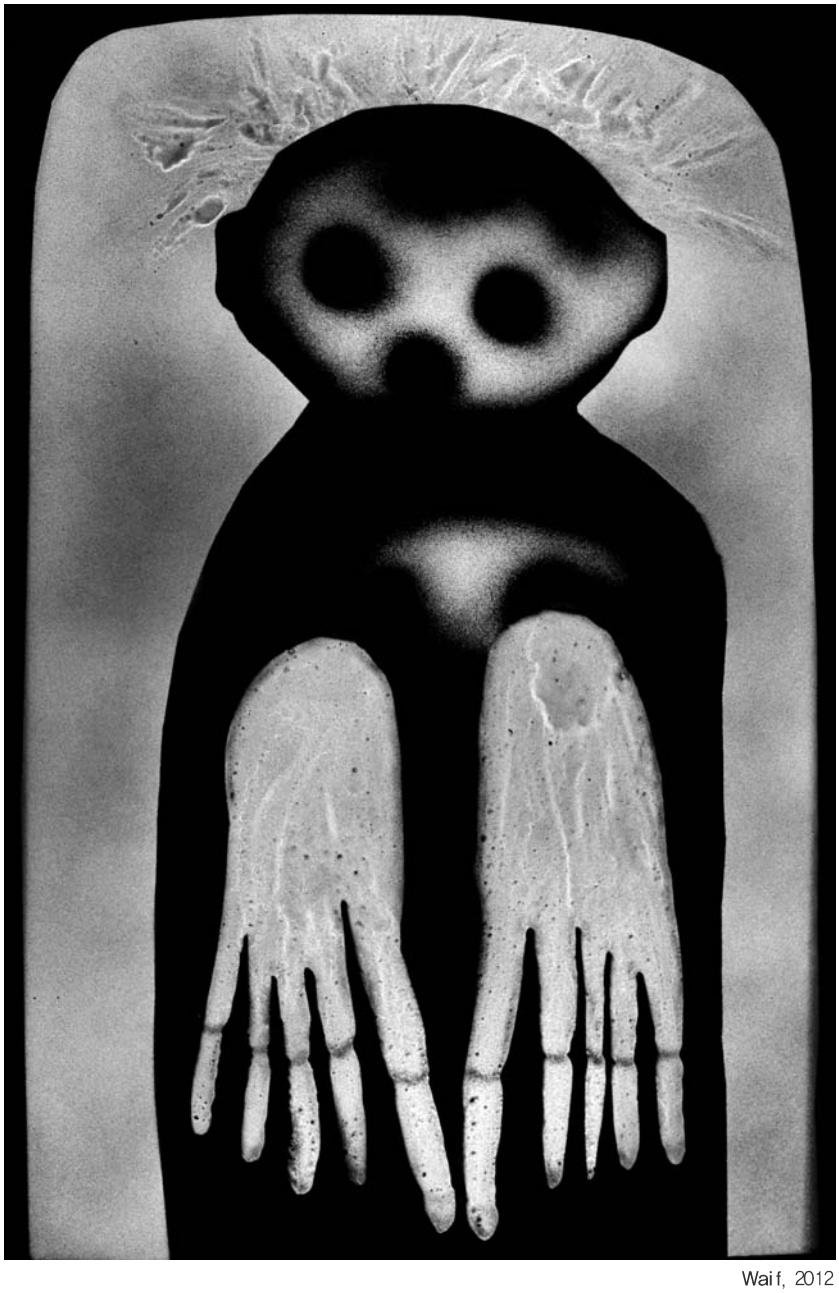
Stare, 2008

이 작품은 어떤 의미에서는 영혼을 그린 것입니다. 특정 개인과 유체, 그리고 물질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아주 심오하면서도 원초적 심리 상태를 뿜어내는데, 이러한 상태를 기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는, 그와 달리, 전혀 다른 마음 한 구석을 기록한 것으로, 일종의 보이는 사진 보고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콜린 로즈의 유령 극장 소개에서–

These are spirit drawings. In a way.
They are the permanent record of a bubbling-up of deeper, more primal psychological realms made manifest on a surface through the interaction between a particular individual and fluid, physical materials. Or rather, they are photographs of visual reports from some psychic elsewhere.'
Colin Rhodes, introduction to The Theatre of Apparitions

Embryonic, 2009



Waif, 2012

Face Off, 2010

Guardians, 2011

arevolutionfrommybed

YOUNG ARTISTS PROJECT 2017

작가약력
Curriculum Vitae

고윤정
YunJeong Ko

1987 Born in Jeju, Korea
2009 Obtained B.A. with focus on sculpture at ART DEPARTMENT of JEJU NATIONAL UNIVERSITY
2014 Obtained M.A. with focus on sculpture at ART GRADUATE SCHOOL of JEJU NATIONAL UNIVERSITY

SOLO EXHIBITIONS
2017 The time of silence facing the changing world, Yeon gallery, JEJU, Korea
2016 Moving Amid Stillness, VOSTOK GALLERY CAFE, SEOUL, Korea
2015 Love, Jeju City Performance & Sports Venue, JEJU, Korea
2012 Approach to Relationship-Multiple Identities, Jeju City Performance & Sports Venue, JEJU, Korea

GROUP EXHIBITIONS
2017 Gender equality week exhibition_'Home: Build', Kim Man-duk Memorial Hall, JEJU, Korea
2016 Exhibition "Human body lanadscape", Jeju Young Artist Group "Baji, Rock"_Relay
Solo Exhibition, Dream in Jeju, JEJU, Korea
Young Artist Exhibition "Shed Light on Jeju, Jeju Museum of Contemporary Art, JEJU, Korea
2014 Installation Group Magam News "Seomnori Archive" Exhibition, art barn Gallery 'Siseon', JEJU, Korea
2013 Jeju Young Artist Invitation Exhibition "3 Persons 3 Colors", Paran Gallery , JEJU, Korea

AWARDS
2016 Selected to benefit from young talented artist promotion project hosted by Jeju Culture & Art Foundation , JEJU, Korea
2014 Selected as one of 21st Jeju Talented Young Artists by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s Culture & Art Promotion Center, JEJU, Korea

RESIDENCY
2012 Occupied Jeju Art Chango introduced as Samdali Village Residency Program JEJU, Korea

COLLECTIONS
2016 Jeju Museum of Contemporary Art, JEJU, Korea

dbswjds2@gmail.com

김소라
Sora Kim

1993 Born in Daegu, Korea
2017 College of Arts and Design, Graduate School of Daegu University, Daegu, Korea
B.F.A. Contemporary Art, Department of Fine Arts, Daegu University, Daegu, Korea

SOLO EXHIBITION
2017 Eoul Art & Artist Project, Buggu Eoul Art Center, Daegu, Korea

GROUP EXHIBITIONS
2017 Icebreaking, Eco-rock Gallery, Seoul, Korea
ASYAAF, Dongdaemun Design Plaza, Seoul, Korea
Signal, Guoldam Gallery, Incheon, Korea
Seosangdong project Part2, Treasure Gallery, Gyungsan, Korea
Youth, CU Gallery, Daegu, Korea
Oksusu, Guoldam Gallery, Incheon, Korea
2016 Daegu University Contemporary Art Graduation Exhibition 'GONGMYUNG' , Ara Art Center & Daegu Gyeongbuk Design Center, Seoul&Daegu, Korea
VERY NEARLY ALMOST, Daegu Art Factory, Daegu, Korea
The 3rd Korean University Art Competition, Hongik Museum of Art, Seoul, Korea
Energy, Daegu University, Gyungsan, Korea
ASYAAF Young Artist, Dongdaemun Design Plaza, Seoul, Korea

AWARD
2016 The 3rd National University Art Contest

kkk_0324@naver.com

김소연
Soyeon Kim

1983 Born in Seoul, Korea
2006 BFA, Sculpture, Kookmin University
2008 MFA, Sculpture, Kookmin University

SOLO EXHIBITIONS
2016 'Here Somewhere', Street Museum 〈Well〉, Seoul
2010 'Possession is an alienating illusion' Gallery Suncontemporary, Seoul
2008 'Sorrow, so Smile', Song Eun Gallery, Seoul

GROUP EXHIBITIONS
2017 'The Little Prince: Three Stars, Clayarch Gimhae Museum, Gimhae

'Hello, My home', Yeulmaru, Yeosu
2016 Yesultong Street Arts Festival, Micromuseum, Seoul
2014 Blooming Art, Gallery Lotte, Daejeon
2013 Artist x Artistry Gallery Project, The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Haeundae BIFF Village, Busan

COLLECTIONS
삼성전자 DS메모리 Flash 설계팀 Hwaseong, Korea

artsoy@naver.com

다닐라 첸코
Danila Tkachenko

1989 Born in Moscow Russian
2009-2010 Photojournalism, School of photojournalism "News". Moscow, Russia
2011-2014 documentary photography,Rodchenko Moscow School of Photography and Multimedia

SOLO EXHIBITIONS
2017 Lost Horizon , Pechersky gallery, Moscow, Russia
2016 Restricted Areas, Skopia, Geneve, Switzerland
Restricted Areas, Kehrer Galerie , Berlin , Germany
Escape, Blue Sky Gallery , Portland , USA
2015 Restricted Areas. Pechersky Gallery, Moscow, Russia
Storie Sovietiche (3 artist show). Galleria del Cembalo, Rome, Italy
Escape. Gallery of Classic Photography, Moscow, Russia
Escape. , in the framework of Baltic Biennale "Photomania2015", Art Platform "Gateway", Kaliningrad, Russia
2014 Escape, in the framework of 6th European Month of Photography. 25books, Berlin, Germany

GROUP EXHIBITIONS
2016 New East Photo Prize, Rosphoto, Saint Petersburg, Russia
Dialogue: contemporary art from Russia, Kim Bo Sung Art Center, Seoul, South Korea
SI FEST, Emilia-Romagna, Italy
Russiantearoom gallery and curating agency, Paris, France
Power and Architecture. Calvert 22 Foundation, London, UK
Riga Photography Biennial. National Museum of Art's Arsenāls Exhibition Hall, Riga, Latvia
On Disappearing And For Vanishing. Tartu Art Museum, Estonia
Festival of Political Photography. Finnish Museum of Photography, Helsinki, Finland
2015 Foam Talent 2015, l'Atelier Néerlandais, Paris
Delhi Photo Festival, Indira Gandhi National Centre for the Arts, New Delhi, India
IX Krasnoyarsk Book Culture Fair. Krasnoyarsk, Russia
Gimme Shelter- forts and fictions in the Lowlands. Fort Nieuwersluis, Netherlands
The Curve, Center for Contemporary Arts, Santa Fe, USA
Photoparade Uglich. Russia
The Powers That Be. Station Independent Projects, New York, USA
Athens Photo Festival. Benaki Museum, Athens, Greece
The Anatomy of Forgiveness, Metropolitan Building, New York, USA
I Sought Solitude. South Square Centre, Bradford, UK
Lensculture Award exhibition at Photo London. Somerset House, London, UK
2014 "An Ocean of Possibilities". Museum TwentseWelle, Enschede, Netherlands
"OFF_Festival". Pisztory Palace, Bratislava, Slovakia
VIII exhibition of the Kandinsky Prize nominees. Udarnik cinema, Moscow, Russia
"Solitude", in the framework of 21st Noorderlicht International Photo Festival. Natuurmuseum Fryslân, Leeuwarden, Netherlands
"Twelve Thinking Photographers", parallel event of Manifesta 10. First Cadets' Corpus, St-Petersburg, Russia
2013 "Die Brücke / Most" festival. Slubice, Poland / Frankfurt an der Oder, Germany
"On the block". New Holland cultural center, St-Petersburg, Russia
2012 "Young Russian photography 2012 2/2. Reality / Decoration". Center for Art and Music and Library V.V. Mayakovsky, St-Petersburg, Russia
"Student Art PROM". ARTPLAY design center, Moscow, Russia
2011 "Person on the move". Swissotel Krasnye Holmy, Moscow, Russia
"Young photographer", Fotodepartament, Sankt-Petersburg, Russia
2010 "Steps". Photo Center, Moscow, Russia

AWARDS
2016 Foam Talent, Netherlands
PDN Photo Annual

COLLECTIONS
MOMA , San Francisko , USA
Sammlung Spallart , Salzburg , Austria
The Salsali Private Museum , Dubai , United Arab Emirates

www.danilatkachenko.com

마리빅
MARIEVIC

1982 Born in Paris, French
2007 Master, Architecture, Ecole Spéciale d'Architecture
2010 Master, Fine Arts Photography, Parsons the New School

SOLO EXHIBITIONS
2016 Fair Trade, Stems Gallery, Brussels, Belgium
2015 Whalecum Pictures, Red Bull Studios, New York, USA
2014 Fly, Site 95, New York, USA

GROUP EXHIBITIONS
2017 Fashion Program, Palais de Tokyo, Paris, France
From DADA to TADA, Fisher Parrish Gallery, Paris, France
If I can Start anew again, Liushu International Photo Festical, Lishiu, China
2016 Trailer, Eigen + Art Gallery, Leipzig, Germany
2015 A corps perdu, Magda Danysz Gallery, Paris, France

AWARDS
2015 FFF Milano, Milan, Italy

RESIDENCY
2016 Plug and Play, Berlin, Germany

www.marievic.com

김영광
Youngkwang Kim

1987 Born in Daegu, Korea
2016 M.F.A. Painting, Department of Fine Arts, Graduate School of Yeungnam University, Daegu, Korea
2012 B.F.A. Painting, Department of Fine Arts, Yeungnam University, Daegu, Korea

SOLO EXHIBITIONS
2015 Graduate School Master Billed Exhibition, Bongsan Cultural Center, Daegu, Korea
2014 A Twosome Place Exhibition, A Twosome Place, Daegu, Korea
Graduate School Pre-Master Billed Exhibition, Yeungnam University, Daegu, Korea

GROUP EXHIBITIONS
2017 Arts, Ask about Asia, Daegu Art Factory, Daegu, Korea
Feldstarke International 2017, Changsha · Daegu · Kyoto, China · Korea · Japan
2015 Inquiry life, Exhibition Space Keda, Daegu, Korea
Sunday Paper Curriculum Exhibition, Beomeo Art Street, Daegu, Korea
2014 Graduate School Regular Exhibition, Bongsan Cultural Center, Daegu, Korea

darkfure@naver.com

박제성
JE BAAK

1978 Born in Seoul, Korea
2003 B.F.A, Design,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2010 M.F.A, Communication Art & Design, Royal College of Art,

SOLO EXHIBITIONS
2014 Ritual-Media-Karma, HADA contemporary, London, UK
2013 "Different view", Kumhomuseum, Seoul, Korea
"詩적 강박" GalleryRoyal, Seoul, Korea
2012 Petitio Principii : 선결 문제 요구의 오류 GalleryJungMiSo, Seoul, Korea
2010 Prelude, Art Club 1563 by SUUM, Seoul, Korea

GROUP EXHIBITIONS
2017 "Ars Electronica", Ars Electronica,Linz,Austria
"Blank page", Kumhomuseum, Seoul, Korea
2016 "Samramansang",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Seoul, Korea
"MediaCitySeoul 2016", Seoul Museum of Art, Seoul, Korea
2014 "The future is now" Rom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Rome, Italia

AWARDS
2015 Grand Prize, VH award
2010 Joongang FineArts Prize

RESIDENCY
2010 Kumho Art Studio

COLLECTIONS
2013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Seoul, Korea
Kumhomuseum, Seoul, Korea
2010 Korea JoongAng Daily

studio.jebaak@gmail.com

반다나
Vandana

1983 Born in Haryana, Indian
2003 BA, Fine Art,English, Hindi,Sanskrit, Maharshi Dayanand University,Rohtak, India
2007 MA, English, IGNOU, New Delhi
2011 Diploma, Fine Art, Rachana Sansad of Fine Art and Craft, Mumbai
2017 MFA, Fine Art, Kingston University London

SOLO EXHIBITIONS
2016 Audienc e & Speaker, The Swan, Kingston University, London, England
2013 rituals of s e lf, Kunst Zeug Haus, Rapperswil Jona, Switze

GROUP EXHIBITIONS
2017 Water is Wet, Stanley Picker Gallery, London, England
Distant Mirrors, Stiftung Futur, Altefabrik, Rapperswil Jona, Switzerland
BLACK IS THE SAME BLACK - A Seat at the Table, Stanley Picker Gallery, London, England
Pratyagati - Journey Home, Stiftung Futur, Sir J. J. School of Art, Mumbai, India
2016 Jerwood Drawing Prize 2016, Jerwood Space, London, England
Jerwood Drawing Prize 2016, The Edge Arts, Unive rs ity of Bath, Bath, England
Je rwood Drawing Prize 2016, Turnpike Arts Centre, Leigh, England
Je rwood DrawingPrize 2016, The Gallery,Arts University Bournemouth, Bournemouth, England
Call it Swan,The Swan & Knights Park, Kingston University,London, England
lust alien, Naming Rights, London, England
2015 Fake Show, The Swan &Knights Park,Kingston University, London, England
Greenathon, Gallery Sree Arts & Roma in Rolland Gallery, New Delhi, India
Conc epts of Cultural Identity, Stiftung future& Sir J. J.School of Art, Mumbai, India
2014 Aqua Aegis Fete, Gallery Sree Arts & IGNCA, New Delhi, India
Intuitive Reservoir of Memories & the Medium for Conceptual Reflection, Stiftung future& Sir J. J.School of Art , Mumbai, India
2013 Join, Gallery Sree Arts & Roma in Rolland Gallery, New Delhi, India
2012 roots, Galle ry Sree Arts & Epi Center, Gurgaon, India
UNTITLED, Gallery Sree Arts & Epi Center, Gurgaon, India
Pic torial Invention, Stiftung future & Sir J. J.School of Art , Mumbai, India
2011 Annual Group Show, Rachana Sansad A.F.A.C. , Mumbai, India

AWARDS
2017 Third Prize, pratyagati- Journey Home, exhibition cum competition juried by a rtists Mr. Subodh Gupta & Ms . Shilpa Gupta, organized by Stiftung Futur, Switze, Mumbai, India
2015 GREAT Scholarship Award, by Kingston University, London, England
2014 Creative Artist Award, by Gallery Sree Arts, New Delhi, India
2011 Excellence Award- First Prize,by Rachana Sansad Academy of Fine Arts & Craft, Mumbai India
2003 Best Artist Award, by Adarsh Mahila Mahavidyalaya - Maharshi Dayanand University, Bhiwani, India
2003 University Rank # 13, Maharshi Dayanand University, Rohtak, India
2000 8th Prize in All India Painting Competition Organized by Manishika, Kolkata, India

RESIDENCY
2013 Stiftung Futur, Rapperswil Jona, Switzerland

COLLECTIONS
Private Collection, Switzerland, India
Permanent Collection of Stiftung Futur, Switzerland
Gallery Sree Arts' Collection, India

www.vandanatheartist.com

박경제
Kyungje Park

1991 Born in Daegu, Korea
2017 B.F.A. Painting, Department of Fine Art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Korea

GROUP EXHIBITIONS
2016 VERY NEARLY ALMOST, Daegu Art Factory, Daegu, Korea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Fine art Graduation Exhibi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Korea

AWARD
2016 2016 Fine Art Union Show, Universities in Daegu, Special prize, Daegu, Korea

parkonomy@naver.com

방정호
Jungho Bang

1982 Born in Daegu, Korea
2013 B.F.A. Korean Painting, Department of Fine Arts, Yeungnam University, Daegu, Korea

SOLO EXHIBITIONS

2017 Great King,Smiling Arts Center, Daegu, Korea
2016 Great King,Nonprofit Exhibition Space SSAC, Daegu, Korea
Human Instinct, 55cinema, Daegu, Korea
2015 Instinct: A natural ability to live, Gachang Creative Studio, Daegu, Korea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17 Young Artist Promotion Support Business Result Exhibition, Daegu Art Factory, Daegu, Korea
Gallery Sunjay x Three Young Artist Project, Show you, Gallery Sunjay, Gyeongbuk, Korea
2016 Shift Paradigm [Film], Daegu Art Center, Daegu, Korea
Impressive Hangzhou, China Cultrural Center in Seoul, Gwangju Cultural Foundation Bitgoeul Art Center, Daegu Beomeo Art Street, Seoul, Gwangju, Daegu, Korea
2015 Gachang Art Studio residency Artists special project [Projection Mapping], Space Gachang, Daegu, Korea
Daegu Contemporary Art Festival [Projection Mapping], Bongsan Art Street, Daegu, Korea
11th Independent Animation Film Festival [Film], Seoul Myeongdong CGV, Animation Center, Seoul, Korea
Gangjeong Daegu Contemporary Art Festival [Interactive Art], Gangjeong ARC, Daegu, Korea
Space Project [Film], Beomeo Art Street, Daegu, Korea
2014 Hundred Flowers : Flowers of all colors bloom together, Bongsan Cultural Center, Daegu, Korea
Share in the Art, Beomeo Art Street, Daegu, Korea
XiXi Persimmon Festival, XiXi National Wetland Park, Hangzhou, China
The West Lake Art Fair[Film], Xihu, Hangzhou, China
China International Cartoon&Animation Festival [Film], Phoenix Creative, Hangzhou, China
2013 Spectrum, Cyan Museum, Yeongcheon, Korea

SELECTED ACHIEVEMENTS

2017 Sacalacalaca, Interdimensional Horror & Sci-Fi Festival, Xochimilco, Mexico
The 4th Thessaloniki Animation Festival, Thessaloniki, Central Macedonia, Greece
The 8th Cordoba International Film Festival, Cordoba, Colombia
Cambodia International Film Festival, Phnom Penh, Cambodia
2016 Salair International Independent Film Festival, Altaisky krai, Russia
Blow-up Chicago International Arthouse Film Festival, Chicago, U.S.A
Asian Film Festival Of Dallas, Dallas, U.S.A
Skepto International Film Festival, Cagliari, Italy
The 7th Cordoba International Film Festival, Cordoba, Colombia
The 9th Boomtown Film and Music Festival, Beaumont, Texas, U.S.A
The 1st Ridgefield Independent Film Festival, Ridgefield, Connecticut, U.S.A
The 18th International Short Film and Animation Festival Barcelona (Mecal), Spain
The II Diseases International Short Film & Art Festival (2FICAE) Valencia, Spain
The 4th Tally Short Film Festival, Tallahassee, Florida, U.S.A
The 1st Hollywood Sky International Film Festival, Los Angeles, California, U.S.A
2015 The 11th San Rafael En Corto Short Film Festival (XI Muestra de Cortometrajes San Rafael en Corto), Las Palmas, Spain
The 5th Pune Short Film Festival, Pune, India
The 11th Korean Independent Animation Film Festival, Seoul, Korea

AWARDS

2017 Boomtown Film&Music Festival_Experimental / Music Video Field Judge, Texas, U.S.A
2016 Cordoba Film Festival Major(Best) Animation Award, Monteria, COLOMBIA
2016 Boomtown Film&Music Festival Experimental/Music Video Second palce Award, Texas, U.S.A
2016 Salair International Independent Film Festival Best Animation Award, Salair, RUSSIA
2016 Daegu Foundation for Culture Young Artist, Daegu, Korea
2015 Indie-AniFest Indiefly Artist, Seoul, Korea
2014 Foreign Residency Program Artist, Daegu, Korea

ARTIST RESIDENCIES

2015 Gachang Art Studio, Daegu Foundation for Culture, Daegu, Korea
2014 Phoenix Creative, Hangzhou, CHINA

makeflowers@naver.com

박준상
Joonsang Park

1977 Born in Ulsan, Korea
2005 B.F.A, Ceramic Art, Kookmin Univ.
2007 M.F.A., Ceramic Art, Kookmin Univ.

SOLO EXHIBITIONS
2017 Scientific Name, DAHAM Gallery, An-san, Korea
2010 Dear. Deer, AKA Gallery, Seoul, Korea

GROUP EXHIBITIONS
2017 Trusty Clod, Gallery Artside, Seoul, Korea
Design & Art Fair, Seoul Art Center, Seoul, Korea
Hongkong Art Fair, Gallery DAHAM, Hongkong
2015 MENDINI' collaboration, DDP, Seoul, Korea
GICB, KCF, Icheon, Korea

AWARDS
2013 Seoul Contemporary Ceramic Arts Contest, Seoul, Korea
2010 Ulsan International Onggi Competition, Ulsan, Korea

COLLECTIONS
2017 Gallery Artside, Seoul, Korea
Gallery askeri, Moscow, Russia
2015 SPC Corp, Seoul, Korea

Fifa0405@hanmail.net

성태향
Taehyang Seong

1991 Born in Gyeongsan, Korea
2014 B.F.A. Painting, Department of Fine Art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Korea

SOLO EXHIBITION
2016 Under-way, Beomeo Art Street, Daegu, Korea

GROUP EXHIBITIONS
2017 A Transparent Fishbowl, Artclub Samduk, Daegu, Korea
2016 Ten Topic Artist Festa-present, Daegu Art Factory, Daegu, Korea
Suchang 1964 Project No.1 Spatial Memory, KT&G Private Residence, Daegu, Korea
2016 Selected Artists Exhibition, Smiling Arts Center, Daegu, Korea
2015 Ten Topic Open Studio, Daegu Art Factory, Daegu, Korea
2014 Sensation, Gallery IN, Daegu, Korea
Dream like, Gallery IN, Daegu, Korea
2012 Media Facade Festival In Daegu, Daegu Arts Center, Daegu, Korea
Daegu Social Art Festa, Around the Jungang-ro, Daegu, Korea

ARTIST RESIDENCY
2015 Daegu Art Factory Ten Topic, Daegu, Korea

tjdxogid@naver.com

심래정
Raejung Sim

1983 Born in Daegu, Korea
2010 M.F.A. Department of Fine Arts,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Seoul, Korea
2008 B.F.A. Department of Fine Arts,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Seoul, Korea

SOLO EXHIBITION

2016 The Suspicious Signals, Art Space HUE, Paju, Korea

GROUP EXHIBITIONS

2017 B-Cut Drawing, Kumho Museum of Art, Seoul, Korea
Pink Poison, Arario Museum In Space, Seoul, Korea
2016 LAVA, COME BACK TO ME, Kimkim gallery, Yangpyeong, Korea
Nocturnal Solace, Itaewon-Dong 258-325, Seoul, Korea
2015 Crazy Square, Culture Station Seoul 284, Seoul, Korea
2014 ARTSPECTRUM, Leeum-Samsung Museum of Art, Seoul,
Korea

ARTIST RESIDENCIES

2015 SeMA Nanji Residency, Seoul Museum of Art, Seoul, Korea
2013 Goyang Art Studio,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Goyang, Korea

raejung@gmail.com

안정주
Jungju An

1979 Born in Gwangju , Korea
2013 BFA, College of Fine Arts, Seoul National Univ.
2011 MFA, Graduate School of Communication & Art, Yonsei Univ.

SOLO EXHIBITIONS

2016 Loop, Doosan Gallery, New York, USA
2015 Chain Letter, DooSan Gallery, Seoul, Korea
2014 Distant World, Make shop artspace, Kyungki, Korea
2013 Ten single shots, Gallery Zandari, Seoul, Korea
2012 Honest Person, Project Space Sarubia, Seoul, Korea

GROUP EXHIBITIONS

2015 This Rose-garland Crown, Atelier Hermes, Seoul, Korea
2015 Commemorative Exhibition of the 70th Anniversary of Liberation: the Great Journey with the Citizens Uproarious, Heated, Inundated,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Seoul, Korea
2015 Festival 284 Michin Plaza, Culture Station Seoul 284, Seoul, Korea
2015 The Future is Now!, National Museum of XXI Century Arts(MAXXI), Rome, Italy
2014 New works of 9 promising Artists 2014-The Breath of Fresh, Gyeonggi Museum of Modern Art, Gyeonggi, Korea
A View from the other side, Munsin Museum, Seoul, Korea
How to enjoy your free time. One day. Nicely, Seoul 284, Seoul, Korea

RESIDENCY

2016 Doosan Residency New York, New York, USA
2009 Artist in Residence in Fukuoka Asian Art Museum, Fukuoka, Japan
2008 Kunstlerhaus Bethanien GmbH, Berlin, Germany
2007 HIAP Artist in Residence, Helsinki, Finland

FELLOWSHIP & AWARD

2014 Doosan Yonkang Art Award, Doosan Yonkang Foundation Art project Support,awarded by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2013 Art Creation Support,awarded by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COLLECTIONS

Art Sonje Center / Han Nefkens Foundation / Seoul Museum of Art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Korea / Doosan Art Center Leeum, Samsung Museum of Art / Fukuoka Asian Art Museum

www.anjungju.com

안효찬
Hyochan Ahn

1990 Born in Pohang, Korea
2015 B.F.A. Sculpture, Department of Fine Art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Korea

SOLO EXHIBITIONS
2016 'WE' are in the 'CAGE', Gachang Creative Art Studio, Daegu, Korea
2016 Person Is Greedy, Zhe Mu Hui Art Space, Hangzou, China
Story of Bottles, B-communication, Daegu, Korea
2015 Remembrance, Beomeo Art Street, Daegu, Korea

GROUP EXHIBITIONS
2017 Gyeonggi Art prism, Gyeonggi Meseum of Modern Art, Ansan, Korea
Breadth of mind, Daegu Arts Center, Daegu, Korea
Drifting Unconsciousness, Gyeonggi Creation Center, Ansan, Korea
Daegu Arts Ecology Center, Daegu Art Factory, Daegu, Korea
Critical Point, Space K, Daegu, Korea
2016 Creative Space Festival, Seoul citizen shall, Seoul, Korea
Asia contemporary Art Show, Conrad Hongkong, Hongkong, China
Art Taipei, Taipei 101, Taipei, Taiwan
Art China, National Agricultural Exhibition Center, Beijing, China
Suv Collabo, Honda, Daegu, Korea
li. ch. q. j., Gachang Creative Art studio, Daegu, Korea
2015 NEO POP, Gallery Mei, Seoul, Korea
COEXISTENCE, Yangpyeong Art Center, Yangpyeong, Korea

AWARDS
2015 Design Art Fair, Bronze prize, Seoul Arts Center, Seoul, Korea
2013 ABSOLUT AWARD <Create your own ABSOLUT>, Seongsudong Daelim Container, Seoul, Korea

ARTIST RESIDENCIES
2017 Gyeonggi Creation Center, Ansan, Korea
2016 Gachang Art Studio, Daegu, Korea
China Art Educational Institute, Hangzou, China

PUBLIC COLLECTION
Gyeonggi Meseum of Modern Art, Ansan

anan0106@hanmail.net

안드레이 케친
Andrey Kezzyn

1979 Born in Leningrad USSR Russian

SOLO EXHIBITIONS
2016 Salome , Micro Museo Monza , Monza, Italy
2014 The Four, Gallerie Vernon, Prague, Czech Republic
Leningrad 2012: In Search of a Hero, House of National Minorities, Prague, Czech Republic
2013 Leningrad 2012 Galerie Vernon, Prague, Czech Republic
Evening Rollcall , More Gallery, St Petersburg , Russia
SOLO EXHIBITION, Art Centre, Samara, Russia
2012 SOLO EXHIBITION, Vertol Expo, Ristov-on-Don, Russia
2011 SOLO EXHIBITION, Zavod Gallery, St Petersburg, Russia

GROUP EXHIBITIONS
2017 Der stinknormale Mann, Kultur Forum Dresden, Dresden, Germany
Europe Is a Guest in Rees, MoSiMo ARTraum Galerie, Rees, Germany
Moderne Zeiten, Galerie Christine Knauber, Berlin, Germany
21 Accrochage, SCHAU studio, Koblenz, Germany
2016 Devil Inside Me , The Public House of Art, Amsterdam, Netherlands
5 lauréats et l'exposition "1% de privilégiés", Galerie Liberte, Arles, France
Les lauréats pour PDVI 2016, Darkroom Galerie , Nice, France
2015 5th China International Digital Photography Art Exhibition, Museum of Photography, Lishui, China
158 Royal Photographic Society Print Exhibition (10-month touring exhibition), UK

AWARDS
2016-2017 Trierenberg Super Circuit, Linz, Austria
2015 Federation of European Photographers, Granada, Spain
RDVI Photographic Salon , Strasburg , France
5th CIDPAE & Museum of Photography, Lishui , China

COLLECTIONS
Arte Al Limite, Santiago, Chile
Galerie Vernon , Prague , Czech Republic
Micro Museo Monza, Monza, Italy
Museum of Photography, Lishui, China
The Public House of Art, Amsterdam, Netherlands

www.kezzyn.com

이안민지
Minji Leeahn

1981 Born in Busan, Korea
2006 B.F.A. Painting & Print Making, College of Art&Design, Ewha Women University, Seoul, Korea
2011 PG Dip, Fine Art, Chelsea College of Art and Design, U.K

SOLO EXHIBITIONS
2016 ThE EvEry DaY is SpEciAL, Bongsan Cultural center, Daegu, Korea
2014 The Story of Her, Buono Cafe Gallery, Daegu, Korea
2012 The Painting Diary, Bongsan Cultural center, Daegu, Korea
Reveal my Heart, Seoul Gallery, Ochang, Korea
2009 The Depth of Desire and Limitation of Freedom, Shinsang Gallery, Seoul, Korea

GROUP EXHIBITIONS
2017 Secretbox, SANGIN GALLERY, Daegu, Korea
Daegu, Thinking about Body, Daegu Arts Center, Daegu, Korea
Sweet House, SPACE 129, Daegu, Korea
Spring Breeze, SPACE 129, Daegu, Korea
A4, SPACE 129, Daegu, Korea
2016 Daegu Contemporary Art Festival, Bongsan Art Road, Daegu, Korea
100 Daegu Catholic Artists, Beomeo Cathedral Gallery Demange, Daegu, Korea
Life and Artist, Daegu Culture Arts Center, Daegu, Korea
2013 Lag, Haeundae Cultural Center, Busan, Korea
2012 Daegu Photo Biennale, Gallery Athena-Paris, Busan, Korea
ART GAGA, Gagagallery, Seoul, Korea
2011 Green Week, Central Saint Martins, London, U.K.
Fuck Me Twice, Chelsea DG14, London, U.K.
2010 Summer in Gallery, Seoul Gallery, Seoul, Korea
2009 A Midsummer Night's Dream, Sinsang Gallery, Seoul, Korea
New Star Artist, Sinsang Gallery, Seoul, Korea
2008 Life Style Design, Cheongpa Gallery Ⅱ, Cheongpa, Seoul, Korea
華, Cheongpa Gallery Ⅰ, Seoul, Korea

minjileeahn@naver.com

인세인박
Insane Park

1980 Born in Gyeonggi-do, Korea
2008 BFA, Painting, Kyonggi University,Korea

SOLO EXHIBITIONS
2017 Making film : PORN, Makeshop ART Space, Paju,Korea
2015 summer's never coming again!, ART Project CZ, Shanghai, China
2014 director's cut, ARARIO GALLERY, Seoul, Korea
2012 Blame Game, Youngeun Museum, Gwangju, Korea
2011 M.Idea, ARARIO GALLERY, Seoul, Korea

GROUP EXHIBITIONS
2017 Stars of Star, Gyeongnam Art Museum,Changwon,Korea
2016 지나치게 감상적인, SPACE XX, Seoul, Korea
2015 Super Spreader : Media Virus, Nam june Paik Art center, Gyeonggi-do, Korea
31Experiment on Light, Cuture station Seoul 284, Seoul, Korea
2014 SEX+Guilty Pleasure, Amado Art space, Seoul, Korea

AWARDS
2013 2nd Etro Art Prize Wins (DUO, Korea), Seoul, Korea

RESIDENCY
2016-2017 Makeshop Art space residency, Paju, Korea
2016 Akiyoshidai International Art Village, Akiyoshidai, Japan

danakka29@naver.com

장석준
Suk-Joon Jang

1981 Born in Seoul, Korea
2005 Bachelor of fine degree, 조형예술과,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2012 Master of fine degree, 조형예술과,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SOLO EXHIBITIONS
2015 FLATCITY_Jandary gallery, Seoul, Korea
2011 Docu_META, MK2 art space, Beijing, China
2010 After image of city, Television12, Seoul, Korea
2009 Public solo show-Bus. Stop. curated by The Art Centre of Christchurch, Christchurch, New Zealand
2006 Close Sky, Rainbow, Art Space Hue, Seoul, Korea

GROUP EXHIBITIONS
2017 Subtopia, Kyunggiartconcil, Seoul, Korea
Landscape, Streetmuseum, Seoul , Korea
Ars Electronica 2016/deep space 8k/Linz, Austria
2016 SeMA BIENNALE MEDIACITY SEOUL 2016_NERIRI KIRURU HARARA, Seoul Museum of Art, Korea
Ars Electronica 2016/deep space 8k/Linz, Austria
Dae-gu Photo biennale, Dae-Gu, Korea
The way of Journey daily life, lihyun museum, Gang-won, Korea
KT mashupgigafestival, SJ Kunst Halle, Korea
2015 VH AWARD _ Hyundai Mortors group vision hall, Korea
19710810 Home without House_Sung-Nam city hall Sung-Nam Artcenter, Korea
2014 butterflies 2014, Artcenter Nabi, Korea
Recognition System_Kuandu biennale 2014, Kuandu Museum of Fine Art, Taiwan
Seong buk_documenta, Art center Seongbuk, Korea
Day and Night in Seoul, K11 Museum, SangHai, China
2013 Urban Archive@Seoul, Art Space 53, Korea
Nabi Hackaton 2013, Artcenter Nabi, Korea
City converting service, COMO gallery, artcenter Nabi, Korea
2012 Art show busan asia award show, Bexco, Busan, Korea
The Unfamliarity. Cais gallery, Seoul, Korea
unfinished journey, Cais gallery, Seoul, Korea

AWARDS & RESIDENCY
2015 VH AWARD _FInalist 3_Judgement _Lauren Conell(NewMuseum), Matin honzik(Ars Electronica)
Mongin art studio Residency program 2015~16
2013 Art council Korea The Nomadic Arts Residency Program
2011 COL art studio, Beijing , China
Make-shop company art studio
2010 Seoul foundation for art and culture_Seoul art space keum cheon 1st residency artist
2009 Asia New zealand Foundation-grant for Bus stop project
Seoul foundation for art and culture(SFAC) -grant for Solo show
The Art centre of Christchurch residency, New zealand
UNESCO-Bursary program -Djerassi Visual Arts residency
2007 International Artist studio program Korea 6th Artist-in-residence
2006 The Arts Council Korea for New Start Program of New Artists

COLLECTIONS
2014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Art bank, Seoul, Korea
2011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Art bank, Seoul, Korea

vanyah149@gmail.com

정재범
Jaebeom Jeong

1982 Born in Seoul, Korea
2009 Bachelor Degree, Metal Art & Design, Woodworking & Furniture design, Hongik University
2015 Master's Degree, Industrial Design, Bezalel Academy of Arts and Design Jerusalem

SOLO EXHIBITIONS
2017 2017Hello! Contemporary Art II - Jeong, Jae beom, Bongsan Cultural Center, Daegu, Korea
2016 Cuckoo cuckoo Ribbit ribbit, Gachang Art Studio, Daegu, Korea

GROUP EXHIBITIONS
2017 Unfamiliar, Arriva, Cheongju Art Studio, Cheongju, Korea
Breadth of Mind, Daegu Arts Center, Daegu, Korea
Platform, Hansen House, Jerusalem, Israel
2016 3UNTITLED, Art Space Purl, Daegu, Korea
2015 Metabolism, Binyamini Center, Tel Aviv, Israel
2014 UptoDate, Jerusalem Design Week, Jerusalem, Israel
2013 Korea Power, Museum Angewandte Kunst, Frankfurt, Germany

RESIDENCY
2017 Cheongju Art Studio, Cheongju, Korea
2016 Gachang Art Studio, Daegu, Korea

www.jaebeomjeong.com

조진섭
Jinsub Cho

1984 Born in Seoul, Korea
2009 Bachelor, Visual design, Far East University
2016 Bachelor, Photography, Icart-Photo

GROUP EXHIBITIONS

2016 Refugee Crisis, Seoul Photo Festiva, Seoul, Korea
Refugee Crisis, Deagu Photo biennale, Daegu, Korea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during Second World War, The Korean Council for the Women Drafted for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War, Seoul,Korea
2014 The Sinking of the MV Sewol, 1st Month of Documentary Photography Korea, Suwon, Korea
The Sinking of the MV Sewol, sewol aftermath, Seoul/Ansan, Korea

AWARDS

2016 Honorable Mention in the 1st TIFA Photo Awards 2016 - 'Mohammd's New Life'Tokyo, Japan
Selected by 'The Grand Prix Paris Match 2016' - Transport, Paris, France
Selected by '2016 PDN Photo Annual' - Transport, Newyork, USA
Selected by 'Nuits de Pierrevert' - Transport, Pierrevert, France
2015 Documentary category prize in '1x Photo Awards 2015 - RefugeeCrisis', Paris, France
Selected by '6ème Rendez-vous Images' - Refugee Crisis, Strasbourg, France
Selected by 'The Grand Prix Paris Match 2015' - Before and After, Day, Paris, France
Selected by POLKA & Wipplay - La France d'Apr_s, Paris, France

chojinsub.com

지아젠 린
Jia-Jen Lin

1980 Born in Taiwan
2002 B.F.A., Fine Arts, National Taiwan Normal University
2007 M.F.A, Fine Arts, School of the Museum of Fine Arts and Tufts University

SOLO EXHIBITIONS

2016 Manufracture Series: Bread, Steel, and Benjamin Moore, Temporary Storage, New York, USA
2016 WARK, Rabbithold Project, New York, USA
2015 The Archival Body, Archetype Factory, Taipei, Taiwan
2014 We Might Have To Excise Your Lung, chashama 461 Gallery, New York, USA
2013 Therapy, Attic Gallery, Taipei, Taiwan
2012 Turn Around The Back, tamtamART, Berlin, Germany

GROUP EXHIBITIONS

2016 Borderless: In Perspective, Lite-haus Galerie, Berlin, Germany
2015 Manufractura, Hangar, Barcelona, Spain
2012-17 FSP/Jerome Fellowship Artists on exhibition, Franconia Sculpture Park, Shafer, USA
2011 Made in Taiwan-Young Artist Discovery, Art Taipei, Taipei, Taiwan
Figure of Illusion-Japan Taiwan Exchange Exhibition, Inart Space, Tainan, Taiwan
Deep Brain Stimulation, Ruin Academy, Taipei, Taiwan
2010 Paradiso, Watermill Center, Water Mill, USA
2009 She : Visions of Women by Taiwnese Artists, Tenri Cultural Institute, New York, USA
Incheon Women Artists' Biennale, Incheon Art Platform, Incheon, South Korea
Queens International 4, Queens Museum, New York, USA

AWARDS

2017/14 International Residency and Cultural Exchange Grant/ Ministry of Culture, Taipei, Taiwan
2016 Brooklyn Arts Fund- Interdisciplinary/ Brooklyn Arts Council, New York, USA
2016/15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 Grant/ National Culture and Arts Foundation, Taipei, Taiwan
2015/11 Creation Grant in Fine Arts/ National Culture and Arts Foundation, Taipei, Taiwan
2012 FSP/ Jerome Fellowship, Saint Paul, USA
2011 The Performing Arts Grant Program/ Council for Cultural Affairs, Taipei, Taiwan
2009/08 Annual Asian Artist Alternate Fellowship/ Freeman Foundation, New York, USA
2008 First Place of The Paradox of the Water/ The Westport Arts Center, Westport, USA

2007 Jurors' Recognition/ SMFA Student Annual, Boston, USA
2005 Honorable mention/ SMFA Student Annual,, Boston, USA

RESIDENCY
2017 GlogauAIR, Berlin, Germany
International Studio & Curatorial Program, New York, USA
2015 L'Estruch, Sabadell, Spain
2014 Sculpture Space, Utica, USA
2013 Treasure Hill Artist Village, Taipei, Taiwan
2012 Franconia Sculpture Park, Franconia, USA
2010 Perth Institute of Contemporary Arts, Perth, Australia
Watermill Center, Watermill, USA
Bemis Center for Contemporary Arts, Omaha, USA
2009 Vermont Studio Center, Johnson, USA

COLLECTIONS
Private collection, Newton, MA, USA
Private collection, Utica, USA
Private collection, Shanghai, China/Italy

http://jiajenlin.info

최은철
Euncheol Choi

1979 Born in Inccheon, Korea
1998-2005 Bachelor Fine Arts Dankook University
2008-2013 Master Painting & Fine Arts, Alanus university of arts and social sciences

SOLO EXHIBITIONS
2017 Drawing Lab with Lukas Thein, some Afternoon, Jeju Island, Korea
2016 Position left.2 right.3, S.Y.L.A.NTENHEIM, Bonn, Germany

GROUP EXHIBITIONS
2017 Young Artist Project (YAP') a revolution from my bed, Exco, Daegu, Korea
2017 SaisonArt Bonn 2017, S.Y.L.A.NTENHEIM / Kunstbrennerei, Bonn, Germany
2017 23.Offne Atelier in der Bonner Altstadt, Kunstbrennerei, Bonn, Germany
2017 Take over zone, Spacenoon, SuWon, Korea
2017 FAROFF-Cologne Contemporary Art Fair,S.Y.L.A.NTENHEIM, Cologne, Germany
2016 Nachsicht 2016, S.Y.L.A.NTENHEIM, Bonn, Germany
2015 Space Montage, Kunsthaus Rhenania, Cologne, Germany
2014 Gong.Zone, Rudolf-steiner-haus, Bonn,Germany
2014 Bahnresonanz, Fabrik 45, Bonn,Germany
2013 Juxtaposition, K_nstler Forum Bonn, Bonn,Germany
2012 Spring in Prague, Akademia Tabor, Praha, Czech
2011 From there to here II, Kunst Raum, 바트 혼넨프, Germany
2011 Appasionato II, Cima Norma Danzio, Tessin, Switzerland

AWARDS
2016 culture and art promotion fund culture Office in Cologne, Cologne Germany
2015 K.F(Korea Foundation), seoul, Korea
Germany-France Art preis, contemporary 2015second Prize(award)Rotary club Bonn and Strasbourg, Bonnand Strasbourg, Germany &France
2011-2013 DAAD scholarship, Bonn, Germany
2009-2010 Karinhalft scholarship, Alanus university of Arts and social sciences

www.euncheol-choi.com

호아킨 세구라
Joaquin Segura

1980 Born in Mexico City, Mexico
1998-2003 Photography, Alternative Media, Centro de la Imagen. Mexico City. Mexico
1999-2004 Bachelor in Communication, Film & Video, Universidad Iberoamericana Campus Santa Fe, Mexico City, Mexico

SOLO EXHIBITIONS

2017 Repertoires of Contention (collaboration with Tony Garifalakis). Gertrude Contemporary. Melbourne, Australia.
Nueva narrativa metropolitana. Artere-a. Guadalajara, Mexico.
Tres golpes (collaboration with Javier Barrios). Fundaci_n CALOSA. Irapuato, Mexico
2016 A War of All Against All, La Ene - Nuevo Museo Energia de Arte Contemporaneo, Buenos Aires, Argentina
Whereof One Cannot Speak, Thereof one must remain silent, Alkovi / Ingredients, Helsinki, Finland
2015 The Tradition of All Dead Generations, Ex-Teresa Arte Actual, Mexico City, Mexico
2014 State of Exception, Espacio Minimo, Madrid, Spain
2011 Poetics of Dishonor, Sala de Arte Publico Siqueiros, Mexico City, Mexico
2010 Deceive, Inveigle & Obfuscate. Yautepec Gallery. Mexico City, Mexico.

GROUP EXHIBITIONS

2017 Repertoires of Contention: Joaquin Segura & Tony Garifalakis, Gertrude Contemporary, Melbourne, Australia
2016 Acts of Sedition, White Box, New York, USA
Resonancias desde el Jardin de las Delicias, Museo de Arte Carrillo Gil, Mexico City, Mexico
2015 Now? NOW? / Biennial of the Americas 2015, MCA Denver, Denver, USA
2013 Mexico: Inside Out, Modern Art Museum of Fort Worth, Fort Worth, USA

AWARDS

2010 Artemergente Bienal Nacional Monterrey / Acquisition Prize, Monterrey, Mexico
2009 National Fund for Culture and the Arts / Young Creators Grant, Mexico City, Mexico

RESIDENCY

2017 International Artist in Residence. Seoul Art Space_Geumcheon. Seoul, South Korea.
2015 Artist-in-Residence Program. Casa Wabi. Puerto Escondido, Mexico.
2013 MeetFactory - International Center of Contemporary Art, Prague, Czech Republic
EMARE European Media Artists in Residency Exchange. Impakt Foundation. Utrecht, Netherlands
2012 International Artist-in-Residence Program | ADM. Hangar. Barcelona, Spain.
2011 ONF Artist-in-Residence Program. Object Not Found/CONARTE. Monterrey, Mexico.
2010 JAiR Artist-in-Residence Program. Jaus. Los Angeles, CA. EUA.
2009 International Artist in Residence | Fundación/Colección Jumex. 18th Street Arts Center. Santa Monica, CA. EUA.
2008 International Studio and Curatorial Program / ISCP, New York, USA

COLLECTIONS

National Gallery of Victoria, Melbourne, Australia
Pinacoteca de Nuevo Leon, Monterrey, Mexico
Private collections : Mexico City, New York, Dallas, Barcelona, Los Angeles, etc.

www.joaquinsegura.net

홍지철
Jicheol Hong

1985 Born in Daegu, Korea
2011 B.F.A. Painting, Department of Fine Arts, Keimyung University, Daegu, Korea

SOLO EXHIBITIONS
2017 Window Gallery, Daegu Department Store, Daegu, Korea
2014 Extremely Aromatic World, Gallery B2, Daegu, Korea
2013 Extremely Aromatic World, Papyrus book Gallery, Chuncheon, Korea
2012 Extremely Aromatic World, Cafe Andorh, Daejeon, Korea
2011 Gallery Ire New Artists Selection, Gallery Ire, Paju, Korea

GROUP EXHIBITIONS
2017 Cacophony 13, Gallery Bundo, Daegu, Korea
2016 Bangchun Young Art Fair, Bangchun Traditional Market, Daegu, Korea
Ani+Pop Festa, Beomeo Art Street, Daegu, Korea
Artist Festa, Daegu Art Factory, Daegu, Korea
Asyaaf 2015, Culture Station Seoul 284, Seoul, Korea
2015 Creative contest Artist matchup, Daegu Art Factory, Daegu, Korea
(Han Seunghun+Hong Jicheol)^2, Gallery Bundo, Daegu, Korea
Y Artist Project, Gallery Rae, Busan, Korea
2014 freedom of expression, Gallery Art Soop, Busan, Korea
2013 No smoke without fire, Gallery Bundo, Daegu, Korea
5 Young Artists New Messages, Gallery Namu, Busan, Korea
Hongkong Contemporary, The Excelsior, Hongkong, CHINA
Rising Artist, Gallery Ire, Paju, Korea
2012 Becoming an Artist, Bongsan Cultural Center, Daegu, Korea
Mental Health Check- Exceptional Normal, Namsong Art Museum, Gapyeong, Korea
Young Artist Group Mirage, Baramheunjeok(Windtrail)Gallery, Namhae, Korea
UN Educational contribution National Assembly forum Art Contest, National Assembly Library, Seoul, Korea
10 Curators & 10 Futures, Hangaram Gallery, Seoul, Korea
2011 I Like Coffee, Bupyeong Arts Centre, Incheon, Korea
Cacophony Ⅶ, Gallery Bundo, Daegu, Korea
'Summer Wind' Summer Mirage Special Exhibition, Baramheunjeok(Windtrail)Gallery, Namhae, Korea
Talent Donation Project, ESPRESSO & COMPANY, Daegu, Korea
JW Young Art Award, Gongpyeong Gallery, Seoul, Korea
Portfolio, Iso, Daegu, Korea
2nd Gallery Ire 'Rising Artist', Gallery Ire, Paju, Korea
2010 HaHaHa, Gallery Bundo, Daegu, Korea
YA! Let's Play! Young Artist, Samduk Mansion, Daegu, Korea
2009 We Exhibition, Concert House, Daegu, Korea
Exit Exhibition, Gallery Cube C, Daegu, Korea
2008 Exit Exhibition, Gallery Cube C, Daegu, Korea

AWARDS
UN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UN Educational contribution National Assembly forum Art Contest, Grand Prize
The 2nd Gallery Ire Rising Artists Contest, Grand Prize
Artist Residency
2015 Daegu Art Factory Ten-Topic Project, Daegu, Korea

sabana16@nate.com

황종현
Jonghyun Hwang

1991 Born in Seoul, Korea
2016 Bachelor's degree, sculpture, Gachon University, Korea
Master's student, sculpture, Gachon University, Korea

SOLO EXHIBITIONS
2017 Fun House, Oh! Zemidong Gallery, Seoul, Korea

GROUP EXHIBITIONS
2017 Platform 9, Space M, Seoul, Korea
2016 2016GIAF Asia Contemporary Young Artist Award, SejongCenter, Seoul, Korea
Begin & Again, VisionTower Gallery, Seongnam, Korea
2015 Apartment of 3.7 pyeong, GanaArtspace, Seoul, Korea

AWARDS
2016 2016 GIAF Asia Contemporary Young Artist Award, Seoul, Korea
2015 GaChon Art,Desing Award, Seongnam, Korea

acdc7777@naver.com

로저 발렌
ROGER BALLEN

1950 Born in New York, USA
Lives and works in Johannesburg, South Africa

1972 BA, Psychology,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1982 MS, Geology, University of Colorado
1982 PhD, Mineral Economics, University of Colorado

SOLO EXHIBITIONS

2017 Saint Moritz Art Masters, Switzerland
Gallery Momo, Cape Town, South Africa
Gallery La Cupula, Merida, Mexico
Galerie Nardone Brussels, Belgium
Museo Marte, El Salvador
Galeria Principal of the Caixa Cultural Brasilia, Brasil
Arken Museum of Modern Art, Ishoj, Denmark
Aura Gallery, Taipei, Taiwan
Centro Cultural La Cúpula, Mérida, Mexico
Emon Gallery, Tokyo, Japan
Flair Gallery, Arles, France
Galerie Alex Daniels - Reflex Amsterdam, The Netherlands
Guerrilla Zoo, London, UK
Jingdezhen Tao Xichuan Museum, Jiangxi, China
M97 Gallery. Shanghai, China
Photomuseo National Museum of Photography, Bogota, Colombia
Zeitz MOCAA, Cape Town, South Africa
Yu Deyao, China
The Centro Cultural Matucana 100, Santiago, Chile
Les Rencontres de la Photographie, Arles
Gamma Galeria, Guadalajara, Mexico
Hamiltons Gallery - London, United Kingdom
Daum Museum of Contemporary Art, Sedalia, United States
La ERRE Cultural Soace, Guatemala
Origins Centre Association, Johannesburg, South Africa
Guandong Museum, China
Akershus Kunstsenter, Lillestrom, Norway
Te Uru Waitakere Contemporary Gallery, Auckland, New Zealand
Tauranga Art Gallery, Tauranga, New Zealand
Biennial Fotografica Bogota, Columbia
John and Mable Ringling Museum of Art, Sarasota Florida, United States
Stadtmuseum + Kunstsammlung Jena, Jena, Germany

GROUP EXHIBITIONS

2017 ON AIME L'ART at Collection Lambert, Avignon, France
Rotterdam Foto 2017, Rotterdam, The Netherlands
FOAM, Amsterdam - Roger Ballen with Asger Carlsen - No Joke
Musée de la Chasse, Paris Hans Lemmen
Diesel Art Gallery, Tokyo, Japan
- No Joke with Asger Carlsen

AWARDS

2017 The Asia Pacific Brands Foundation Legendary Award
2014 Suddeutsche Zeitung Magazin, Artist of the year, 2014 (See Issue 46, November 14 2014)
2010 Lucie Award, Finalist for Solo Exhibition of the year, George Eastman House
2009 PhotoEspana 2009, Madrid Spain, Honourable mention Best Photographic Book of the Year for Boarding House

COLLECTIONS

Museum of Contemporary Art, Italy
Central Academy of Fine Arts Museum, China
Art Gallery of Western Australia, Perth, Australia
The Jewish Museum, New York City, USA
Pori Art Museum, Pori, Finland / Berkeley Art Museum, California
Centre Georges Pompidou, Paris, France
Durban Art Gallery, Durban, South Africa
Foto museum, Munchen, Germany
George Eastman House, Rochester, New York, USA etc.

BOOKS

2017 Ballenesque Roger Ballen: a Retrospective. Thames & Hudson, UK
2016 The Theatre of Apparitions. Roger Ballen in collaboration with Marguerite Rossouw. Introduction by Colin Rhodes. Thames & Hudson, UK
Roger Ballen Appearances, Disappearances, Reappearances. Published by Nazraeli Press, US, 2016
2016 No Joke. Asger Carlsen, Roger Ballen, Morel. UK
2015 Resurrected (Toinen Tuleminen). Kerber Art/Serlachius Museot, Finland
2015 The House Project. Text by Didi Bozzini. Oodee Books, UK
2015 Elemental. Roger Ballen and Adam Ganz. Hotshoe, UK
Outland. Phaidon. Second edition Preface by Peter Weirmair, essay by Elizabeth Sussman.
Phaidon. US/UK
2014 The Audience. Nazraeli Press, US
2014 Roger Ballen's Theatre of the Absurd. Pug Oslo, Norway
2014 Asylum of the Birds. Thames and Hudson, UK
2013 Roger Ballen and Die Antwoord, I Fink U Freeky. Random House Prestel, UK/US

FILMS

2016 Roger Ballen's Theatre of Apparitions
2016 Roger Ballen's Theatre of the Mind
2015 Roger Ballen's Outland, Director Ben Crossman and Roger Ballen
2014 Asylum of the Birds, Director Ben Crossman and Roger Ballen
2013 Asylum, directed by Saskia Vredeveld
2012 I fink you Freeky. Music Video. Die Antwoord, Directed by Roger Ballen and Ninja

www.rogerballen.com

Colorful DAEGU

www.cdf.or.kr

2018 컬러풀대구페스티벌

Colorful Daegu Festival 2018

2018 炫彩大邱庆典

2018 カラフル大邱フェスティバル

2018. 5. 5(Sat) - 5. 6(Sun)

국채보상로 일대

Gukchaebosang-ro area (Seoseong Intersection to Jonggak Intersection)

国债报偿路一带(西城十字路口~钟阁十字路口) **国債報償路一帯**(西城交差点~鐘閣交差点)

Host DAEGU METROPOLITAN CITY | Supervisor Daegu Foundation for Culture

• 축제명 _ **2018 컬러풀대구페스티벌** Colorful Daegu Festival 2018

• 일 시 _ 2018. 5. 5.(토) ~ 5. 6.(일) • 장 소 _ 국채보상로 일대

기본 구성

컬러풀퍼레이드

약 100개의 퍼포먼스팀, 7,000명(2017년 기준)의 시민이 참여하며, 시민이 연출하고, 시민이 주인공이 되는 퍼레이드

거리예술제

축제 전 구간을 공연무대로 구성(국내외 전문예술단체, 시민공연 무대, 클럽파티 등)

추진 방향

- 컬러풀 퍼레이드를 대표로 하는 시민주도형 대구 최고의 축제
-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대규모 거리예술제 개최
- 해외예술단체 참여로 세계적인 축제로의 기반 구축

축제 소개

- 전국 최대 규모의 컬러풀 퍼레이드 퍼포먼스
- 국내외를 망라한 다양하고 글로벌한 퍼포먼스
- 국내 최대의 거리예술제로 지역과 세계가 공존하는 다채롭고 풍부한 공연예술
-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클럽파티 등 대형 이벤트로 가득한 축제

주요 볼거리

- 컬러풀대구페스티벌의 메인프로그램인 〈컬러풀퍼레이드〉
- 국내외 전문공연예술단체 퍼포먼스 〈국채보상로 거리예술제〉
- 거대 조형물, 살아있는 100인 동상퍼포먼스 등 〈포토존〉
- 지역예술작가의 작품 등 〈아트마켓〉
- 먹거리들의 향연 〈푸드트럭〉
- 시민들과 하나되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2017 청년미술프로젝트
내 침대로부터의 혁명

발행일	2017. 11.
전시일시/장소	2017.11.8–11.12 / 엑스코 1층
주최	대구광역시
주관	대구아트스퀘어조직위원회, 대구미술협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조직위원장	류형우
운영위원장	박병구
운영위원	김동광, 노인식, 노태웅, 이유경, 최금수
총감독	김이삭
전시코디네이터	도예리, 송상명
전시지원총괄	조동오
번역	이은진

Young Artists Project 2017
arevolutionfrommybed

Published in	2017. 11
Exhibieion period / venue	2017.11.8–11.12 / EXCO 1F
Organized by	Daegu Metropolitan City
Supervised by	Daegu Art Square Organizing Committee, Daegu Fine Arts Association
Supported by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Chair Person	Ryu Hyung Woo
Head of Steering Committee	Park Byung Koo
Steering Committee	Kim Dong Kwang, Roh Insik, Rho Tae Woong Lee You Kyoung, Choi Keum Soo
Exhibition Director	Issack Kim
Exhibition Cordinator	Yeri Do, Song Sang Myoung
Exhibition Manager	Cho Dong Ow
Translator	Lee Eun Jin

대구미술협회 Daegu Fine Arts Association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원순환로 201(문화예술회관 內) tel.82-53-653-8121~3
201, Gongwonsunhwan-ro, Dalseo-gu, Daegu, KOREA